국토최남단 마라도 방생법회
제주불교성지순례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

현대불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3월 12일 수요일(주간) 제412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봉은사 사회복지위 구성

봉은사는 강남 지역의 포교 일번지로서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전통사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은사는 주지임명과 종단분규를 격을 때마다 혼란을 겪음으로써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또 아셈건물 건립과 관련 무역협회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한 특별감사와 관련 종단 및 종회와 최근까지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해왔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 강남 봉은사가 복지사찰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4일 개별사찰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복지공동체 봉은사 사회복지위원회는 신도들로 구성된 '작은 보시 큰자비 실천회' 등 산하 60개 자원봉사조직을 갖추고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하게 된다. 사회복지위의 구체적 활동은 실직자 지원사업, 재난 구호사업, 장학사업, 무료진료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등 달기사업 등이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서울 강남구 및 수서구 일원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과 소년 · 소녀가장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위는 발족 후 1차 실천행사로 수서동사무소를 방문, 생활보호대상 50세대에 쌀 20㎏씩을 전달했다. 사회복지위가 곧바로 어려운 이웃을 찾은 건 굳은 실천 의지로 보인다. 신도들의 신행을 복지사업으로 회향하는 봉은사 사회복지위의 출범은 자비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올해를 '신앙회복의 해'로 정하고 전 사부대중이 청규를 생활화하여 참다운 믿음, 참다운 신행, 참다운 원력을 이웃에 회향키로 한 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치밀한 준비와 빈틈없는 실천으로 성공적인 사찰의 복지모델로 정착시켰으면 한다. 또 이 기회에 특별감사도 성실히 받아 그동안의 의혹도 말끔히 털어버리고 부처님의 자비를 사회에 회향하는 사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김원우(취재1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동해 삼척: (033)521-6293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고속철 금정 · 천성산 노선 재검토
북한산 관통도로 불교계와 협상

노대통령, 청와대 수석 · 보좌관 회의서 지시

문재인수석, 지율스님 방문 정부방침 전달

노무현 대통령이 7일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 관통 공사중단과 함께 노선 재검토를 지시했다. 5일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해 북한산 및 금정산 · 천성산 공사중지와 대안노선 검토를 약속한 지 이틀만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노선 백지화를 약속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논란이 계속돼왔던 금정산 · 천성산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수석 ·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 정무수석으로부터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 건설을 반대하며 31일째 단식중인 내원사 지율스님 소식을 비롯해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운동 등 불교계의 입장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만수 춘추관장이 전했다. 그러나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이 공사중단에 대한 언급없이 불교계와 협상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8일 지율스님을 방문, 공사중단 및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정부방침을 전달했다. 또 청와대는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수석실 차원에서 금명간 불교계와 만나 협의할 방침이다.

이번 노 대통령의 금정산 · 천성산 공사중단 및 노선 재검토 지시는 백지화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토지매입이나 공사발주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되고, 현 노선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지율 스님의 단식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관련기사 14면

금정산 · 천성산 노선 재검토 방식 및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노 대통령이 '쌍방의 전문가가 참여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협상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유인태 정무수석도 법장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구성해 대안노선을 모색하겠다"고 한 만큼 불교계, 건교부, 시공업체, 환경단체 등 폭넓은 범위의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계종 공동대책위와 범어사 · 통도사 등 부산경남지역 사찰들은 완전 백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율 스님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부산시청 앞에서 14일 대규모 환경법회를 개최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오른쪽 세번째)과 총무원 집행부 및 18개 교구본사주지가 7일 대구 지하철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희생자들을 위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대구= 박원구 기자

조계종 24기 행자교육원 9~31일 부산 범어사서

조계종 제24기 행자교육원이 9일부터 31일까지 제14교구본사 범어사에서 열린다.

만 41~50세가 출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번 행자교육원은 입교신청자 291명(남행자 194명, 여행자 97명)의 40%가량이 40대 출가자다. 사미 · 사미니 율의, 예식의궤 · 작법 등 9개 교과목과 '일보일배, 삼보일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틱낫한(24일) 스님과 총무원장 법장 스님(날짜 미정)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30일 5급 승가고시를 통과하면 마지막 날 사미(니) 계를 받는다.

권형진 기자

비구니스님 첫 부장 임명

법장스님 총무원 집행부 구성 … 종정 법전스님 예방

조계종 문화부장에 비구니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사상 비구니 스님이 총무원 부장직에 임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4일 문화부장 탁연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성관스님, 기획실장 현고스님, 재무부장 태연스님, 사회부장 현광스님, 호법부장 현진스님 등 총무원 6개 부서 부 · 국장 인선내용을 발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관련기사 · 인터뷰 3면

또 불교신문사장에는 현응스님이 임명됐으며,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유임됐다.

법장스님은 탁연스님의 문화부장 임명에 대해 "성보문화재 발굴관리 등 불교문화를 발전 계승하는데 비구니 스님의 섬세함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임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새로 구성된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은 7일 해인사를 방문, 종정 법전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스님은 "비구니 스님이 과반수가 넘고 여성의 역할이 커지는 사회흐름에 따라 비구니 스님을 부장에 임명했다"고 보고했고, 이에 법전스님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혜롭게 처리하셨겠죠"라고 화답했다. 법전스님은 또 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종단화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비구니 스님의 문화부장 임명과 관련해 한국불교기자협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여성개발원은 6일 환영의 뜻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편, 법장스님은 해인사 방문 후 대구 파크호텔에서 열린 본사주지연합회 회의에 참석한 뒤 총무원 집행부 및 본사주지스님들과 함께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3천만의 성금을 기탁했다.

한명우 · 박원구 기자

중앙승가대 대학원 6일 개원

입학생 18명 등록, 박사과정 곧 신설

조계종립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종범스님) 대학원 개원식이 6일 본관 4층 대법당에서 대학원장 홍선스님, 총동문회장 원행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개원사에서 "승가대 대학원 개원은 승가학풍 수립의 단초를 마련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21세기 사회에 봉사하는 승려를 배출하여 불교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총무부장 성관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중앙승가대 대학원 설립은 한국불교 1700년사의 쾌거"라며 "이후 박사과정을 개설해 종단의 대표 승려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원 설립을 허가받은 중앙승가대 대학원은 불교, 역경, 실천불교(포교사회)전공 학술(석사)학위 수여과정으로, 20명 정원이며, 2월 27일 첫 입학생 18명이 등록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남북 3 · 1절 공동법회

남한선 처음, 조불련서 6명 참가

분단 이후 최초로 남한에서 남 · 북 불교계 합동 법회가 개최됐다.

2일 황병준 조선불교도연맹 부위원장 등 6명의 조불련 관계자 들은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에 도착, 법왕루에서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3 · 1절 기념 ·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스님과 조불련 차서명 책임부원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이 땅 위에 대결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불교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 전에 간절한 서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틱낫한 스님 16~4월 4일까지 방한

특강 · 새만금 방문

틱낫한 스님이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방한해 대중강연, 송광사 · 범어사 특강, 새만금 방문, 수행법 지도에 나선다.

스님은 23일 순천 송광사를 방문해 방장인 보성스님과 다담을 나누고, 24일에는 송광사 강원과 부산 범어사 행자교육원 특강이 예정돼 있다. 또 27일에는 남원 실상사를 방문해 귀농학교와 한생명, 작은학교, 화림원 등을 둘러보고, 28일에는 새만금 갯벌에서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와 함께 '새만금 생명살리기를 위한 걷기 명상'을 한다.

31일 오전 10시 중앙승가대 강의,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오후 7시 30분 동국대 중강당에서 3회 강연 등도 준비돼 있다. 관련기사 5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mahamall.co.kr 마하몰에 추천하는 신상품

희담석 稀潭石

"보살님, 처사님
생명의 돌, 희담석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동남아의 오지에서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희담석 방석〉 ■ 권장소비자가격 : 198,000원 ● 색상 : 연카키색, 살구색
〈희담석 팜질백〉 ■ 권장소비자가격 : 38,000원
〈희담석 다기세트〉 ■ 권장소비자가격 : 80,000원
〈희담석 보료〉 ● 고급형 보료 : 4,000,000원 ● 1인용 보급형 보료 : 2,800,000원 ● 2인용 희담석 침대 : A형 13,000,000원 B형 15,000,000원

〈희담석 체험사례〉

● 직업적인 이유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데 수 개월 동안 항문 부분이 몹시 아팠다. 잘못하면 치질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병원이나 약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냥 넘기고 있던 중 〈희담석 방석〉을 만나게 되었다. 그냥 의자에 깔고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 몇 개월 동안 아팠던 항문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석을 사용한 지 불과 보름이나 지났을까? 〈희담석 방석〉이 치료 효과가 있다더니 확안한 일이다. 수량이 한정된 제품이라니 나중에 대비해서 미리 하나 더 구매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성원(43세/남, 작가)

● 나는 하루종일 컴퓨터와 씨름을 하는데 밤샘 작업 후나 아근 후에는 어깨와 팔이 수시로 쑤시곤 했다. 그러던 중 마하몰에서 판매되는 〈희담석 방석〉을 보고 처음에는 두손 탕석이 그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과 함께 비싼만큼 무언가 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구입을 하여 직장에서는 방석으로, 집에서는 팔과 어깨 부위 등에 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피곤할 때는 베개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제는 항상 〈희담석 방석〉을 항상 지니고 생활하는 희담석 매니아가 되어 버렸다. 최정근(33세/남, 컴퓨터 디자이너)

● 여고 1학년인 내 딸은 평소 책상에 앉아 밤 12시 넘기기를 힘겨워 했으며 그나마 졸기 일수였다. 또한 아침에는 늘 재우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지난 추석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알게 되어 딸 아이의 의자에 깔아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며 딸 아이는 새벽 3시~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도 졸기는 커녕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였고 다군다나 밤 늦도록 공부했음에도 아침에 힘들이지 않고 잘 일어났다. 평소 자기 반 32명 중 27등 정도였던 딸아이의 성적은 〈희담석 방석〉을 사용한 후 10등으로 올라갔고, 암기 과목을 어려워 했었는데 암기 과목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월등히 높아졌다. 나와 딸에는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라워했다. 김영희(41/여, 수험생 어머니, 부천 중동)

● 좌선을 하거나 혹은 경서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있다보니 고질적인 치질로 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소개받아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앉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좋다. 정안 스님(전남, 덕흥사)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

사 설

비구니 부장에 거는 기대

조계종이 제31대 총무원 집행부를 구성하며 비구니 스님을 문화부장과 국장에 임명해 관심을 모았다. 2월 24일 법장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 순간부터 새 집행부의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졌던 터에, 비구니 스님을 부장에 임명한 것은 강도 높은 파격으로 비치기도 했다.

당초 법장 스님은 선거 과정에서 비구니부의 신설을 공약했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수년전부터였다. 그러나 그런 필요성만큼이나 이견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보니, 이번 비구니 스님의 부장 임명은 적잖은 파격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파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만큼 비구니 부장 임명의 진정한 '값'을 만들어 내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첫 비구니 부장이라는 세상의 관심이 가슴에서 우러나온 격려와 존경의 박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조계종단사상 첫 비구니 부장으로 발탁된 탁연 스님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실력파다. 또 승가대학에서 후진 양성을 한 근년의 경력도 문화부장 소임을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부장이라는 자리는 보다 섬세하고 유연한 마인드를 필요로 한다. 변화해 가는 시대의 흐름을 먼저 감지하고 문화적 외연을 확장하는 순발력도 요구되는 자리다. 향후 비구니의 종무행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란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함께 분발할 일이다.

금강대학교 입학식에 부쳐

"교육은 백년의 큰 계획". 너무나 잘 알려진 말이라 식상하기 쉽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는 불교가 전성기를 누리며, 찬란한 당나라의 문화를 꽃피웠다. 당시 당나라가 세계의 중심 국가였다는 점에서 불교가 당시 세계문명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불교는 송대 이후 쇄락의 길을 걷게 된다. 중국문화의 주변으로 밀리더니 근대에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미신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도제 양성에 무심했기 때문이다.

일본불교는 어떠한가? 극심한 문화의 변동기를 겪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근대 이후 일본정부의 신불분리정책에 의해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메이지 유신 이후 군국주의의 등장은 불교의 재산을 빼앗아 신도를 부흥시키게 된다. 이에 일본불교계는 우수한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근대문명의 중심지인 유럽으로 유학을 보낸다. 위기 돌파의 한 방법으로 인재 양성에 매진한 것이다. 이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일본불교계의 동량들이 일본 사회와 불교계의 근대화에 이바지 하게 된다. 불교가 일본사회의 주도적 위상을 차지한 것은 물론이다.

천태종이 종립 금강대학교를 개교하여 첫 입학생들의 입학식을 거행했다는 소식이다.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에 이은 세번째 불교계 종립대학이지만 천태종에선 최초의 교육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과 일본 불교계의 역사적 전철을 거울삼아 종단 발전의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금강대 '소수정예' 첫 입학식

첨단교육 환경속 24시간 교육, 전문가 육성

전원 장학금·기숙사 무료·도서구입비 지원

지난해 11월 개교한 천태종 종립 금강대학교(총장 박봉식)가 5일 첫 입학식을 열고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나'군으로 선발한 신입생 52명은 불교문화학부 4명, 통역학부 37명, 사회과학부 11명 등으로, 천태종 스님 4명과 외국 스님 2명이 포함돼 있다. 입학생들은 기숙사와 강의실 등 캠퍼스에서 24시간 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집중 육성된다. 입학생이 정원 1백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별도의 추가모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소수정예의 전문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강대 박봉식 총장은 "모든 대학에서 생각만 해오던 소수정예 교육과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 각자의 능력을 무한히 계발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장학혜택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학생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전문가로 거듭난다는 각오로 교육에 임하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강대는 '세계로 나아가는 소수정예의 최고대학'으로 키운다는 교육방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최첨단 교육기자재와 교육시설, 우수 교수진을 갖추고, 신입생은 내신 2등급 이상의 성적 우수자로 한정했다. 입학생 전원에게는 전액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 무료 제공, 도서구입비 지급, 우수졸업생 유학비 지급 등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금강대학교는 5일 첫 입학식을 열고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동국·위덕대도 입학식

한편, 조계종립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는 3,078명과 2,252명의 신입생으로 4일과 5일 각각 입학식을 치렀다. 7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 진각종립 위덕대도 4일 입학식을 가졌다.

논산=박봉영 기자



서울불교전문강당 1기 82명 입학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함께 모여 전통강원의 교과목과 공부방법으로 한문 경전을 강독하는 '서울불교전문강당'이 3일 문을 열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이날 제1기 입학식을 갖고 무비 스님의 <초발심자경문> 강의를 시작으로 첫 수업을 가졌다. 스님 60명(비구 27명, 비구니 33명)과 재가자 22명(남 10명, 여 12명) 등 82명이 입학했다. 2년제 4학기 8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2기는 내년 3월 개강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문화에 관심 갖겠다"

이창동 문광부 장관 법장총무원장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4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2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법장스님은 "불교문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공감한다. 관광의 본질은 건물이나 물질적 향유가 아니다. 관광은 문화 속에 속해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문화가 중심이 돼 왔고, 미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고 중점적으로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홍보책자 발간 상반기 영문판도 계획

조계종이 처음으로 종단 대내외 홍보용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안내 책자는 종단의 역사와 현황, 활동 등을 간단한 내용과 함께 사진으로 설명해놓았다. 세부적으로는 △조계종 역사 및 종단 기구표 △사찰과 수행생활 △조계종과 성보문화유산(불교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 △조계종의 주요 문화행사 △조계종의 사회활동 등이 소개돼 있다.

조계종 기획실은 이 안내책자를 신도교육용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며, 올해 상반기 중 영문판 안내책자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북사찰 단청지원 두단체 '엇박자'

약속시기 이미 경과, 종래 입장만 고수

현재 북한 단청불사 지원을 밝힌 곳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평화통일불교협회 2곳이다.

민추본은 11일 상임집행위원 학담스님 등 6명이 평양을 방문한다. 평불협도 2월 27일 베이징에서 심상진 서기장 등을 만나 단청지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의문점은 지원 시기. 민추본은 2003년 1월 "3월 말까지 1차로 28개 사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평불협도 2002년 12월 "3월부터 평양 법운암 단청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민추본은 이미 시간이 지났고 평불협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통일부 승인을 받으려면 20일 정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단체는 아직도 단청지원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례로 3.1 민족대회에서 일부 스님들은 조불련 관계자들에게 "대북지원을 민추본으로 단일화하자"고 요구했을 정도였다. 대북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민추본이나 평불협의 단청지원은 시범사찰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평불협은 2월 27일 베이징 회담에서 김성철 개성 영통사복원추진위원회 사무국장과 복원지원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2차년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전북·제주 절 158곳 대상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탁연 문화부장)은 12일 고창 선운사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2차년도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 사찰은 전라북도(150개)와 제주지역(8개) 158개 사찰로 태고종, 천태종 등 다른 종단 사찰도 40여 곳 포함돼 있다. 조계종은 98년과 지난해 자체 실시한 본·말사 성보문화재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700여 건의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진행되는 일제조사는 문화재청 예산지원(총 50억원)으로 실시된다.

권형진 기자

'현 대' 만평

김 영 민



천태종, 미아찾기 나섰다

기획실장 현고 스님



1950년 생으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3년 송광종합사회복지관장. 1994~98년 송광사 주지. 2001년 총무원 기획실장. 현 경실련 전남협의회 상임대표, 사단법인 푸른전남21 대표이사 겸 회장.

재무부장 태연 스님



1958년 생으로, 혜각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4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7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78년 범어사 강원 졸업. 1984년 은을암 주지. 현 울산 보현사 주지.

사회부장 현광 스님



1958년 생으로, 창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박사. 2000년 미국 하버드대 박사후과정 수료. 현 백양사 참사람 수련원장, 조계종 교육원 종단 수행체계연구위원회 위원.

호법부장 현진 스님



1950년 생으로, 법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8년 동국대 졸업. 1977년 동국대 석림회 11대 회장, 1994년 중앙종회의원. 1998~99년 조계종 교육부장, 포교부장 역임. 현 경기 안산 선재정사 주지.

비구니 발탁 | 교구본사 안배 | 실무능력 고려

시대흐름 부응 종단변화 포석

이번 총무원 집행부 인선의 특징은 비구니 스님 발탁, 교구본사 안배, 변화 마인드와 실무능력 고려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조계종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이 부장직에 발탁됐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교계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장관 인사가 파격이라면, 탁연스님의 문화부장 임명은 '충격'에 가깝다면서도 반가움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비구니 스님의 부장직 발탁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종책에서 비구니부 신설을 약속했으나, 대신 비구니 스님을 부장직에 임명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현광스님의 사회부장 임명도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경 및 대북 문제 등을 다루는 사회부에 옥스퍼드와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학승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장스님은 "파격 인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종단 내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대 흐름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인사를 통해 종단의 변화의 포석을 놓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교구본사별 안배도 두드러진다. 이번에 임명된 부·국장 15명은 범어사 백양사 송광사 법주사 마곡사 등 10여 개 본사 출신이 고루 포진돼 있다. 법장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직후 '인선위원회'를 구성해 각 본사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공언했고, 이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번 인선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변화 마인드와 실무능력을 갖춘 인사를 고루 기용했다는 점이다. 총무부장 성관스님이나 문화부장 탁연스님, 사회부장 현광스님의 발탁은 변화를 바라는 종도들의 요구를 수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종무행정 유지를 위해 실무에 밝은 현고스님을 기획실장에, 현진스님을 호법부장에 임명하고 국장급도 2명을 유임시키는 등 실무형을 배치했다.

집행부의 학력이 높아졌다는 점도 흥미롭다. 6명의 부장 가운데 3명이 박사급이다. 사회부장 현광스님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박사 출신이고, 문화부장 탁연스님은 일본 입정대 박사학위 소지자다. 또 총무부장 성관스님은 현재 동국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외에도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고려대 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중이고, 감사국장 태진스님과 문화국장 심원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학위를 땄거나 과정을 마쳤다. 재정국장 도성 스님은 동국대 사회복지학 석사여서 비정치적 종무행정에 대한 기대를 낳게 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 새 집행부 구성 배경·의미

안정적 종무행정 위해 국장급 2명 유임
박사급 부장 3명 종단 비정치화 기대

국장급 인선 명단	
총무국장	주경스님
기획국장	세정스님
감사국장	태진스님
재정국장	도성스님(유임)
문화국장	심원스님
사회국장	정견스님
호법국장	자공스님(유임)
조사국장	각원스님
상임감찰	덕문스님

'사면', 법장 총무원장 첫 과제될 듯

25일 임시중앙종회서 다룰 가능성
멸빈자 포함여부 싸고 논란 예상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이 올해 초 신년 하례식에서 사면 교시를 내린데 이어, 원로회의도 지난 2월말 98,99년 종단사태의 징계자를 사면하라는 유시를 발표함으로써 사면문제가 법장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후 첫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사면 문제는 25일로 예정돼 있는 임시중앙종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당선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사면할 부분이 있다면 사면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중앙종회의 동의절차가 무리없이 이뤄질 수 있는지와 사면 시기 및 범위다. 사면은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종정에게 품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종회의원은 "종회에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면 대상자에 멸빈자 포함여부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98,99년 종단사태 때의 징계자는 멸빈(복적 불가능) 10명, 제적(징계5년 후 복적 가능) 8명, 공권정지(집행기간 중 공직취임 불가) 29명 등 모두 47명이다. 이 중 멸빈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37명이고, 이 가운데 공권정지 10년 이상자는 10명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은 20여명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멸빈자를 구제하지 않는 사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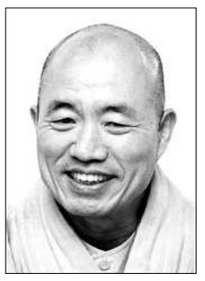
하지만 멸빈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종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종헌 제128조에는 '징계의 사면, 경감에서 멸빈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상당수 교계 관계자들은 "진정한 화합차원의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멸빈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승단 내 문제를 사회재판까지 끌고 갔던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종단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종정스님과 원로회의가 잇따라 유시를 내림으로써 사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일단 사면이 된다면 그 시기는 올 부처님 오신날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불교위상 총무원 변화에 달려

신임 총무원 총무부장 성관 스님



조계종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판단체로 꼽히는 실천승가회 의장에서 총무원 수석부장인 총무부장에 임명된 성관스님. 스님은 실천승가회 의장직을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아 총무부장직을 맡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다며 말문을 열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맡았으니 국민이 조계종에 바라는 바를 충족시키고 한국불교의 장자종단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성관스님은 가장 먼저 총무원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가 아닌 합의점 도출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총무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를 두루 기용해 지식기반 사회의 흐름을 앞서가는 지성인의 전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업무 재조정 등의 전체적인 윤곽은 올 하반기쯤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합의점을 도출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것입니다."

성관스님은 비구니 스님 인선이나 사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비구니 스님의 문화부장 인선은 기존 관념을 극복해나가야 하는 과제의 첫걸음이며, 사면은 종단화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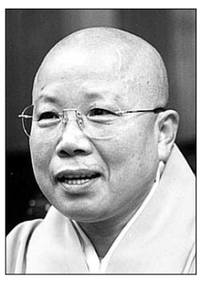
성관스님은 1955년 생으로, 정공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국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총무원 문화부장, 호법부장과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실천승가회 의장으로 있다. 한명우 기자

업무 재조정 내용 하반기 윤곽 제시

인터뷰

불교문화 대중·생활화에 주력

신임 총무원 문화부장 탁연 스님



"뜻밖에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문화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하겠지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총무원 문화부장에 임명된 탁연스님은 5일 임명장을 받은 직후 문화부 운영방침과 비구니 위상 강화에 대해 확고한 소신을 내비쳤다.

"불교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함께 불교문화의 대중화 생활화에 중점을 둘 것 입니다.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과 능력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전통 불교문화 창달 사업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종단 내 비구와 비구니의 차별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율법대로 한다면 스님은 돈을 받아서도 안되고, 신발을 신어서도 안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부처님 율법은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살라는 의미로 본다"고 말했다.

6살 때 어머니(산청 심적사 벽해스님)가 출가하면서 함께 머리를 깎기도 했던 탁연스님은 결국 어머니와의 인연으로 1969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해인사 국일암에서 현오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49년생으로, 76년 봉녕사승가대학과 83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86년부터 10년간 일본 입정대학에서 유식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봉녕사승가대학 강사를 맡아 학인들을 지도해 왔으며 2년 전 금강율원을 졸업했다. 한명우 기자

비구니 차별 시대상황따라 달라져야

종교법인 광명사 설법대학 제 1기 학인모집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땅에 전래된 이래 불교는 우리 아사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써 민족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 왔습니다.

대한불교웅변인협회가 이러한 민족불교의 의지와 신념을 웅변으로 밝히고 실천해온지 3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의 후원과 협조로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세계불교법륜기 수여 전국웅변대회」를 개최하여 600여개가 넘는 장관상과 3부요인 상이 시상되었고,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본 협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장표창을 비롯하여 1,000만 그루 식수의 나무를 적극후원하고 있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출된 수많은 연사들이 불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결속 사회 각 분야에서 불법홍포와 문화창달의 역군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음이 본 협회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웅변인협회」는 드높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의 추구와 시대변화에 걸맞는 교육철학의 정립을 위해 「설법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법대학에서는 삶과 생활의 지혜를 열어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불교교리는 물론 웅변, 설법, 서예, 도양화, 다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연차적으로 일반교양의 교과 과정도 폭넓게 개설하여 전통적 교수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통한 참된 지성인의 인격도야를 위한 배움의 장에 불자님과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동참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7년(서기2003년) 3월

대한불교웅변인협회 회장
(종교법인)설법대학 학장 표자원 합장

모집기간 및 개강일
◎ 모집기간 : 불기 2547년 3월 1일 ~ 3월 30일 까지
◎ 개 강 : 2003년 4월 12일(토) 오전 10:00

모집내용
◎ 정규반 50명
◎ 초·중·고반 50명
◎ 방송 성우반 20명
◎ 서예 사군자반 20명
◎ 정치 지망생반
◎ 스님 특별반
◎ 사진반
◎ 다도반

지원자격
◎ 포교사 자격희망자
◎ 설법을 요하는 스님
◎ 대학 진학 특기장학생
◎ 성우 지망생
◎ 미술전공 희망자
◎ 학원설립을 원하는 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사본
◎ 증명사진 3매
◎ 스님 추천서

강의일시 및 장소
◎ 일 시 매주 토·일 요일 오전 10:00~12:00
◎ 장 소 광명사 1층 강의실

교수진 (불교)
◎ 표자원 스님 대한 불교웅변인 협회장 광명사 주지, 서대문구 사암연합회장
◎ 무진장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제2대 불교웅변인 협회장
◎ 표도철 스님 초대불교웅변인 협회장 국제포교사 한미사 회주

교수진 (서예·동양화)
◎ 지촌 허룡 (단원, 전통, 한국문화, 한국미술, 현대미술, 대한민국 미술대전)심사위원역
◎ 매창 안영자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교수진 (웅변·설법·성우)
◎ 김계원 KBS 성우
◎ 이종래 대한웅변인 협회 전 회장 웅변부문 대통령상 수상자
◎ 손은봉 다산정치학회 회장 웅변부문 대통령상 수상
◎ 김수웅 대한불교웅변인협회 사무총장 전국웅변대회 심사위원장
◎ 유인배 선거유세위원 4회연속 당조직 연설, 종교부위원장

교수진 (건강·사진·의식)
◎ 김기원 진주산업대 새생명광명회 대표
◎ 이치란 서계불교도(WFB,WFBY) 한국본부사무총장 해동불교대학 교무처장 국제포교사
◎ 이우탁 대한민국 사진대전 특선 저서 : 사도 사진 작가가 될 수 있다.
◎ 김상경 박사 한국미래건강 연구회장 스리랑카 벨라나 국립대학 명예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 2동 44-498 설법대학
대한불교웅변인협회 총본부 부설 Tel. 02)732-5509, 736-1895, 735-1896 / FAX. 02)723-4350

일주문



태 · 스리랑카 방문 문화교류
현해 오대산 월정사 주지는 7~15일 교구 말사 주지 · 종회의원 스님들과 태국 · 스리랑카를 방문, 불교학술 문화교류 활동을 했다.



14일 세종홀서 총회
법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은 14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소연회장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왜 불교 배워야 하나' 법문
보선 전 해남 대흥사 주지는 13일 오전 10시 광주불교문화대학에서 '왜 불교를 배워야하는가'를 주제로 법문한다.



출가~열반재 특별정진
우학 대구 영남불교대학장은 부처님 출가재일과 열반재일 기간인 10~17일을 포교 · 용맹정진 주간으로 선포하고 특별정진에 들어갔다.



국위선양 공로 국민포장
도원 부산 삼광사 주지는 부산아시안게임 미얀마서포터즈 회장을 맡아 국위를 선양한 공로로 2월 26일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받았다.



어린이 포교기금 일일찻집
지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장은 15일 전통찻집 '다전'에서 어린이 포교 기금마련 일일찻집을 연다.



'서산 갈매기야…' 출판 법회
성관 수원 용화정사 주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불교방송에서 '서산 갈매기야 내 한손 합장의 뜻을 알라' 출판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혜인스님 초청 법회 봉행
의은 서울 불광산사 주지는 9일 1층 법당에서 제주 약천사 주지 혜인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사찰요리 봄철강좌 열어
선재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은 20일부터 4개월간 수원시 장안동 실습실에서 사찰요리 봄철 강좌를 연다. (031)243-2286



청소년수련협회장 추대
선진규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5일 천안 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에 재추대됐다.



'자서전 집단상담' 12회 실시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면접상담 프로그램 '자서전으로 하는 집단상담'을 12회에 걸쳐 실시한다.



'신세계'와 복지사업공조
정성욱 서울 성북노인복지관장은 6일 신세계백화점 미아점과 복지사업 공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미 태고사서 감사패 받아
허길량 목조각장은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태고사로부터 대웅전 불사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산사 · 티베트문화체험 진행
김규현 티베트연구가는 15, 16일 보성 대원사에서 산사체험과 티베트 문화 체험을 겸한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02)747-7033



◇김대중 前 대통령



◇김윤식 교수



◇소설가 조정래



◇이애주 교수

만해상 4개 부문 수상자 발표

평화 김대중 前 대통령

학술 김윤식 명예교수

문학 조정래 소설가

예술 이애주 교수

만해 한용운 스님의 불교사상과 평화사상, 예술혼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법장)가 제정한 제7회 만해대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만해대상 심사위원회(공동대표 고은 이수성)은 3일 △평화부문-김대중 전대통령 △학술부문-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 △문학부문-조정래 소설가 △예술부문-이애주 서울대 교수 등 4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자에게는 순금 만해메달 및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8월 9일 강원도 백담사에서 열리는 제5회 만해축전 행사장. 심사에는 백담사 주지 일문 스님, 손학규 경기도지사,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최동호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만해대상심사위원회는 "김대중 전대통령은 한반도에 오랫동안 조성돼 온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화해 첫 단계인 남북정상 회담을 실현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에 헌신했다"라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또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40년 동안의 강단 교육 현장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한국 문학 및 인문학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를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소설가 조정래 씨의 만해대상 수상배경에 대해 "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인간상을 형상화해 왔으며 80년대 사회 환경 속에서 대하소설 <태백산맥>을 완간함으로써 해방공간과 동족상잔시기를 살았던 삶과 죽음을 생생하게 재현했다"고 말하고 이애주 교수의 선정에 대해서는 "70년대 이후 민주 · 민중의 보편적 염원을 무용 속에 담아내고 한국 민속춤의 후진양성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줌마민족 박해 세계 알리고 싶어"

JPNK 로넬 차크마 나니 사무국장



"우리는 한국에 돈 벌러 온 게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국경 치타공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줌마민족이 정부로부터 탄압 받고 있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온 것입니다."

줌마민족네트워크 한국지부(Jumma People's Network Korea, 이하 JPNK) 사무국장 로넬 차크마 나니(Ronel Chakma Nani, 사진). 로넬 사무국장은 9명의 동지들과 함께 2002년 4월부터 김포시 대곶면에 사무실을 얻고 줌마민족 자치권 획득 운동을 벌이고 있다.

차크마(Chakma), 마르마(Marma), 트리퓨라(Tripura) 등 13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줌마민족은 몽골 계통이라는 점에서 방글라데시 주류 '뱅갈리' 민족과 언어, 문화,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90%이상이 불자인 줌마민족은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정치 ·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

줌마민족에게 최초의 박해가 시작된 것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가 다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될 때였다. 뱅갈리 민족은 파키스탄 정부에 항의해 독립운동을 펼쳤고, 줌마인들도 여기에 동참했다. 투쟁 끝에 1971년 방글라데시 정부가 수립됐지만 줌마민족은 다시 탄압을 받게 된다.

"한국 NGO들과 연대해 줌마민족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습니다. 또 법무부에 낸 정치적 난민신청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서툰 한국말이지만 박해와 난민, 자치라는 단어에는 강한 힘이 들어있다. 문의: (019) 813-5955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한국고승유적 방치 안타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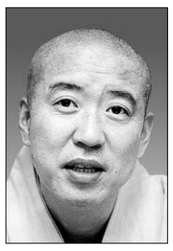
중국 항주 · 영파 등 다녀온 효탄 스님



최근 항주-영파-보타산-천태를 잇는 중국 지역 답사를 다녀온 효탄 스님(동국대 강사 · 사진)은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안고 돌아와야 했다. 중국 천태종의 16세 조사를 지낸 고려 의통(927~988)스님이 20년간 머문 영파의 전교원(傳敎院)이 안내판 하나 없이 주춧돌 2개만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마저 전교원 주변의 재개발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들은 스님은 영파 박물관 관계자에게 주춧돌을 옛 고려사관(高麗使館)으로 옮겨 줄 것을 부탁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효탄스님은 "중국에는 우리 나라 승려들이 남긴 자취들이 전 지역에 남아 있는데 후손인 우리들은 이런 고승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데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우리의 고승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자칫 한 줄의 기록 속에 묻혀버리게 될 수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권형진 기자

불교신문 사장에 현응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현응 스님(사진)이 5일 불교신문 사장에 임명됐다.

현응 스님은 1972년 종성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으며 개혁회의 기획조정실장, 총무원 기획실장, 12대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제13대 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으로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운동 등 불교환경운동에 노력해 왔다.

스님은 "불교신문이 조계종 기관지인 만큼 종지종풍을 선양하고 종책 홍보 및 포교지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한명우 기자

국보 4점 등 유물 27점 송성문 씨 박물관에 기증



<성문종합영어>의 저자 송성문(72 · 사진)씨가 6일 소장하고 있던 국보 4점과 보물 22점 등 모두 27점의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증한 문화재는 고려 현종대의 초조대장경인 <초조본현양성교론>(국보 271호) 등 목판본 불경을 포함한 고인쇄 자료 20건과 사경(寫經) 3건, 세종대왕 왕지 1건(1425) 등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고침 본지 411호 4면 현대불교 신행수기 시상식 기사 중 '총화종 총무원장 현오스님'은 '총화종 총무부장 현오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2대 신수회장 이남숙 씨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는 신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월 28일 현대불교신문의 수기공모 당선자로 구성된 신수회의 제2대 회장에 선임된 이남숙 씨의 포부다. 제1회 신행수기 공모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이 씨는 현재 조계종 포교사로 활동 중이다. 이 씨는 올해 회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부회장단을 3명으로 늘릴 생각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나란다 삼장불학원 특강 성료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2월 21, 22일 서울 청량리 한국불교 금강선원 법당에서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주지) 초청 선요특강을 실시했다. 80여 삼장불학원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강에서 각성 스님은 "이번 불교공부를 계기로 수행에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사미 사집 등 4개 과정 2년 4학기제 전문강원 교육을 실시 중이다.(02)969-2410

제5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5th Academic Award of Jingak Order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 및 밀교연구를 촉진시키고 진각종 교학 확립의 일환으로 매년 '진각논문대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I. 진각논문대상공모

▶ **주 제**
불교 일반 3편, 밀교 일반 3편, 진각종 교학 2편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전형방법** : 인적사항 1부 및 논문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전형일정** :
접 수 마 감 – 2003년 4월 15일
당선작 발표 – 2003년 5월 6일 발표 예정
당선논문발표 – 2003년 11월 21일 예정

▶ **당선작 및 상금** : 각 편당 200만원

II. 연구소모임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 및 밀교 관련 대학원생(석 · 박사과정)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소모임을 공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소모임** : 종단 외부 2팀, 종단 내부 2팀

▶ **지원 자격** : 대학원생 5 ~ 6명 이상

▶ **지원 내용** : 종단 외부 월 30만원
종단 내부 월 20만원(1년간 지원 예정)

▶ **전형 방법** : 구성원 인적사항 1부 및 연구소모임 지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전형 일정** : 접수마감 2003년 3월 28일
발 표 2003년 4월 15일

▶ **심사 기준** : ① 주제 또는 텍스트
② 모임의 지속성
③ 구성원의 자질 및 지속성 여부

▶ **접 수 처**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 2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 홈페이지 : www.jingak.or.kr / e-mail : manas7@hanmail.net
TEL : 02)913-0133 ~ 4 / FAX : 02)913-0135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다른 논문 응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최 : 대 한 불 교 진 각 종

제2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발표신청안내

제2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가 **2004년 5월 1일~2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한국불교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본 대회에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표하실 분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발표신청 기간** : 2003년 3월 1일(토) ~ 4월 30일(수)
● **발 표 분 야** : 불교학 관련 전 분야
● **신 청 방 법** :
1. 홈페이지(www.skb.or.kr)에서 직접 신청
2. 우편접수 (우.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교수회관 125호
● **신 청 안 내** : 홈페이지 www.skb.or.kr
전자우편 skbinfo@hanmail.net
전 화 02) 2260-3128, 016-839-3607, 018-420-0996

※ 발표신청시는 우선 논문제목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표문 제출은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회 홈페이지(**www.skb.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일

제 2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장 종범 합장

※ **후원계좌** : 우체국 012328-01-008416(결집대회) / 조흥은행 371-04-517677(결집대회)



틱낫한 스님(사진)은 18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식 방한일정에 들어간다.

스님은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생명, 환경, 평화를 위하여'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19일 오후 6시 포포인트 쉐라톤 호텔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종교적 성찰' 평화포럼 강연, 20일 오전 7시 30분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Soul&Business'를 주제로 조찬강연을 한다.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광주 한국노동교육원에서 '틱낫한 스님과 함께하는 3일간의 수행', 서울(20일), 부산(25일), 대구(26일), 광주(27일)에서 공개강연을 연다. 또 3월 22일 '전국민 평화염원 걷기 명상'도 준비중이다. 이 중 기업인을 위한 조찬강연은 20만원+기부금, 3일간의 수행은 30만원, 동국대 강연은 5만원의 회비를 내야한다. 02)326-1140 남동우 기자

22일 전국민 평화염원 걷기 명상
28일 새만금 갯벌 생명 살리기

틱닛한스님 18일 방한…일정 확정

■틱낫한 스님 한국방문 주요 일정

날짜(요일)	내 용	시 간	장 소
3월 18일(화)	방한공식 기자회견	오전 10:00~12:00	프레스센터 19층
	심포지엄(주제:생명, 환경, 평화를 위하여)	오후 3:00~5:00	국회의원회관대강당 1층 대회의실
3월 19일(수)	평화포럼(주제:전쟁과 평화에 대한 종교적 성찰)	오후 6:00~9:00	포포인트 쉐라톤 호텔
3월 20일(목)	기업인을 위한 조찬 강연	오전 07:30~10:30	그랜드힐튼호텔
	서울강연(화)	오후 3:00~5:00	코엑스 컨벤션홀 12번
3월 22일(토)	전국민 평화염원 걷기 명상	오후 2:00~5:00	
3월23일(일)	순천 송광사 방문/방장스님과 다담		
3월 24일(월)	순천 송광사 강원 특강		
	부산 범어사 행자교육원 특강		
3월 25일(화)	부산강연(나누는 삶, 함께하는 행복)	오후 7:00~9:00	부산KBS홀
3월 26일(수)	대구강연(고통을 건너 희망 만들기)	오후 3:00~5:00	경북대학교 대강당
3월 27일(목)	실상사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방문		
	귀농학교, 한생명, 작은학교, 화림원		
	광주강연(내 안의 평화 그리고 화해)	오후 7:00~9:00	5·18공원내 무각사
3월 28일(금)	새만금 생명살리기를 위한 걷기 명상		
	틱낫한 스님과 함께하는 3일간의 수행 1/3회		한국노동교육원(경기 광주)
3월 29일(토)	틱낫한 스님과 함께하는 3일간의 수행 2/3회		
3월 30일(일)	틱낫한 스님과 함께하는 3일간의 수행 3/3회		
3월 31일(월)	중앙승가대학 강연	오전 10:00~12:00	중앙승가대
	동국대 강연 1/3회	오후 7:30~9:30	동국대
4월 1일(화)	동국대 강연 2/3회	오후 7:30~9:30	동국대
4월 2일(수)	동국대 강연 3/3회	오후 7:30~9:30	동국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공되면 4만ha '죽음의 갯벌'로 변해"

한·독 심포지엄 열려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은 원시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무참한 파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한·독 학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강행발표, 그 이후' 첫날 심포지엄에서 독일갯벌국립공원보호청 켈러만 박사는 새만금 문제에 접근할 때 △경제발전에 대한 요구와 자연보호의 필요성 사이에 실질적인 균형을 이룰 것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생가능한 자원들을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할 것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경관과 자원이용이 가져다주는 장기적 이익에 대해 우위를 부여할 것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철환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는 "방조제를 완전히 막으면 4만ha의 새만금은 죽음의 생태계로 변한다"면서 "지금 진행되는 방조제 축조를 중단하고 바닷물을 드나들게 해 갯벌을 살리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5일 새만금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진 후, 6일 부안성당에서 마무리 심포지엄을 열었다.

남동우 기자

스님과 자연의 아름다운 동거

고무신 속에서 비 피하는 개구리
대웅전 처마밑 올빼미 영상에

KBS, '봉암사의 숲' 방영

봉암사 대웅전 처마 밑에서 더위를 피하는 올빼미와 스님의 고무신 속에서 비를 피하는 두꺼비.

성철 스님 등이 모여 현 조계종의 승풍을 세운 '봉암결사'로 유명한 봉암사. 1982년 이래 초파일에만 산문을 개방하고 있는 봉암사가 모처럼 문을 열었다.

5일 방영된 KBS 1TV '자연다큐멘터리-봉암사의 숲'은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봉암사 숲의 아름다움을 서정적 영상으로 담아냈다. 까막딱따구리와 올빼미, 큰소쩍새 등의 야생동물들이 봉암사 스님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1년간의 촬영을 통해 화면에 담은 것이다.

이렇듯 봉암사 숲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스님들의 생명존중사상 덕분이었다. 스님들은 개미가 다니는 길목에 막대기를 놓아 개미가 마음놓고 이동할 수 있게 했고, 추운 겨울엔 야생동물에게 헌식을 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원앙의 에그덤핑(Egg Dumping, 집단산란) 모습이 국내 최초로 촬영돼 눈길을 끌었다.

제작을 맡은 신동만 프로듀서(38)는 "봉암사 숲의 자연생태는 원시 그 자체로 국내 최고의 야생동물 서식처"라며 "적자생존 논리가 아닌 생명사상과 느림의 미학을 바탕으로 자연 생태를 관찰하는 동양적 자연 다큐멘터리를 시청자들에게 선보이고 싶었다"고 제작의도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봉암사 대웅전 처마 밑에서 더위를 피하는 올빼미.

봉축열차 운행 힘들듯
장식물 화재위험 우려

올해도 봉축열차 운행이 어렵게 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로 지하철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문화열차 안팎에 설치된 장식물이 화재시 유독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열차의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열차 프로그램 중 하나인 봉축열차의 초파일 기간 운행 계획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처장은 "아직 공사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불연소재로 봉축열차를 꾸미는 등 대안을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불교 포교의 중요한 공간인 봉축열차를 올해도 운행할 수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여기가 조계사야". 봄비를 맞으며 첫 서울나들이에 나선 전남 장성 백화도량 해인사의 무학스님과 동자승들.

백화도량 동자승 9명
서울 나들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동자승 9명이 나타났다. 전남 장성 백화도량 해인사에 살고 있는 무학 스님과 동자승들이 첫 서울 나들이에 나선 것이다.

TV출연·조계사·본사 책방 여시아문 방문

그동안 KBS '인간극장' 등의 TV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알려진 탓에 동자승들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따랐다.

백화도량 식구들의 이번 나들이는 6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을 겸한 것이다. 방송이 끝나고 조금씩 흩날리는 눈비를 맞으며 남산 구경도 하고, 조계사에 들러 대웅전도 참배했다. 현대불교신문사 책방 여시아문에 들러 책도 보고 백화점 구경도 하고,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를 가진 후에야 나들이가 끝났다.

이들의 이번 나들이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천진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때 묻지 않은 그 마음'이 본래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여수령 기자

"세계종교인 평화회의 한반도서 남북함께 열자"

세계종교인들이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종교인 평화회의' 8차 회의를 한반도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무궁화홀에서 열린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조선종교인평화회의(CRP) 공동회의에서 김성곤 ACRP 사무총장은 "5년마다 열리는 세계종교인평화회의 8차 총회를 남북이 공동으로 주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북측 장재언 CRP 회장은 "돌아가 검토해 보겠다"며 ACRP의 구체적 사업과 일정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조직개편

연구부 신설, 부장겸 사무국장 허남결 박사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이 조직 개편을 단행, 학술·연구 기능 강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최근 동국대 김상현 교수(사학과)를 부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연구부장직을 신설해 허남결 박사(동국대 강사)를 연구부장 겸 사무국장으로 영입했다.

정병조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이번 개편으로 불교학 연구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며 "시대의 흐름을 읽고 앞서가는 불교학을 지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불교학술상인 보현상 제정으로 소장 불교학자 지원 △학술 세미나 활성화를 통한 연구 발표 기회 확대 △'불교연구' 전문학술지 편입 △한국불교 신행형태 조사 △한국의 사찰 시리즈 재·완간 및 영역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삼환양초는 4월 초파일 모든 법당에서 특별하게 쓰입니다.
15년 역사의 불교양초 제조사 삼환양초가 제안해 하는 특별한 양초

식물성 양초



① 식물성양초 원기둥 – 지름 7.4cm x 29cm
② 식물성양초 돈타레 – 지름 5.6cm x 27cm
③ 식물성양초 밀대 – 지름 4.6cm x 26cm
④ 식물성 6각초(氣) – 지름 7.5cm x 30cm
⑤ 식물성 복(福)초 – 지름 3.4cm x 24cm
⑥ 식물성 쌍대 – 지름 3.4cm x 22.5cm
⑦ 식물성 3" x 6" – 지름 7.3cm x 14.5cm
⑧ 식물성 3" – 지름 7.3cm x 10cm



① 1.8cm x 12.5cm 등초 小(1봉 20) ③ 연화 3호 ④ 바람막이 小
② 2cm x 12.5cm 등초 大(1쌍) ⑤ 바람막이 中 ⑥ 연화 2호
⑦ 컵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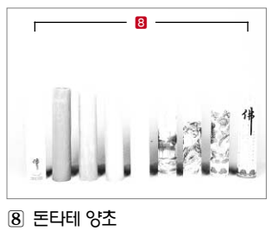
① 전사지양초(호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② 쌍용(용이마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③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④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⑥ 밀대양초
지름 4.6cm x 25cm
(백색, 핑크, 청색, 살색, 적색, 연두, 전사지-연화, 반야심경, 무지개)
⑦ 글대(쌍대)양초
지름 3.4cm x 22.5cm
백색,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⑤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⑧ 돈타테 양초
지름 5.6cm x 27cm
백색, 적색, 청색, 핑크, 노랑, 전사지, 연화, 호랑이, 용, 반야심경

삼환양초공업사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35-16 전화 : 031-766-0242 / 팩스 : 031-766-0233

"부처님 등불" 가나공예양초
기원 전기촛불 수공예 양초 (색상 : 흰색, 자주, 청색, 노랑, 빨강 외 다수)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들의 가정과 스님께 선물 및 보시용으로 최고인 기원 전기 촛불 수공예 양초를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면을 통하여 처음 인사드리며, 특히 이번 '부처님 등불'을 구입하시는 스님과 불자님께는 본사에서 직접 제작한 산동이 벽시계를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표 박천호 합장

부처님 등불' 특징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크기 : 지름 9cm × 높이 39cm>
색상별 제품 구입 가능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옥색) 소원성취(피랑) 부부화합(옥색) 신혼기원(자주)

사은품 산동이 벽시계
별도 판매시 15,000원



물에 뜨는 아로마 향기 양초 판매합니다



연 꽃 도라지 국 화 별

문의 전화 및 취급점 상담 | 서울시 도봉구 쌍문 2동 81-119번지
사무실 02)996-8830 / 공장 02)997-2801 가나 공예양초
전국 불교용품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종단 홈페이지 관리 부실

자료 업데이트 월1~2회, 오히려 이미지 훼손

게시판엔 음란사이트 홍보메일 그대로

조계종·천태종·진각종은 알찬 운영

'열린 종단'을 지향하며 종단의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불교 종단들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관리부실로 종단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종단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총화종 등 1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자료와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는 종단은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등 3곳에 불과하다.

태고종과 관음종 총지종 총화종 등의 홈페이지는 자료 또는 소식을 업데이트 하는 기간이 월 1~2회 정도에 불과해 이용자들이 거의 없는 상태다. 심지어 게시판에는 음란성 홍보글이 다수 올라 있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사는 김모씨(33)는 "집 주변 사찰에 나가기 위해 소속 종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음란성 사이트 홍보문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고 갈 마음이 사라졌다"며 "홈페이지가 없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종단 홍보와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개통된 홈페이지가 오히려 종단은 물론 소속 사찰의 이미지까지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할 전담 관리인력 배치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리하지 못할 형편이라면 차라리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용자들의 접속이 많은 곳 가운데 하나인 조계종 총무원 홈페이지는 종단 소식과 불교계 소식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 언론에 게재된 기사를 모아 이용자들에게 발송하는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천태종과 진각종도 종단 소식과 불교계 소식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이들 종단은 홈페이지 운영을 전담하는 전산실을 따로 두고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세세한 종단소식까지도 공개하는 '열린 종단'을 추구하고 있는 점도 공통점이다.

천태종과 진각종은 홈페이지를 통해 종단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두 종단은 홈페이지 이용자들로부터 "이런 종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불교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정기적으로 들어온다" 등의 호평을 얻고 있다.

이처럼 홈페이지 관리에 따라 종단들의 희비가 교차하면서 각 종단들의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김병주 조계종 전산과장은 "효과적인 홈페이지 운용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 배치와 역할 분담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투자, 그리고 인터넷 활용 마인드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동방대학원대학 설립준비 막바지

태고종, 총무원 청사 4월부터 교사로 개조

태고종은 학교법인 동방대학교와 공동으로 동방대학원대학을 개교한다고 4일 발표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4월부터 서울 성북동 현 총무원 청사를 교사(校舍)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고종은 현 총무원 청사(시가 30억 상당)와 서울 회기동 지족암의 종교용지(506㎡)와 건물(145.48㎡)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며, 12일 열리는 임시중앙종회에서 이를 승인 받을 예정이다.

동방대학원대학은 불교문화학과, 서화예술학과, 민속문화학과 등 3개 과와 불교, 범패, 불교미술 등 10개 세부전공으로 2년의 석사과정으로 운영된다. 종립 동방불교대학은 동방대학원대학의 부속기관으로 편입, 정규 불교대학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태고종은 운산스님과 원봉스님, 혜공스님이 학교법인 이사, 부원장 자월스님이 감사로 취임했으며, 운산스님을 법인 이사장, 김서봉 이사장을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도록 합의한 상태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동방대학원대학을 불교학 연구정립과 민족 고유의 불교문화예술을 계승하는 특성있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아 찾아드립니다" 천태종, 사무실 열어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은 1일 서울 관문사 2층 복지재단 내에 미아찾아주기운동본부 사무실을 개소했다. 불교계 처음으로 미아찾아주기 운동에 나선 천태종 복지재단은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미아찾아주기운동본부는 현재 장기미아 27명의 신상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사찰에 배부, 신고를 받고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이 미아게시판을 둘러보고 있다. 미아찾아주기 전화 (02)579-5518

밀교·진각 논문공모

진각종, 내달 15일까지

진각종 교육원은 제5회 진각논문대상 공모요강을 발표하고 4월 15일까지 논문계획서를 모집한다. 진각논문대상은 불교학과 밀교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고 진각종 교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연구 장려사업이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불교일반, 밀교, 진각종 교학과 관련된 논문계획서와 인적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논문계획서는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6일 분야별 당선작을 선정, 발표하게 되며 당선자에게는 각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된 논문계획서에 따라 집필된 논문은 11월 발표회를 갖게 되며 '회당학보'에도 게재된다. (02)913-0133~4

게시판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장 겸 불교대학장 이법산 △불교문화연구원장(겸직) 서윤길 △박물관장 장충식 △보건소장 이명종 △실험농장장 김용욱 △연습림관리소장 윤화영 △역경원장 김성구 △비구니수행원장 강문선 △동대신문사 편집인 겸 주간 이상영 △동대신문사 부주간 장시기 △사회교육원장 곽준규 △언어연구교육원장 봉일원 △산학기술협력센터소장 겸 창업지원단장 백수현 △학생상담센터소장 권동희 △정보관리실장 이호용 △여학생실장 손재현 △교무처 교양교육운영실장 고진호 △연구처 연구개발팀장 안형택 △연구처 국제교류실장 황훈성 △대학원 교학부장 박윤희 △영상정보통신대학원 교학부장 최병석 △불교대학원 교학부장 박경준 △행정대학원 교학부장 이성량 △경영대학원 교학부장 정창근 △산업기술환경대학원 교학부장 박상진 △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장 곽노성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장 김길웅 △언어연구교육원장 신송윤 △금강생활관장 오영석 △동대신문사 부주간 구본철 △교육방송국장 김신재 △사회문화교육원장 김용택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 이연환 △학생상담센터소장 최원상 △정보관리실장 조태경 △여학생실장 이인자 △교무처 교양교육운영실장 장도규 △교무처 연구교류실장 김흥식

▲동국대 의료원 △동국의료원장(겸직) 홍기삼

구인 ▲영주장애인복지관은 언어치료사와 주간보호소담당자 1명씩을 모집하고 있다. 마감은 13일. (054)633-6415

▲제천장애인복지관은 15일까지 사회복지사를 모집하고 있다. 1종 보통면허 소지자. (043)652-0900

▲부산 두송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1명을 모집하고 있다. 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중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자. (051)265-9471

알림 ▲맑고향기룹계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길상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41-4696~7

강좌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는 17일 2급 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과정 강좌를 개강한다. 강좌는 교리, 댄스, 음악 등 6분야. (02)738-7860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종단소식

조계종

한국어학습 프로그램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동국대 언어연구원에서 '외국인 승려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조계종에 소속된 외국인 스님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년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동국대 언어연구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02)732-4923~4

태고종

12일 임시중앙종회 개최

태고종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동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87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한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운곡)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인수 및 공동경영안, 각급 기관장 인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천태종

울산 정광사 34돌 법회



울산 정광사(주지 도정)는 2일 지관당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감사원장 정산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3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법회에서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새불교운동을 벌여 울산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광사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불자들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 봉천동 명락사(주지 화산)는 16일 오후 2시30분 4층 법당에서 창립 2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진각종

산하기관 감사 일정 확정

진각종은 2월 21일 제214회 원의회를 열고 제37기 회당장학생으로 김희원(서울대 4년) 씨 등 총 50명을 선발하는 한편, 심인당 및 종립유치원 사무지도와 종앙종무기관 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사무지도는 12일 부산교구를 시작으로 13일 경주교구, 14일 포항교구, 17~20일 대구교구, 21일 대전교구, 25일 서울교구 순으로 진행된다. 통리원, 교육원 등 중앙종무기관 사무감사는 26~28일 실시할 예정이다.

밀교 연구소모임 지원

진각종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불교 및 밀교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소모임을 공모한다. 종단 외부 2팀과 종단 내부 2팀을 각각 선발하는 연구소모임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3월 28일까지 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로 접수해야 한다. 종단 외부 2팀에게는 각각 매월 30만원, 종단 내부 2팀에게는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02)913-0133~4

총화종

중앙종회, 올 사업 확정

총화종은 2월 27일 남양주 총무원 회의실에서 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종회의원 21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한 이날 종회에서는 5월 보살계 산림, 8월 백두산 성지순례, 10월 법계고시 등을 올해 사업으로 확정했다.

원융종

창종 23주년 기념법회

원융종은 창종 23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구로구 총무원 회의실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일공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법륜스님 등 종단 간부 및 중진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원종

12일 종회…예산안등 심의

본원종 중앙종회(의장 대운)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평창동 총무원에서 2003년 상반기 정기 중앙종회를 개최한다. 이날 종회에서는 2002년도 결산안, 2003년도 예산안, 2003년 사업계획안을 다룰 예정이다.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합시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 인도돕기)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buddhanews.com을 클릭하세요.



◇6일 대전 건양대병원 소아과병동에서 동학사 승가대학 명우(왼쪽) · 지업 스님이 어린이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동학사 스님들은 불교에 관심을 갖는 환자들에게는 염주나 불서를 선물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한다.

"우리가 병실 문 열면 고통의 문 닫히죠"

동학사 학인스님들 건양대 병원서 봉사

병실문잡이 낯설어 처음엔 망설여
따뜻한 보살핌…정신적 귀의처로
심광사 등 7사찰 신도 매일 봉사



◇건양대병원에는 심광사, 대진정사, 고촉사 등 7개 사찰 자원봉사팀이 요일별로 안내 · 세탁 봉사 등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금강반야원 봉사팀의 바느질 봉사.

"안녕, 꼬맹아! 스님 첨 보니?"

"응, 스님은 왜 머리카락이 없어?"

6일 대전 건양대학병원 5층 소아과병동. 매주 목요일은 동학사 승가대학(학장 일초 스님) 학인 스님들이 건양대병원을 찾는 날. 14명의 학인 스님들이 2인1조로 환자 위문봉사에 나선 가운데 지업, 명우 스님이 네 살바기 신대수 어린이와 인사를 나눈다.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처럼 스스럼이 없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코를 다쳐 입원했다는 대수는 회색 승복을 입은 까까머리 누나들의 뽀얀 얼굴이 마냥 신기한지 뚫어지게 쳐다본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한 환자 위문봉사는 일초 스님이 "경전을 통해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나가 실천해 보라"는 권유에 따라 사교과(3학년), 대교과(4학년) 학인 중심으로 시작됐다.

병실에서 특별히 설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아픔을 화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쾌유를 비는 자비심이 전해지면서 전법은 저절로 된다. 간혹 불자 환자들은 반가운 얼굴로 스님들을 대하는데, 이들에게는 염주나 부담없는 불교 책을 전달해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한다.

하지만 산중에서 공부하던 스님들이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봉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처럼 병원에서 전도를 해 본 일도 없고, 간병봉사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8층 혈액종양병동에서 막 환자 위문을 마친 자민 스님은 처음 병실 문을 여는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병실 문의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일이 너무나 생소해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니 문득 용기가 났지요. 막상 그들의 애처로운 얼굴을 보니 저절로 말문이 트이더군요."

학인들이 병실 문을 여는 순간은 '문없는 문'(無門)을 열어제끼는 개심(開心)의 순간과도 같았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라는 생각'(我相)을 쳐부수고 병실 문의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분별심은 사라지고 환자들의 아픔과 하나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환희심이 다가왔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몸짓이었다. 처음엔 서먹해 하던 환자들도 이제는 친근하게 대해주고, 불교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환자들은 '스님 두 분이 찾아오는 꿈을 꾸었다'고 할 정도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겐 정신적 귀의처가 되고 있었다.

동학사 학인들의 이러한 '보살되는 공부'는 건양대병원의 배려에 힘입은 바 크다. 신심깊은 불자인 건양대 박희수(76) 총장과 부인 김영이(70) 보살이 병원내에 법당 건양사(지도법사 동화 스님)를 마련해 주고 불자들의 자원봉사 문호를 터주었기 때문이다. 2000년 2월 개원 당시, 개신교인들이 주도했던 자원봉사가 2001년 5월 법당 개원이후부터 불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신행현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병원에 법당이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열 군데 남짓이지만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곳은 이만한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병원 현관에서 안내를 하거나 세탁실, 주공급실에서 빨래와 바느질, 설거지를 하는 등 궂은 일들을 심광사, 대진정사, 고촉사, 죽림정사, 모듬공양회, 금강반야원, 광혜사 등 7개 사찰 자원봉사팀이 요일별로 나누어 맡는다.

이날 병원 법당에서 약사여래불에게 인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한 후 다시 법당에 돌아온 학인들은 "신도들의 보살행을 보면 늘 발심이 된다"고 겸손해 한다. 하지만 동학사 학인들의 보현행원은 건양대병원에만 머물지 않았을뿐더러 이미 상당한 연륜을 쌓고 있었다.

98년 3월부터 동학사가 위탁운영하는 공주 금강사회복지관에서 이른바 '정서 서비스'를 실시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매월 한 번꼴로 학인들이 2인1조로 무의탁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 말벗이 되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스님들은 말벗뿐만 아니라 청소, 빨래, 목욕 등 가사일도 척척 해놓고 간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는 사회복지시설인 명주원을 방문, 불교 동화와 찬불가도 가르쳐주고 있는 학인들은 화성 자제공덕회, 강화도 무애원, 서울 '이웃을 돕는 사람들', 공주 치료감호소, 매화사회복지관 등에는 불교 명절 때마다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봉사활동뿐 아니다. 대교반 스님들은 매주 수요일 대전 교도소 경비교도대를 방문해 '생활 법문'을 통한 군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대전=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회봉사로 불교공부 회향

인터뷰 김희수 건양대학교 총장



"동학사 스님들과 건양대병원 불자 자원봉사단의 활동이 불교 자원봉사의 모범이 되길 기원합니다."

논산 고촉사 창건주인 배봉순(대자심, 지난해 96세로 입적) 보살의 사위인 김희수(76) 건양대 총장. 환자들의 정신적 귀의처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병원 법당 '건양사'를 만든 김 총장은 "평생 약사여래 기도를 하신 장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의료사업을 하고 있다"며 불자들의 병원 자원봉사에 고마움을 표했다.

13년 전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건양중, 고등학교와 건양대학교를 설립하고 2000년 건양대병원을 개원한 김 총장은 "사회 봉사가 바로 불교 공부의 사회적 회향"이라면서 불교계의 의료복지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학교에서 꽁초 등 쓰레기를 줍다보니 '꽁초 할아버지'로 불리우는 김 총장은 세세하게 환자들과 학생들의 불편한 점을 살피는 다정다감한 불자다. 언제나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주 금요일 직접 안과 진료도 한다. 장모님의 기도덕택에 집안에서 10명의 의사가 나왔다는 김 총장은 부인 김영이(70) 보살과 함께 수시로 고촉사를 찾아 약사여래의 중생구제 서원을 가슴에 되새기고 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불교, 이시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글 싣는 순서
㊤ 조계종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
㊦ 불교, 이시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역설적이게도 조계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승가다운 승가'의 위상을 확립하는 일이다. 31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법장 스님도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로 소감을 피력했다.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종단 신뢰의 출발은 승가가 본분사에 충실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동시대 중생들의 고통을 위무할 수 있어야 하고, 휴식과 정신적 여백을 제공함은 물론 문화(재) 분야에서도 전통 가치의 현대적 구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승불교요, 시대가 요청하는 불교의 사명이기도 하다. 조계종이 나아가야 할 길은 이렇게 분명하다.

절 누구나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승가위상 확립 국민사표로 거듭나야

NGO·복지 등 적극적 사회참여 시대적 소명
근기에 맞는 수행법 개발·장소 제공 바람직

템플스테이 내국인에 상시 실시 필요



◇대흥사 '새벽 숲길'에 참가한 일반인들이 스님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 열린 청량사 산사음악회.

●사회 리더 그룹으로서의 승가

98년 종단사태를 겪고 난 조계종은 종단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99년 '종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수행과 포교 중심의 승가상 구현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 불교시민사회활동 조직 육성, 지역불교문화 활동 강화, 1사찰 1복지시설 설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4년여가 지난 지금 조계종의 모습은 그때와 비교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법장스님이 새 총무원장이 되면서 시대변화에 걸맞는 조계종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됐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조계종은 5일 파격에 가까운 총무원 집행부 인선으로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권위주의나 문중 및 계파의 갈등 청산과 함께 오랜 관행을 깬 새로운 시도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조계종이 국민의 사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사표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

우선 수행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상당수 교계 관계자들은 "4년 기본교육 후 구족계를 받는 현 제도를 적어도 7~8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사찰재정의 투명화를 이루는 것도 필수적이다. 총무원장 선거법 등 각종 선거제도는 내부갈등을 낳을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또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 징수제도도 국민의 입장에서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뢰받는 종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찰 재정공개를 통해 사찰운영도 투명하게 해야 하며, 문중과 계파간의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

●국민들과 고통 분담

현대는 시민의 시대다. 종교의 사회 참여는 필연적이며, 사회는 이를 요구하고 있다. NGO 및 복지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불교의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현재 불교 NGO 및 복지는 과거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환경이나 복지관 위주의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다. 분야를 넓히지 않고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먼저 종단 차원에서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NGO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현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불교 NGO 단체는 모두 50여 곳으로 다른 종교단체에 비해 수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사이버 상의 NGO단체는 불교의 경우 개신교나 가톨릭에 비해 3~8배나 적다. 불교 복지가 다른 종교단체에 비해 최소 5~8년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NGO와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또한 개별 사찰도 곧 NGO 이자 복지단체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인식전환과 함께 종단 차원의 종합 계획안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갖가지 불사도 지양돼야 한다. 꼭 필요한 불사라면 초대형 불사라도 해야 하겠지만, 불사를 위한 불사나 '기와 불사'란 이름으로 불리는 일상화된 불사는 일반 참배객뿐 아니라 신도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실제로 끝없이 불사가 이어지는 서울의 모 사찰은 다수의 신도가 등을 돌렸다고 한다.

●휴식과 정신적 여백 제공

엄마 품 같은 아늑함. 사찰은 언제나 누구든 기댈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휴식공간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수행 및 신행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불교문화도 활성화돼야 한다.

최근 들어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근기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 조계종이 진행하고 있는 종단 수행체계 정립과 함께 국민들을 위한 수행법을 개발하고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사찰 수련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하다. 본사급 사찰 대부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열고 있지만 지원자의 30%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월드컵 기간 중 실시한 템플스테이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큰 관심을 끈만큼 이를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불교문화 활동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는 대부분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향이 짙고 지역과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사찰들이 소규모 전시회나 음악회, 문화인사 초청 강연회 등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해 누구나 절 마당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절은 신앙처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휴식처로 거듭나야 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남방불교 시각 간화선 비판 잘못

대성스님, '각묵스님' 간화선 '힌두화론'에 반론

"한국 간화선이 힌두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있었던 '선우논강' 주최의 수행법 논의 석상에서 각묵 스님이 이렇게 선언했다. 스님은 그 외에도 한국의 간화선 수행이 '힘의 논리'나 '화두만 타파하면 된다는 단세포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 간화선이 무아(無我)를 잊어버리고 외도인 힌두교의 진아를 추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무아'와 '진아' 개념에 대한 스님의 인식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므로, 이 두 개념의 본질과 관련하여 스님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아'란 '나'가 없다는 말인데, 여기서 '나'란 무엇을 말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우리가 보통 '나'라고 알고 있는 하나의 개인적 존재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오온(五蘊)의 화합'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개아'를 넘어선 어떤 궁극적인 나, 혹은 참나(진아)가 존재하는가? 이것은 부처님이 직접 대답하기를 회피한 문제의 범주에 속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있다. 하나는 모든 '나' 개념을 철저히 부정하는 남방불교의 교의이고, 다른 하나는 '에고(ego) 없음' 혹은 '무아'와 함께 '진아' 개념도 인정하는 힌두교나 대승불교의 교의이다.

진아·불성, 해탈 자체를 말하는 것
위빠사나 등 모두 훌륭한 수행법

전자의 견해는 특히 남방 불교권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남방불교의 학승들이나 그 영향을 받은 이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승불교(혹은 선불교)는 후자의 견해에 가깝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많은 조사, 선사들이 진아 개념과 다를 바 없는 '불성, 자성, 본래면목 등을 이야기해 왔고, 경전적 근거도 있기 때문이다. 불성이나 여래장 등을 설하는 대승경전이 다수 존재하며, 특히 <열반경>에서는 진아 개념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다. 40권본 <열반경>의 제5권은 해탈의 여러 측면을 명쾌하게 서술한 경전인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또한 해탈은 모든 유위법(有爲法)을 끊고 모든 무루(無漏)의 선한 법을 출생시키며, 자아[我]와 자아 없음[無我]과 자아 아님[非我]과 무아 아님[非無我]의 모든 길을 단절하고 막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지 취착(取着)만을 끊을 뿐이지 진정한 자아를 보는 것을 단절하는 것은 아니다. 자아를 본다는 것은 불성(佛性)을 이름한 것이니, 불성은 참된 해탈이며 참된 해탈이 곧 여래이다(한글대장경 <대반열반경> 제1권, 119쪽)."

여기서 '진정한 자아'라고 한 것은 바로 각묵 스님이 공격하는 '진아'를 말한다. 다만 이것은 단순한 무아 개념의 상대어가 아니라, 유아와 무아, 비아와 비무아를 모두 넘어선 개념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실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분별할 수도 없는 궁극적인 그 무엇, 즉 해탈 혹은 열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상태는 영원한 깨달음의 상태이며, 따라서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불성, 본래면목, 한 물건 등으로 표현했고,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진아라고 불렀다. 이것이 힌두교의 '진아' 개념에 대한 본질적인, 그리고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따라서 우리는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을 응용하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진아는 곧 진아가 아니니, 그 이름이 진아일 뿐"이라고.

요컨대 진아, 불성 등의 용어는 해탈의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어떤 영원불멸한 실체의 있고 없음 그 자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용어도 언어를 넘어선 그 궁극의 상태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무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무아'나 '진아'라는 말은 그 반대 개념에 대한 '취착', 즉 상대적 분별을 끊기 위해서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각묵 스님이 주장하는 '무아'는 이러한 상대적 차원을 과연 넘어서 있는가? 만일 그것이 상대적 범주를 넘어서 있다면 그것은 '진아'와 전적으로 동일한 개념일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무아는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개념에 불과하여 깨달음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의 초기경전들이 '무아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전은 기본적으로 개념과 이론의 결집체이며 언어를 넘어선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어느 한 경전도 절대적 진리를 완벽하게 담고 있지 않다. 다양한 수준의 경전들이 존재하며, 그것을 선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다양하다.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듣는 사람들의 필요와 수준에 맞추어진 방편설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 자신의 '무아' 개념이 남방 스님들이나 각묵 스님이 관념하는 '무아' 개념과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언어 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와 훨씬 깊은 수준을 포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방 경전들에서 말하는 것이 어찌 '무아설'의 전부라 하겠는가? 오히려 <열반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부처님의 원뜻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진아 개념을 가지고 힌두교와 불교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듯한 스님의 논리는 일견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듯하지만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대승불교의 진아 개념을 무시한 채 우리의 근본 성품을 무아 일변도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시야가 좁고, 실천적 관점에서 보자면 수행자들의 다양한 근기와 취향을 일방적으로 제약하여 수행 과정 전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단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전통에 서 있는 간화선을 논하려면 대승경전과 조사, 선사들의 어록에 바탕해야 하며, 남방불교적 시각에서 간화선을 비판하려 드는 것은 출발이 잘못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수행법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이다. 위빠사나든 간화선이든 '나는 누구인가?'든 모두 그 나름대로 훌륭한 수행법이며, 어느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글쓴이 대성 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에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 〈감산자전〉을 우리말로 번역했다.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생식마을® GO EUL BIT SENG SIK MA EUL

건강되찾기 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 분당 차병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 남원 호성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을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재배한 깨끗한 재료를 이용해 고을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생산합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을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분당 차한방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을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1998년 11월 4일

생식의 1석 6조
1.체질개선 2.건강증진 3.피로회복 (생식요법)
4.완전한 다이어트 5.완전식사 6.식습관 개선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1개월분(40g × 60포)

고을빛 생식은 단식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생식 완료 현미, 메주콩, 적두, 약콩, 서리태, 율무, 보리, 차조, 수수, 옥수수, 메밀, 밀, 당근, 우엉, 신선초, 케일, 컴프리, 감잎, 뽕잎, 감, 호박,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연근,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호박엑기스 등 32종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쾌변을 도와줍니다.

◆ 신선한 야채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배아, 염록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병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로 좋습니다.

"(주)고을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공무원 불자연합회 범종단 신행단체로…

전국 단위기관불자회 총무단회의서 확정



◇2월 22~23일 이틀간 충주 한전연수원 대강당에서 참가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단위기관불자회 80여명의 총무들이 2003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공불련 활성화를 다짐했다.

연내 사단법인 설립, 6개 권역별 조직운영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특정 종단색을 벗고, 범종단 차원 신행단체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연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조직 운영도 권역별 중심 체제로 개편한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는 2월 22~23일 충주 한전 수안보 연수원에서 전국 단위 기관불자회 첫 총무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특히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간 공불련이 조계종단 소속의 신행단체라는 이미지가 짙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단체 성격을 범종단 차원의 공무원 불자연합체로 확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는 전국의 단위기관불자회가 제각기 다른 종단 사찰을 원찰로 삼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공불련은 사단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제2기 회장단과 내부 조율을 마치고,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조직 운영도 권역별 중심 체제로 옮겨진다. 공불련 산하 지회가 서울 · 경기권을 비롯, 부산 · 경남권, 대구 · 경북권, 대전 · 충청권, 광주 · 전라권, 강원권 등 6개 권역별로 개편된다. 권역별 조직 개편은 산하 지회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교류 등 신행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권역별 총무단을 구성하며, 전국 총무단 모임도 정례화 한다. 임원지도자 수련회 방식도 바뀐다. 단순한 사업 일정 조율 단계에서 모범불자회 성공사례 발표 등과 같은 일선 현장의 포교노하우를 교환하는 자리로 전환된다.

'사회봉사의 날'도 제정된다. 매년 10월 말경 전국의 205개 단위기관불자회가 일제히 인근 지역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펼친다. 공불련의 '사회봉사의 날' 제정은 산발적으로 진행돼온 지역별 단위기관불자회의 봉사활동을 일정 기간에 집중, 대사회적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공불련은 이밖에 불자회별 지역 사정과 대규모 인원 참석 등을 고려, 10월 4~5일 속리산 법주사 또는 김천 직지사에서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키로 하는 한편,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회원 수첩제작 등도 결의했다.

한편 당초 공무원 불자 특별반을 구성, 지역 불교대학에 위탁교육을 골자로 한 지역별 공무원불교대학 설립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안홍부 사무국장은 "이번 총무단 회의는 지난 2001년 10월 연합회 창립 후 처음 있는 일로, 불자회 실무자인 총무들이 한데 모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사업 추진 핵심이 총무에게 있는 만큼 실질적인 힘을 총무단에게 실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 수안보= 김철우 기자

금천구청불자회 17일 발족

준비위장 한경헌 씨, 회원 45명 확보

서울 금천구청이 이달 17일에 불자회를 창립한다.

금천구청 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는 지난달 27일 구청 식당에서 창립발기인 모임을 갖고, 이달 초순경에 창립법회를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6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이날 모임에서는 창립준비위원장에 한경헌 씨를 선출하는 등 창립을 위한 본격적인 체제를 갖췄다. 창립준비위는 4개월 전부터 회원모집에 들어가 현재 45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창립준비위는 이달 초까지 초대 지도법사를 위촉하는 대로 곧바로 정기법회, 성지순례, 복지시설 후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 특히 관내 호압사 등 13개 전통사찰을 탐방하는 순회 법회를 봉행, 지역 불교문화의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불자회 창립을 주도한 한경헌 준비위원장(세무1과장 · 54)은 "무엇보다도 신규 회원 확대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구청 내 자체법당도 마련, 지속적인 신행활동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언론사 불자련 첫 합동수계법회

22~23일 수원 용주사서

언론사불자연합회가 첫 합동수계법회를 연다.

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김진평, 이하 언불련)는 지난달 14 · 15일 이틀간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사에서 임원 워크숍을 갖고,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수원 용주사에서 합동수계법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언불련 합동수계법회는 지난해 10월 창립법회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다.

김진평 회장은 "수계합동법회는 회원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있는 직원들이 수계를 받고 초심자로서 거듭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회원들이 직장 내 포교역군이 되고 올바른 불자의 생활에 초석을 다지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을 계사로 열릴 이번 수계법회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 등에 근무하는 불자 언론인 8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우리은행 불자회, 창립 4주년 기념법회

우리은행 불자회(회장 정진호)는 20일 서울 회현동 은행 본점 4층 회의실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회원 50여 명이 동참하는 이번 기념법회에는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법현 스님이 법문을 한다.

경산조폐창 금강회, 수계법회 봉행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정철규)는 17일 조폐창 내 자체법당 금강원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대구 보리사 주지 증악 스님을 계사로 열리는 이번 수계법회에는 20여명의 회원이 계첩을 받는다.

단체장



인오법사 초청 '명상' 법회

김진평 KBS 불교연구회장은 27일 공사 내 제1회의실에서 세검정 자성선원 인오 법사 초청, '명상'을 주제로 정기법회를 열었다.



석불회 창립 9주년 법회

이동락 대한중석초경 석불회장은 10일 대구 채정사에서 창립 9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경북포교사단 김순신 포교사로부터 법문을 들었다.



도영스님 계사로 수계법회

박재진 경찰청 불교회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법당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해인사서 수계법회

윤주화 한국은행 불자회장은 7일부터 8일까지 합천 해인사에서 종정 예경실장 원철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우리불자회는요

경북 청도군청 불자회

제등행렬 장엄물 · 산사음악회 주민 호평

불교문화재 지킴이 · 타단체와 결연 추진



◇사진은 지난해 10월 청도군청 불자회가 경북 청도군 적천사에서 주최한 '괘불친견 및 산사음악의 밤' 공연 모습.

진작 불자회가 생겨났어야 했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비구니 승가대학인 운문사를 비롯해 80여개에 달하는 사찰이 산재한 우리 고장 청도군의 불교현황을 본다면,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창립총회는 지난 2001년 8월에 해놓고, 창립법회는 이듬해 4월 운문사에서 했으니 말입니다. 늦은 만큼, 더 부지런을 떨까 합니다. 우리 불자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황소 근성'이 있으니까요.

초창기 우리 불자회는 정말 초보 불자였습니다. 불교 기초교리조차 모르는 회원들 이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절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대구 · 경북 포교사단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죠. 자신감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청도군 관내 12개 전통사찰을 순회하는 법회를 봉행했지요. 자연스럽게 지역 사찰을 이해하고, 여러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뿐이었던가요? 철야정진 기도는 물론 2001년 8월에는 강화도 전등사를, 지난해 1월에는 제주도 약천사를 찾아갔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올렸지요.

우리 불자회의 자랑거리는 단연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 때의 장엄물 출품과 산사음악회입니다. 지난 해였던가요? 경북 청도군 적천사에서 올렸던 산사음악회. 아직도 생생합니다. 괘불법회에 이어 진행됐던 음악회에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 사람들까지 5백여 명이 동참했었죠. 국악, 섹스폰 연주, 운문사 반야합창단의 공연.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놀라워했죠. 공무원 불자들이 마련한 산사음악회라며 칭찬들이 대단했답니다.

봉사활동도 왕성합니다. 지난해부터 소년소녀가장 37세대를 방문, '자비의 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공복으로, 또 불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보람도 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참된 공무원불자가 되도록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올해부터 관내 불교문화재를 공부하고 보살피는 불교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벌입니다. 다른 시도 공무원 불자회와 자매결연도 추진합니다. 특히 지역화합 차원에서 전남지역 공무원 불자회와 결연을 맺을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사음악회를 좀더 짜임새 있게 기획해, 이 지역 문화포교의 장으로 자리매김 시킬 생각입니다.

사실 어려움도 적잖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다소 행동을 제약하거든요. 또 업무에 시달리다보면 처음 냈던 발심이 옅어지곤 하지만, 61명의 회원들은 이럴 때마다 더 큰 마음을 냅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잖습니까? 부처님 말이죠. 올해는 재적사찰도 정해야 하고, 지도법사도 모셔야 됩니다. 할일이 많은 만큼, 우리 불자회는 황소 같이 밀고 나갈 겁니다.

■박동규 총무

실크로드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구법의 여정입니다. 구법의 여정에는 올바른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제 1의 불자 여행사가 되겠습니다.

중국불교4대명산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 5일 760,000원 출발일 : 4월 9일, 17일, 24일, 5월 15일
- 문수도량 오대산 5일 980,000원 출발일 : 5월9일, 16일, 23일, 30일
- 지장도량 구화산 5일 870,000원 출발일 : 4월 18일, 25일, 5월 9일, 16일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880,000원 출발일 : 4월15일, 22일

티베트 성지순례
- 티베트 수미산 순례 23일 3,790,000원 출발일 : 6월 3일
- 티베트.네팔 순례 11일 2,390,000원 출발일 : 5월 17일. 6월 3일

스리랑카 성지순례
- 6일 1,490,000원 ——출발일 : 4월16일

중국 서안.장가계
- 5일 860,000원 ——출발일: 5월 12일

캄보디아 앙코르왓.태국 성지순례
- 6일 849,000원 ——출발일 : 4월 18일, 25일

(주)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예약 및 문의 (02)720-9600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 2263-2638
구입문의 (032)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대한불교조계종 http://www.buddhism.or.kr



제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 대본산 용 주 사



◇주지 : **정 락**
◇총 무 : **성 호**
◇기 획 : **원 오** ◇교 무 : **성 무**
◇재 무 : **성 직** ◇사 회 : **응 진**

대 중 일 동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88번지
전화 :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 흥 사



◇회 주 : **설악 무산**
◇주 지 : **석 마 근**

대 중 일 동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전화 : 033)636-7044,7393 / 팩스 033)636-7556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 해 사



◇주지 : **중화 법타**
◇총 무 : **대성** ◇기 획 : **혜철** ◇재 무 : **장적**
◇포 교 : **혜해** ◇사 회 : **선광** ◇호 법 : **하종**

대 중 일 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 054)335-3318 / 팩스 : 054)335-0293

승 가 대 학 원

원 장 : 지 안

전화 : 054)336-2381 / 팩스 : 054)336-2382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 흥 사



◇조 실 : **천 운**
◇주 지 : **도 형**

대 중 일 동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전화 : 061)534-5502



법장스님의 종단운영 4대 기조

“수행과 전법중심의 종단
전 종도가 참여하는 원융살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단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불교를 만들겠습니다.”

도 선 사 주 지 혜 자 · 사 부 대 중 일 동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 선 사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264번지 종무소 : 02)993-3161-4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법회 기도

지장사 법회안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불심이 돈독하여 서로를 살려내는 인생철학을 가진 행자(女)를 구합니다.
인생상담 : 조금이나마 밝고 윤택한 삶에 보탬을 가져보자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2)981-8418
02)907-1643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천도지장도량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구인 구직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용암사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011-9782-321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보 현 정 사
02)583-1080
016-221-1080

(女) 종무원 모십니다
● PC 사용 가능
● 20대 ~40대
▷ 구파발 흥국사
02)381-7970
011-9575-7308

(女) 사무원 구함
● 일반 종무직 1명
● 영어, 컴퓨터 전공자 1명
▷ 경주 골굴사
054)744-1689
011-763-1690

속리산 선문화 명상 센터
산과 명상을 좋아하는 50~65세 사이의 여성 가정부와 도량 관리할 남자분도 구합니다
보시는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054)535-0378

수행하는 스님입니다
산골짜기 물이 흐르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토굴을 찾습니다
임대나 파실 분 연락주십시오
055)342-05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자격 : 50세 이상
충북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화 암 사
043)851-6013

산세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하실 공양주 및 함께 기도하면서 지낼 보살님, 거사님들은 연락바랍니다
▷울산광역시
052)254-5125

산사나 포교원에서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061)772-4109.5401
011-9302-1618

초하루 관음재일 천도재 · 염불스님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십시요
054)433-6315
016-811-6787

(女)사무원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운전면허 소지자 및 숙식 가능자
대한불교조계종 인천 보각사
032)522-8131

산속 조용한 암자에 스님이 필요한 곳은 연락주십시요
▷부전도 가능
011-9825-010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50~60세
경북 포항지역
054)281-1527
016-664-4359

사찰에서 사무보조할 야간대,휴학생(女)구함
▷서울 북아현동
거주가능, 보시를 후하게 드림
02)363-0425
011-306-6544

비구입니다
부전스님을 할 수 있는 사찰 연락 부탁드립니다
011-580-84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광역시
011-860-879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앞산
053)652-3219
011-576-27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완주군 위봉사
063)243-7657
063)243-6898

공양주 겸 사무원 (女) 모집합니다
▷40~50세
경기 고양시
019-211-8533

무쏘,갤로퍼,코란도,레토나 등
4륜중고승용차
보시할분찾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학서암
061-553-3953

이전 강좌
알림 정보

광 명(光明)
월 간 지
(행복 · 건강 · 번영 · 진리의 월간지)
3개월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31)297-1994
016)383-1990
좋은 운명의 근원은 덕(德)
- 본문중에서 -

(학생)
왕따 · 탈선 · 정서불안
(가정폭력)
매맞는 아내, 매맞는남편
부부간의 언어 폭력
(인간관계의 갈등, 부조화)
부부간, 부모자식간, 姑婦간
031)765-0584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생 활 불 자 정 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스님과 함께하는 동양사상
● 주역을 통한 한방 역학 및 사주 명리학 특강
사주학 대비 사상체질, 오행침법, 식이요법
(뜸, 부항, 침술, 민의학 강의)
"길 없는 길의 비밀"
선지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던 스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직시 분별의 장애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직관에 의한 깨달음의 상승법을 통해 열어 드립니다.
031)256-5605, 016)433-5605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FM 89.9MHz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부산불교방송은 21세기 불교문화 진흥을 선도할 대망의 새 사옥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자여러분의 정성어린 지원을 기대합니다.
우 체 국 : 601237-01-001062 국민은행 : 129-01-0011-308 예금주 : (재)부산불교방송
대표전화 : 051)644-5114

탈 종 공 고
· 본 명 : 최선미 · 법 명 : 해 인
주민등록번호 : 560727-2321317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과 종법이 맞지않아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3월 12일
한국불교 임제종 총무원장 법하

근본불교 14기 수강생모집 광고
전화번호를 055)331-9118~9 에서
055)331-6118~9로 정정합니다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2,6호선 신당역)

사주명리학 배우실 분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 작명 · 기타
주 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개 강 3월 11일부터 수료후 자신있게 감명할 수있는 충분한 자료 제공
수강료 수강료 월 15만원
한국명리교육원 02)336-8484

30초이내 운세를 맞추면 입 금하세요
02-826-5067
● 서울은행 24304-3396114 예금주 : 김진동
● 상담실습생 약간 모집 – 교재(사주첩경 이석영 저)
● 명리학 연구 15년 전화상담 경력 6년째 바로 실력테스티해보세요.
● http://www.speeddunse.com에서 무통장 입금외에도 핸드폰/신용카드결제 가능합니다.

易學 비법전수
천문, 지리, 인사에 능통하게 되어 묻는 즉시 무엇이든 답할 수 있어 도력 향상은 물론 성업이 가능한 시간도법을 속성 전수합니다
(질병 치유법 및 개운법 별도 전수함)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공개강좌
宗聖 易學院 02)3446-4118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세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운명의 아킬레스건 사주팔자! 육임으로 극복하세요!!!
효사선생 육임 관련 저서안내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수정보완본 전12권
▶본 책은 토정비결처럼 쉬운 활용서 입니다. 가격:2,500,000원 부록 : 비디오 테이프
★오행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 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문 열고 들어서는 사람(전화)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일로 왔는지, 전화했는지
▶무슨 비밀한 사정을 벌이고 있는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잘못될 것인지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동업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과거사인지, 미래에 일어 날 일인지, 언제 벌어질 일인지
▶지금 무슨 귀신에게서 해꼬지를 당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귀신을 퇴치할 수 있는지
▶귀신의 해꼬지로 생긴 병인지, 아닌지
▶부동산이 팔릴 것인지, 아닌지, 언제쯤에나 팔릴 것인지
▶선거에 당선 될 것인지, 아닌지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언제쯤이면 빌릴 수 있는지
▶경기에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질 것인지
▶가출한 사람이 집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언제 올 것인지
▶도둑 맞은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못 찾을 것인지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 것인지, 채용하지 않는 것인 좋은지
▶현재 팔고자 하는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올해는 어떤 농사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인지
▶날씨가 좋은지, 나쁜지, 언제 비가 올 것인지, 비가 그칠 것인지
▶현재 누구의 산소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이 될 것인지, 언제 이사하는 것이 좋을까?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사람인지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인지 二男一女인지, 一男二女인지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고칠 수 있는 병인지, 고칠 수 없는 병인지
▶수법(천도 시식 굿 부적)을 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지, 없을 것인지
▶각종 시험, 선거에 붙을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직장에서 승진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 것인지
▶결혼이 성사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언제쯤이면 결혼을 할 것인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못 찾은 것인지
▶취직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된다면 언제쯤이면 되는 것인지
▶각종 투자에서 이익을 얻을 것인지, 손해를 볼 것인지
▶이 산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올해 농사는 무엇을 심는 것이 좋을 것인지
모든 인간사는 이 책만 보면 역학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토정비결처럼 쉽게 보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백발백중 합니다.
본 책은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이신 철학박사 고복자 효사 선생께서 쓰신 역작으로 10년이상 사주공부하신 분들보다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이 책을 옆에 놓고 토정비결처럼 쉽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운세를 보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셔서 쓰신 저서로서 본 책이 발간된 이후 3년에 걸쳐 그 정확도가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 내용이 맞고 안 맞고를 걱정하지 마시고, 각 일(各日), 각 시간(各時間)마다 송곳처럼 꽂아놓은 내용을 나름대로 다듬어 더욱 요령있게 말씀하실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서문의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주문,신청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도서출판 복문

현존하는 적중율 최고수준의 역학,
육임을 아시나요?
역학공부 긴 방황의 끝! 육임이 책임짐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효사 선생 직강!
제5기 육임강의를 3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개강 합니다.- 등록마감 : 2월 28일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
강북구청 옆 건물 일심빌딩 402호 육임학당 효사숙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 8번출구 강북구청 왼쪽 옆 건물 4층)
▶교재 : 저서 『효사육임강의록』 ★ 기타 문의사항 : (02) 998-8683
효사 선생 육임 『인터넷강의』 시작안내
■ 인터넷강의 안내 http://www.taotemple.net
매기 12월, 3월, 6월, 9월 첫째 금요일 시작 3개월
▶강의비용 : 1,500,000원
▶교 재 : 저서 『효사육임강의록』 무료증정
▶수강방법 : 100 ~ 120분씩 28회 각회 5번, 6개월 수강
▶질의응답 : FAX(02-908-8683)
▶특 전 : 『공익법인』 학국육임학회 정회원 영입
▶강의일시 : 2003년 1월부터
▶등록방법 : 입금후 ID 교부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효사선생 육임 관련 저서안내
육임 3개월 하면 사주(四柱) 10년 보다 잘 맞춥니다. 육임은 왜 백발백중의 적중력을 갖는가?
전문가용 전화운세 상담용으로 최적 - ★백발백중★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수정보완본 전12권 가격:2,500,000원 부록:비디오 테입
전화별소리만 듣고도 묻지않고 중요사안에 대해서 백발백중으로 적중합니다.
육임신수비결 가격:250,000원 全753페이지
이제는 육임신수비결 1권이면 1년 신수, 평생운 모두 해결 됩니다.
육임강의록 가격:3000,000원 全1663페이지
육임강의록 1권으로 3개월만 공부하시면 사주공부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육임비디오강의 가격:900,000원 全28개
「육임학당효사숙」 제1기 강의가 생생하게 살아서 담겨 있는 육임의 이정표.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CD 가격:2,000,000원 全12개
전화상담 시간, 방문상담 시간만 선택하면 순차적으로 모두 적중시킵니다.
효사육임인터넷강의 가격:1,500,000원 총112회
지역적으로 거리가 머신 분, 시간적으로 바쁘신 분들을 위한 육임인터넷 강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서산
- 법 당 : 28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900평
- 가 액 : 3억 2천
(전국부동산 교환가능)

- 위치 : 충남 논산
- 법 당 : 20평
- 요 사 : 100평
- 부 지 : 900평
- 가 액 : 3억 8천

- 위치 : 충남 공주
- 법 당 : 15평(인법당)
- 요 사 : 15평
- 부 지 : 500평
- 가 액 : 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현판 주련 서각 화각

天心書刻
一雲 金昶煥

전통서각 수공예 제작
TEL 031 · 633 · 1011
FAX 031 · 634 · 7275
H·P 011 · 269 · 2353

大육임 수강생 모집

오행운명가(五行運命家)활인역자(活仁役者)로서 참 진인(眞人)이 되기 위한 필수학. 인사만단의 오천년(五阡年) 비전 육임학

참고 六六六六六六 壬壬壬壬壬壬 大探類秘精神 재 全原聚爰解課

본 학회는 정통 육임학 이수자에 대한 수강인 선별을 통한 강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정통이론과 실제임상의 완벽한 조화를 통한 실사구시의 강의. 초급반, 지도자반을 별도 구성하여 강의 합니다.

문의처 : 02)393-2471 난강학회(欄江學會) 登明 서 정길(徐 正吉)
강의처 : 지하철 2호선 이화여대역 3번 출구앞. 난강학회
www.nankang.co.kr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480-4848, 031)417-4848
팩 스 : 031)480-8549

사찰안내

암 자

- 위치 : 인천 시내
- 부지 : 380평
- 주택 1동(방 4개)
- 양도가 : 1억 5천만원
- 지하철역에서 20분거리이며 암자 및 토굴로 최고임

포교당

- 위치 : 인천시내 최고요지
- 법당 : 5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천도재,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자연철학 회원 모집

♣ 운명감정 비법공개
♣ 창업 및 취업보장
♣ 자격증, 회원증 발급
♣ ARS전화상담가능

무료공개특강 2월20일 목요일

※수강 :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수시접수★
※강사 : 학회장 직강 / 공 자운교수(서울大 졸)

사단법인 한국자연철학연구학회 ☎(02)2272-5131 (종로 5가 한일증권빌딩 옆)

사람을 찾습니다.

88-89년도 사이에 울산 학상동에 있던 강정아 오경아 불자님이 스님을 찾습니다. 스님 한분 법명은 지명스님이며(속명 김혜영)스님이시고 한분 법명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속명 이옥원)입니다.
지명스님은 양산 통도사 입구에 위치해 있는 체육관 관장으로서도 잠시 계셨던 분입 니다. 옥원스님은 강정아 보살님이 울산에서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이 당시 보살님께서는 스님께 너무 무례하게 대해드려 꼭 찾아뵙고 사죄하고 싶다고 합니다.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2245-8799 / 011)746-3457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세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사찰 안내

- 위 치 : 가평
- 부 지 : 1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46평
- 가 액 : 1억 8천

- 위 치 : 서울
- 부 지 : 10,0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12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주풍수강좌

사주, 양택풍수, 음택풍수 회원모집
※ 서적 패철 본 협회 및 유명서점 판매중
회원증, 자격증 발부(초급반 3월개강)
강좌시간 : 매주 화, 수, 목(오전, 오후)
http://www.ps21c.com
사단법인 한국자연지리협회
(02)929-1188,922-1553
지하철 1호선 제기역 1번 출구 금성빌딩 2층 203호

♣ 보 리 수 ♣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4거리 남부시장 입구
- 법당 : 60평, 방1, 부전실 1개 공양간 1개, 세면실 겸 샤워실1개, 삼존불, 시설완벽
※ 시장입구에 있어 포교에 최적
- 가액 : 8000만원 (시설비 일체 포함)

02)2645-2445
02)2648-2445

절터(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 대지 627평
※ 계곡끝에 야산과 붙어 있슴 도로, 전기 부지앞까지 들어옴
- 가액 : 3천 5백만원 인연되신분(절충가능)

011)9945-9062

사찰(급)안내

- 위치 :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훤히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 약 3000평(준농림지) 중
-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50평(스라브)
- 주지실 : 12평, 삼성각 : 16평(목조)
- 가액 : 3억(1억은 1년뒤에 지급해도됨)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임 대형차량 진입 됨(주차장 약 200평)

017)595-5958

사찰 안내

- 위 치 : 부산
- 대 지 : 약 600평
- 법 당 : 15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3억
※ 바닷가 숲속
※ 해안도로에서 100m

- 위 치 : 양산
- 대 지 : 100평
- 법 당 : 20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9,500만원
※ 뒤에는 산, 앞은 개울
※ 부산에서 30분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주시내 대로변 옆 주차장 완비, 4층 건물중 2층
- 평수 : 50평(실평수 47평)
- 보증금 : 2천만원(절충가능), 월 50만원
- 방3개, 주방, 세면장, 거실 큼
- 시설비 : 1천 5백만원

043)272-0147

사찰 안내

- 위치 :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2차선도로옆, 차령산맥줄기
- 평수 : 대지 1500평, 건평 80평
- 특징 : 삼존불 모셔져 있고 지장불 많이 모셔져 있슴 법당, 요사채, 용궁 있슴
- 가액 : 2억원

011)9910-1268
032)882-1268

암자 별장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 예당 저수지 부근
- 부지 : 280평, 임법당 22평
※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이나 일반인
- 가액 : 1억 2천만원

016)293-4341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동대신동 버스정류장 50M 나무 울창한 곳
- 신축대지 200평, 건평 6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6억 5천만원(주인직접)

016)651-1800
011)870-146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주택 아파트 중심지역
- 법당 : 2층 약 50평(방2개, 주방, 세면실, 화장실)
- 삼존불,개금불상,후불, 신중, 산신, 인등, 인등단, 영가단 모셔져 있슴 현재 법회중(부처님 전당 최고 수준)
- 시설비 : 절반으로 답사후 결정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011)9343-0780

사찰 안내

- 위치 : 통도사 IC 근처 현대식 건물
- 법당 15평, 요사 25평, 대지 95평
- 가액 : 9천 5백만원 (절충가능)

016)9891-7755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칠곡 왜관 구미사이
- 부지 : 3000평 (법당 25평, 요사 32평,주차장 1000평) 전망 및 산세 최고
- 가액 : 2억 5천만원
※ 갑자기 외국 외유로 인해 (급)안내해 드립니다

011)517-841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2층 단독건물 (2층법당,1층 요사채)
- 평수 : 총 44평
- 시설비 : 2천만원(최상급)
- 가액 : 1천만원, 월 35만원
※ 스님 급한 사정상 양도함

051)723-1182
017-802-3290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평수 : 40평 방3개, 주방, 법당
- 시설비 : 1백만원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011)884-776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효계동
- 법당 : 약 20평
- 시설 : 삼존불, 요사채(2층)
- 특징 : 포교당으로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800만원 절충가능)

011)577-5783
011)577-5713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도심 유일 포교당
- 평수 : 40평
- 현재 법회중. 시설 A급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불사관계로 양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052)274-2024
011-853-1368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원미동전철역 5분거리 5층건물 2층 30평
- 법당, 방, 주방 거실, 살림가능 주변은 시장, 도로, 아파트
- 시설비 : 저렴하게 7백만원 A급시설 (상담후결정)
- 보증금 5백만원, 월 30만원

032)612-6917 / 016)368-6917

토굴(사찰)안내

- 충남 청양군 대치면 계곡리 (인접 지역에 장곡사 있음)
- 부지: 건평 37평(2001년 신축)
- 대지: 400평 , 전 300평
- 임야: 2300평 (형질변경 가능함)
- 특징: 칠갑산 줄기에 좌청룡우백호가 뚜렷한 지형임. 심야전기난방 느타리 재배사 및 저장고 시설되있음
- 가액: 1억 5천만원(분리 가능)

011)434-720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산 3동 대로변 위치 최고, 시설 최고
- 2층 30평, 방2개, 요사채 (옥상)2채
- 가액 :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51)506-0377

사찰 안내

- 위치:충북 옥천군 동이면 묵사리 큰 도로변, 사찰 최고 명당
- 대지 380평, 건평 1층 80평, 2층 70평, 합 150평 법당, 요사채
- 사정상 급매. 위치, 시설 최고 시설비 일체 포함
- 가액: 6억5천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2)373-4084
011)252-0039

포교원(급)안내

- 위치: 광명시전철7호선광명역 앞 (4층 건물중 3층)
- 법당 : 40평
- 삼존불, 지장보살 3자, 각단 탱화 등
- 보증금 :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일체 2천만원

02)2618-0908
011)9717-9002

사찰 안내

- 위치: 팔공산(대구시내약15분거리)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용왕有 슬라브집 2채
- 평수 :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절충 가능)
※ 도력있는 스님을 모십니다 몸만 오십시오

018-502-808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여수
- 대지 300평, 법당 15평
- 삼존불, 종각 범종 500관 산신각 2평, 요사채 3평, 방 6개
- 가액 : 1억 2천만원

011)9606-1042

사찰안내

- 교통 관광 경남 일대 최고 위치
- 위치 : 경남 하동군 진교면 (사천공항에서 20분거리)
- 부지 : 약 1200평(주차장100여평, 畓 500평, 田 280평)
- 마을과1.5km 산골에 위치 버스운행 가, 전기, 전화2대
- 건물 : 65평, 법당, 방7개, 부엌2개, 황토방2개
- 가액 : 2억 5천만원

055)884-0208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용동면
- 대지 : 150평
- 법당 : 20평, 요사채 30평
- 특징 : 현대식 건물로써 논산 20분거리 (비구니스님 거처지로 용이함)
- 가액 : 1억 2천만원

011)811-5466

사찰 안내

- 경북 문경시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1억 6천만원

011)506-6733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 산 2,000평
- 건물 : 법당 14평 산신,용왕각이 각각 2평, 요사채 30평, 창고 13평
- 종교시설부지가 350평임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011)811-5466

포교당 안내

- 위치: 대구시내중심(수성구)
- 평수 : 30평
- 시설 : 방, 공양실, 사무실(3개) 옥상(방1) 사용가능
- 포교당 운영하실 분, 일반사무실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00만원, 절충가능)

053)767-8866
011)518-2739

포교당 안내

- 위치 : 목동4거리 큰 대로변 3층건물 3층 5호선 목동역 5분거리
- 평수 : 30평
- 아미타불 모셔져 있고, 종무실1, 법당1, 사무실1, 거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2)2647-009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 대지 240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방3개, 주방, 거실, 화장실 2개, 실외화장실 3개
- 주차시설 완비 답사후 절충가능
- 가액 : 1억 5천만원

011)817-402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장 (금강 식물원 밑) 주차시설 완벽
- 법당 : 2층 47평(종무소,주지실,화장실)
- 호불 500불, 연등1000개, 인등단, 영가단, 최고급 닷집(단청필)
- 공양간 : 1층 25평(화장실, 방1)
- 입주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100 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6)444-575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최고요지 방이동
- 법당 : 3층 대로변 전관
- 가액 : 2000만원, 월 135만원
- 시설비 : 7,500만원(상담) 상가주택, 불교 · 무교 의식가능

011)9262-7011
02)420-4751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현대전자에서 10분거리
- 부지 822평, 법당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7평, 창고 10평
- 오래된 고찰입니다
- 1000년 이상된 미륵부처님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31)632-1775
017)236-1775

암자 토굴 별장

- 위치 : 대구 포항간 산업도로 영천 IC에서 신령 안동방면 900m (영천시내 인접)
- 산수수려, 주차공간 넓어 투자가치 최고임
- 건물 : 철골 조적1,2층 (2층 원룸) 양옥 68평
- 가액 : 1억 3천 (가격절충)

054)337-3996
011)529-3996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중곡동 4층건물중 4층 대로변 상가 주택
- 법당 : 약 60평
- 가액 :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비 : 5천 5백만원

011-776-4170
02)2294-4170

사찰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024-4843
02)3391-4845

사찰(급)안내

- 사찰,요양원,연수원 적합부지 기도원, 전원주택도 가능한 곳
- 곤지암 명당(남향) 1,300평 주택 1동(건평 50평) 사찰허가필(땅 일부공사)
- 급 4억5천만원(시세절반)

※ (기존사찰) 아산시 도고, 1,500평, 7억
016)362-2828 김병직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시흥시 시화신도시 역에서 10분거리 이마트 맞은편 최고요지
- 법당 : 건평 49평(법당, 사무실, 주방, 방)
- 현재 법회중(불사관계로 양도)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시설최고A 급) : 답사후 절충
- 대단위 아파트 및상가밀집지역

031)499-9728/011)277-9724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게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 현대해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상담문의
☎ (02)3437-8282

목어

시작의 마음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교정이 활기에 넘친다. 개학할 무렵이면 늘 느끼는 학교 분위기지만, 1학기 개강 때와 2학기 개강 때가 또 다르다. 그리고 그 다름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신입생들이다.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들의 부푼 기대, 설렘이 학교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보여주려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거기에 한 몫을 거든다.

새로운 물. 거기에는 순수함이 있다. 반면 어떤 쪽으로 물들어갈지 모를 불안함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해 주게 마련이다. 처음 시작이 좋아야 좋은 방향으로 곱게 물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말 반 이상의 중요함을 차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작이 없는 경우는 없지만, 좋은 끝을 맺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말도 있다. 시작의 마음은 언제나 설렘과 기대가 앞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힘든 계획을 세우기 쉽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힘에 부치는 일이 반복되면 자신감만 줄어들게 된다. 그런 이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계획을 세워라. 대신 오랜 기간 꾸준히 계속해 보라. 모든 계획이 꼭 그럴 수는 없지만, 꼭 그렇게 오래 계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오랜 기간을 쌓아갈 때 오래 된 술이 갖는 향기와 같은 품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아침 자신이 큰 비약을 이루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날이 온다. 자신감을 잃어가는 삶과 비약을 통해 질적인 향상을 이루어가는 삶의 차이…. 그것이 인생의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미얀마 스님들의 한글 배우기

한 불자가 미얀마 스님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미얀마 출신의 산디마 스님과 산디와라 스님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산디마 스님은 서울 암사동에 국내 유일의 미얀마선원을 세웠다. 미얀마인 노동자들은 산디마 스님과 선원을 통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달랜다고 한다. 이런 미얀마 스님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한 불자의 정성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장군죽비

기대만큼 보람 못 느끼는 자원봉사

불교자원봉사자 대다수가 봉사활동에 생각만큼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발간한 '2002년 자원봉사활동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5%가 봉사활동에 불만을 털어놓고 있으며, 이 가운데 68.9%는 기대 이상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실 있는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인 셈이다.

불자 세상보기



장석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3·1절 두 집회 '국론분열' 아니다

지난 3월 1일 서울에서는 네 가지의 3·1절 행사가 열렸다. 첫째는 북한의 종교인 대표단 100여명이 남한의 종교인과 함께 참가하여 민족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3·1 민족대회'다. 두번째는 '3·1절 국민대회'로, 반공·친미를 내세우며, 각종 보수적 단체와 종교인, 정치인을 망라하여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세번째는 '3·1절 구국금식기도회'로,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주최하였다. 네번째는 700여 개의 '진보적'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3·1 민족자주·반전평화 촛불 집회'다.

친미적인 '3·1절 국민대회'와 자주와 반전(反戰)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는 여러 가지로 상반된 성격을 보여준다. 전자가 반(反)김정일, 반공,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반대와 한미동맹의 강화를 외친 반면, 후자는 반전·평화, 그리고 민족의 자주성 확립을 주장하였다. 집회 참석자도 차이를 보여, 전자는 주로 중·장년층인 반면, 후자는 대부분 20-30대의 젊은층이었다. 그동안 두 차례의 시청 앞 기도회를 주도했던 한기총이 이번에는 구국 기도회를 개최하며, '3·1절 국민대회'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러가지 면에서 앞서 열린 두 차례 시국기도회를 확대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3·1절을 맞아 서울에서 이처럼 상반된 집회가 열린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리고 이런 집회에 종교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적극 참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떤 이는 해방 후 좌우대립 정국의 혼란상을 떠올리며 걱정이 많다고 하고, 또는 국론의 분열을 심히 염려하고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해방 후와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국론이 통일되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사고방식은 파시즘적 독재의 냄새를 풍긴다.

민주사회는 시민 자신이 믿는 정치적 신조를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치적 입장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사회의 모습이다. 만약 하나의 정치적 입장만이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에 질식할 듯한 억압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낼 뿐이다. 국론 분열 운운하는 이는 대부분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다. 파시즘적 억압이 판을 치고 있던 시절을 기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날 시청 앞 연단 밑에는 여태껏 반공과 친미를 금과옥조로 무한 특권을 누려온 우익 정치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맹목적 반공주의자인 개신교 목사들과 함께 시위에 참가하였다. 지금까지 이들은 정치적 시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반공·친미정권이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이 거리에 나와 정치적 시위를 하게 된 것을 보니, 요즘 상황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그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정치적 입장이 자유롭게 개진되는 분위기가 비로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정치적, 종교적 지배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억압하여 침묵시켰다. 하지만 그동안 군림했던 지배 이데올로기는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다른 정치적 관점과 서로 경쟁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겉으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며, 음험하게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던 종교인들은 스스로 공공연하게 정치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자신의 허구성을 폭로하게 되었다. 이제 친미, 반공의 종교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득을 챙겨온 이전의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깨달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3·1절은 모두에게 소득이 된 셈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경불련 '외국인 노동자 현실과 불교지원운동' 토론회

소수, 약자에 대한 관심은 수행·정진 과정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대표 정련 스님)은 4일 조계사 불교대학 제4강의실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현실과 불교지원운동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의 소수자,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불자로서 당연한 수행과 정진의 과정일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편집자〉



정진우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실장

한국 사회에는 4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공장에서 한국인들을 대신해 노동을 하고 있다. 이는 분명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불청객이 아닌 한국 사회의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과 한국 사회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연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깊은 신뢰 바탕으로 지원 필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냉대와 차별의 시선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바라보았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불교의 힘은 모든 인간의 평등함을 기본으로 하고, 인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끝임 없는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에의 소수자,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불자로서 당연한 수행과 정진의 과정일 것이다.



김현숙
갈릴래아 사무국장

세계에는 약1억5천만 이주 노동자가 있다고 한다. 또 지난해는 가톨릭교회가 정한 제89차 세계 이민과, 난민의 날이다. 이날 교황의 메시지 요지는 '이주민과 종교간 대화'였다. 그리스도공동체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살아야 할 세상에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서로 다른 종교인들 속에 안타깝게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경계심과 편견, 두려움의 장벽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

'대화'는 누구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생활 속의 대화가 그렇다. 인간관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소박

다른 종교인에 대한 편견 없애야

하고 일관된 일상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종교적 신념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우리 종교인들이 우선 실천하는 것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교황의 말을 대신으로 끝을 맺겠다. "대화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물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간직한 이 위대한 보화를 다양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민과 이방인들에게 어찌 나누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승무
중앙승가대학 사회학과 교수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연수제의 도입이라는 발상에서 연유한다. 여기에는 외국인 노동의 착취를 통한 자본의 이윤 극대화라는 발상이 숨겨져 있다.

오늘날 선진적인 노동문화를 가진 많은 나라들이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불법상태에서 유발되는 사회문제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면, 그리고 최근 시장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제3세계의 빈곤화와 도시화를 고려한다면, 이 제도조차도 한시적

과제·세부목표 설정 실천해야

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객관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교와 시민사회운동의 결합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사부대중의 노력, 즉 운동주체의 실천뿐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 혹은 불교사부대중이 운동의 과제 및 세부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운동의 성과를 축적하는 일만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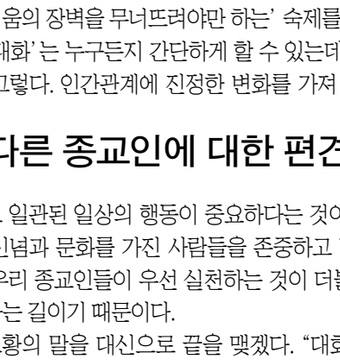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주소 및 연락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부산 동구 범일 2동 830-50 정욱빌딩 503호 051)632-0064 / 011-219-506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녕 / 의령	혜봉스님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213 용정사 055)353-1196 / 017-650-1196
대구지사	대구·경북	손문철	대구 수성구 중동 532-274 053)768-8008 / 016-813-8008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경북 영주시 휴천1동 705-7 4/1 054)634-3429 / 011-9373-3778
광주지사	광주·전남	주용직	광주 서구 치평동 210-6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강원 강릉시 노암동 397 서일아파트 A동 503호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48-19 현대불교사 063)255-2274 / 011-9644-4579
동해지사	동해 / 삼척	해동스님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산14번지 성불사 033)521-6293 / 019-9767-6297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충북 청주시 용담동 120-1(15/2) 광덕사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대전시 서구 월평동 807번지 불교조각원 지하 042)489-9390 / 017-433-6523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9114

“지율스님 · 천성산 모두 살리자”

2배수 예참수행 동참자 계속 늘어

범어사 · 통도사 · 부산신행단체 지지성명
인터넷에 반대글 올리기 등 환경의식 고취

“2배수 예참 법회가 원만히 회향되어 금정산 천성산 관통이 백지화되고 지율스님과 뭇생명들이 기뻐하는 날이 어서 왔으면 합니다”

매일 밤 8시 부산시청 광장에는 ‘지율스님과 천성산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불자들의 저녁예불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부산청년불자산악회,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불교계 언론인, 환경을 생각하는 불교연대, 맑고 푸른 시민연대 등 30명으로 시작된 환경과 상식회복을 위한 山是山(산시산) 水是水(수시수) 2배수 예참 수행은 동참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비가 오는데도 어김없이 이어진 6일 예참 수행에는 200명을 훌쩍 넘긴 불자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참석해 저녁예불, 반야심경, 환경발원문 낭독, 노래 함께 부르기 등의 순서를 이어갔다. 첫날부터 계속 참석하고 있는 통도사부산포교원 심경청년회 회원 이윤희 불자는 “생명을 무참히 해치면서까지 강행하려는 개발에 반대하는 마음과 지율스님과 천성산을 지켜야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하루도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2배수 예참 수행에 동참하는 불자들의 활동은 저녁예불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 올리기, 메일 보내기 등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범어사와 통도사를 비롯한 부산 경남지역의 신행단체장들은 3일 간담회를 열고 지율스님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채택, 3월 중 대규모 불교도 대회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처럼 목숨을 건 지율스님의 단식을 지지하는 불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6일 단식 30일째를 맞은 지율스님은 5일 총무원을 방문한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사중지 및 노선 재검토’약속에 대해서도 실망의 뜻을 감추지 않았다.

“늘 듣던 대답이다. 건교부와 고속철 공단의 기본입장도 지금껏 그랬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시 두리뭉실한 답변뿐이라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스님은 현재 진행중인 2배수 예참 수행 동참 대중이 1천명을 넘어서는 11일을 기점으로 말없는 다수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대응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 · 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산고속철의 경우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고 쌍방의 전문가가 참여한 재검토위를 구성해 협상을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통도사 포교국장 오심 스님이 6일 부산시청 앞 지율 스님 단식농성장을 찾아 2배수 예참수행에 동참했다.

선본사 주지에 장적스님
제10교구 은해사서 추천

94년 팔공산 갓바위 선본사가 종단 직할사찰로 지정된 이래 9년만에 처음으로 은해사에서 추천한 장적스님이 주지로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6일 중앙종회의원 장적 스님을 선본사 주지로 임명한 것은 총무원장 선거 당시 약속한 교구본사에 말사주지 인사권 이양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로써 팔공산 갓바위 운영권 문제는 종단 직영사찰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실질적인 운영은 은해사에서 담당하게 되는 ‘역할분담’으로 조정됐다.

선본사 주지 장적스님은 “신앙 도량인 갓바위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불교문화행사, 사회복지사업, 포교 및 신행단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구 기자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1차 공모 36팀 응모

6팀 선정 2단계 돌입

한국불교 사원건축의 새 역사를 쓰게 될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건립 설계경기 1차 공모를 2월 28일 마감했다.

해인사는 이번 1차 공모에 제출한 36개 팀의 설계아이디어안 중 1,2일 양 일간에 걸친 심사를 통해 가장 뛰어난 6개 팀을 선정했다.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건립 설계경기 1차 공모를 통과한 6개 팀은 조만간 1천만원의 설계지원금을 지급 받고 3개월간의 일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실질적인 설계계획안을 제출하는 2단계 공모에 들어가게 된다.

해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해인사 성보박물관 주변 2,700여 평의 부지에 약 200억 원을 들어 200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신도량 건립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작불사의 설계를 담당할 설계팀을 정하기 위한 1단계 공모를 마친 상태로 본격적인 건립은 올 10월경 착공할 예정이다.

박원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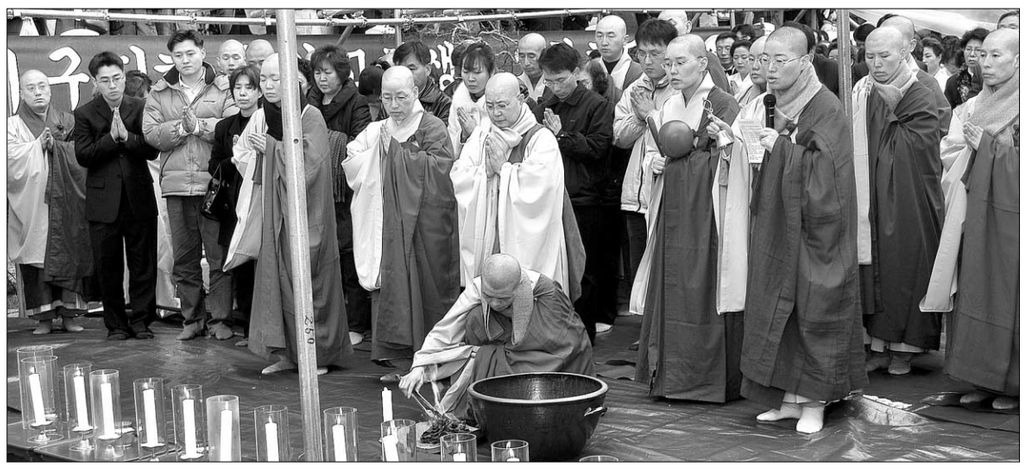
부산개인택시 법륜회
창립 4돌 장학금 전달

대한불교 부산개인택시법륜회(회장 박명철)는 6일 혜원정사 법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혜원정사 조실 고산스님,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혜원정사 주지 효명스님을 비롯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송주찬 부산전자공고 2학년 학생을 비롯 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박명철 회장은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김수현 법륜회 후원회장, 최익두 특별 자문위원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하며 후원과 관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270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중인 부산개인택시 법륜회는 불교 행사 차량 봉사 등의 활동과 함께 차량 내에 모금함을 설치,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벌여왔다.

천미희 기자



◇한마음선원은 1일 유가족 30여명과 사부대중 8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구지원에서 대구지하철 참사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

대구지하철 참사 합동천도재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부산 여여선원

한마음선원은 1일 대구지원(지원장 혜계)에서 대구지하철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

합동천도재는 헌향, 헌화, 금강경 독송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가족 30여명과 함께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 한마음선원 전국 지원장 스님 등 사부대중 800여명이 동참했다.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지하철 사고의 희생자 및 유가족에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일체영령들이 재생천도되어 화현할 수 있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맏딸 강수정양을 잃은 강창규(49, 대구시 신천동)씨는 “스님들께서 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천도재를 지내주시어 감사하다”며 “구천을 떠돌 원혼들이 극락왕생하여 불완전한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천도재에서는 95년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등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천도재도 함께 봉행됐다.

한편 부산 여여선원(선원장 정여)도 6일 대구 지하철 사고로 희생된 영가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정여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여여선원 다도회의 헌다로 시작된 이날 천도재는 헌화, 여여선원 합창단의 음성공양, 정여스님의 법문 순서로 진행됐다.

천미희 · 박원구 기자

“성덕대왕 신종 당목 낡아 신비의 소리 울리지 못해”

국보 29호인 성덕대왕신종이 예전의 신비스런 종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종을 치는 나무인 ‘당목(撞木)’이 낡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배명진 교수(숭실대)는 최근 한국음향학회에 제출한 논문 ‘에밀레종에서 애끓는 종소리 분석 및 재현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당목의 타종 면이 기울어졌고 몇 군데 균열이 생겨 종을 칠 때 제대로 힘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500여 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의 당목은 길이 145cm, 최대 직경 30cm, 무게 66kg으로 소나무로 만들어졌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단기출가 · 수행원 4월 1일 개원

동화사, 대졸 우바새 60명 선착순 모집

동화사(주지 지성)가 7일의 단기출가를 1달간으로 연장한 단기출가 수행원을 개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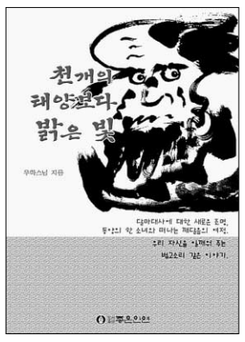
동화사 단기출가수행원은 만 20세이상 40세 미만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우바새(남자 신도)를 대상으로 선착순 60명을 31일까지 모집해 오는 4월 1일 개원할 예정이다.

단기출가수행원에 입교한 수련생은 승가대 강주 및 강사스님들의 금강경과 유식학을 중점으로 한 강의와 함께,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참선, 발우공양, 예불 등 출가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박원구 기자

감로사, 3천배 참회기도
12~16일까지 5일동안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가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3천배 참회 법회를 봉행한다. 3천배 참회기도는 올해로 52회 째로, 51년 자운스님과 청담스님의 국난극복 의지로 시작되어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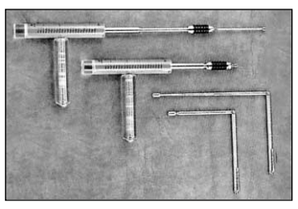
우학스님, 소설 2권 펴내

영남불교대학 학장 우학스님이 최근 두 편의 소설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우학스님의 소설은 ‘천 개의 태양보다 밝은 빛’(왼쪽)과 ‘보덕각시’로 10일 영남불교대학 3층 대법당에서 출판기념 사인회를 가졌다.

‘천 개의 태양보다 밝은 빛’은 현재의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세계로 보는 불교적 관점을, ‘보덕각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통한 만남의 인연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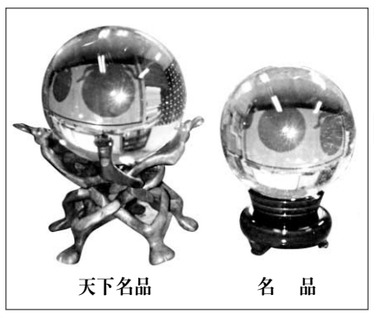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수맥, 명당찾기
전자로드, 피라미드
수맥, 온천, 지하수, 명당, 금광 및 지하자원 찾기



· 전자로드(1Set) : 350,000원
· 전자로드(1개) : 180,000원
· 수정추 : 45,000원
· L-로드 : 20,000원
· 피라미드 : 350,000원
· 파워봉 : 220,000원

수정은 예언, 집중력 향상, 건강증진 명상수련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天下名品을 소량 한정판매 합니다)



天下一品 (19cm)
판 매 가 : 200만원
특별판매가 : 45만원
(용받침대 : 5만원 별도)

名 品 (10cm)
판 매 가 : 33만원
특별판매가 : 25만원

♣ 수정구 사용법
·명상수련 · 예언,예측수련
·氣건강수련 · 소원성취
·만사형통 · 복부풀기 · 명기풀기
·차크라수련

天下名品 名 品

50억년 전에 생성된 수정은 지구상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는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기수련, 건강증진, 소원성취, 명상, 예언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 일찍부터 컴섯가들은 수정구로 예언 예측에 사용해 왔습니다 ◆

※ 천하명품은 중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명품이며 귀한분 들에게만 선물하였습니다. (※ 팜플렛을 보내드립니다)

韓國氣硏究院
☎ 02) 455-6944

- 참나무 목초 수액시트 -
발건강법
자고나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건강법!!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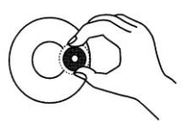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수험생, 산후조리
◎ 손, 발, 어깨, 무릎, 허리가 상쾌해집니다

지원납품처 경희한방병원원목실, 광시한의원, 현대의원, 태웅한의원, 그랜드약국

배꼽다이어트 탄씰 ★수입완제품 ★일본大힛트!!!
⊙ 일본에서 매월 60만개가 팔리는 힛트상품!
⊙ 이학박사 “사카이 미쯔루”증언
⊙ 배변원활, 체중감소, 허리날씬, 냉증
정가 : 6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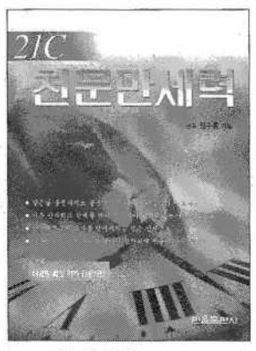
간단히 배꼽에 부치면 효과가 있습니다.
복부가 따뜻해지고 배변이 원활합니다.

♣ 500분에 한하여
수액시트 2BOX(160,000원)를
주문하시면 무료증정
※ 별도 구입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상담해 드립니다. ◆ 자연목초 ◆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김건순
☎ 02) 453-5851

21C 천문만세력
단 한번의 사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비법은?



현곡 정수홍 지음
4×6배판 / 1162쪽
정가 35,000원

화제의 신간
● 같은날 출생하여도 출생시간에 따라서 대운수가 다르다!
● 기존 만세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월까지 표출되는 나의 행운수는!
● 간략대운수의 오차를 벗어버리는 행운 만세력!
● 기존만세력은 대운수를 월까지 정확하게 산출해 주지 못한다!

부록 대법원 확정 한자 인명사전

적중율이 높은 사주법을 알려 드립니다!
그림 唐四柱大典
이선암/전호일 공저 · B5 · 296쪽 · 값 18,000원



· 적성에 맞는 직업
· 잉태한 달로 남녀 구별하는 법
· 길흉부적법
· 기초역리학
· 남녀궁합론
· 각종택일법
· 기초육갑법

당사주란 중국에서 유래한 그림으로 사람의 일생을 초 · 중 · 말년으로 나누어 쉽게 개개인의 사주를 보는 법의 하나이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譯柱圖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원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택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홍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옹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미 캘리포니아에 한국절 태고사 완공

2천여 사부대중 참석 2일 봉불 점안식

미국인 무량스님 9년 원력 선불교 대중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하차피 산기슭의 한국 절 태고사(주지 무량) 대웅전에 부처님을 모셨다.

LA서 185km 떨어진 산기슭, 인디언들의 성지에 자리한 태고사(Mountain Spirit Center)는 2일(현지 시각) 9년 불사 끝에 대웅전 봉불 점안식을 가졌다.

태고사 주지 무량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숭산 스님을 통해 불교를 알게 됐고 선의 세계에 대해 눈뜨게 됐다"며 "한국 불교의 선이 미국사회에서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1부 점안식 2부 법요식 3부 전통무화 공연 순으로 진행된 이날 봉불 점안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비롯 남가주사원연합회장 현일 스님 등 20여 스님, 성정경 LA총영사 등 한인교포 1600여명과 현지인 100여명등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특히 태고사 봉불 점안식은 미국 현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으며, 한인교포들은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샌디애고 등지에서 모여들어 한국 전통사찰 건립을 축하했다.

1978년 예일대 3학년 재학 중 숭산스님의 법문을 듣고 83년 출가, 4년 동안 예산 수덕사와 군산 태고사에서 수행한 무량스님은 지난 92년 '미국 땅에 한국불교의 수행 도량 만들기와 한국불교의 미국 현지포교'를 평생원력으로 태고사 창건불사에 나섰다. 무량 스님은 손수 트럭, 굴삭기, 기중기를 다루며, 교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대웅전과 요사채 불사를 완료했다. 또한 스님들이 수행 정진할 수 있는 관음전과 불교에 관심있는 현지인들을 위한 선방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국절 태고사는 2일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봉안식을 봉행했다.

태고사는 현재 매주 일요일 11시 법회를 개최한다. 법회는 천수경 독송에 관음정근, 15분간의 참선, 그리고 법담을 나누는 마지막 순서까지 1시간 넘게 진행된다. 태고사는 또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전력 자급, 스님이 손수 만든 무공해 세재 사용, 지하수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수도물의 재사용, 건물 주위의 나무를 살리기 위해 공사의 불편 감수 등 한국불교의 정신을 고스란히 살려내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우리 절 우리 신도

"절살림 챙기는 것도 수행방편"

수원 용화정사 홍재분 총무

스님의 잃은 손 대신 묵묵히 대소사 챙겨

구치소 '음성공양' 등 지역봉사에도 헌신적

홍재분 보살(52 · 법명 여래성). 5일 수원 용화정사에서 만났을 때, 홍 보살은 책 한 권부터 건네줬다. 책 제목은 <서산갈매기야 내 한손합장의 뜻을 알랴>. 최근 용화정사 주지 성관 스님이 펴낸 자서전이다. 받아든 순간, 오른손 없는 성관 스님이 다가왔다.

홍 보살과 용화정사의 인연은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택 안중 토굴에서 정진했던 성관 스님이 도심포교에 원력을 세워 용화정사를 창건할 때부터였다. 수원 지역의 미약한 불교세에 교통사고로 한 손을 잃은 성관 스님이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홍 보살은 사찰 안살림은 물론 포교활동에 까지 헌신적인 뒷바라지에 나섰다.

"스님은 저보고 용화정사의 산증인이라 하시더군요. 아닙니다. 좀 전에 스님이 한 손으로 합장하시는 걸 보셨죠. 전 다만 스님의 잘린 손을 대신해 왔을 뿐입니다."

'용화정사 오른팔'. 용화정사 신도들은 홍 보살을 이렇게 부른다. 늘 말없이 사찰의 대소사를 챙기기 때문에 붙여진 애칭이다. 전 파상을 하고 있는 남편을 도와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홍 보살은 매일같이 용화정사로 '출근(?)'을 한다. 신도회 총무 소임을 맡아가며 정기 법회, 신입 신도 상담, 법당 청소 등 온갖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홍 보살은 '척척' 해 낸다.

홍 보살은 가족신행으로도 칭찬이 자자하다. 남편 한동화(52) 씨는 거사불교회 활동을, 큰 아들 만용(27) 씨는 대학재학 시절 불교학생회 부회장을, 큰 딸 연수(32) 씨는 수원시사암연합회 사무와 수원 중부경찰서 경승실 자원봉사활동을, 작은 딸 효숙(30) 씨는 용화정사 운전기사를 마다하지 않는 등 온 가족이 불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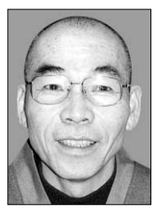
이 같은 홍 보살의 활동은 용화정사 내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7년 전 용화정사 신도 20명으로 자은합창단을 결성, 단장을 맡고 있는 홍 보살은 매달 한번 씩 수원구치소, 수원 중부경찰서 경승실을 찾아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매년 인근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7백여 명을 초청, 잔치까지 벌일 정도로 억척이다.

홍 보살은 올해 또 하나의 원을 세웠다. 수원역 노숙자 돕기 행사를 펼친다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직성을 풀린다는 홍 보살. 분명 용화정사의 '오른팔'이었다.

수원=김철우 기자



◇홍재분 총무(맨 왼쪽)와 신도회 회원들이 그릇을 닦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추천의 말

성관스님 용화정사 주지

신도들 한마음으로 이끄는 기둥

홍재분 보살은 28년 세월을 우리 절과 함께 해온 산증인입니다. 한결같은 절집 뒷바라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보통 주부들이 사찰 일에 몰두하다 보면 가정일은 물론 개인 신행에 소홀하기 십상인데, 홍 보살은 다릅니다. 법당청소에서 합창단 지도까지, 절 안팎일을 살뜰히 챙기고 있습니다. 모든 신도 한분 한분이 귀중한 보배이지만, 이들을 한마음으로 이끄는 홍 총무야말로 우리 절의 기둥입니다.

광주 증심사 지역 모범사찰로 발돋움

노인복지법인 설립…호스피스병원 건립



◇증심사는 최근 지역인사들과 좌담을 갖고 복지법인설립 계획을 밝혔다.

광주 증심사(주지 일철)가 노인복지 지원법인을 설립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모범사찰로 발돋움하고 있다.

6월경 설립될 예정인 사회복지법인 '증심(가칭)'은 노인 질병 검진서비스와 사회문화 교육, 독거노인 쌀 지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노인복지서비스 실시를 위해 증심사는 문화공간도 사찰 내 마련할 방침이다. 또 병든 노인들을 위한 호스피스전문병원 건립도 계획 중이다.

증심사 주지 일철스님은 "전통수행공간은 그대로 살리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증심사는 무등산의 꽃향기와 풍경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월간<증심(證心)> 창간호를 1일 발행했다. 1200여년 역사의 향기와 문화를 품고 있는 광주 증심사가 발간한 <증심>은 무등산을 오르는 광주시민과 탐방객들에게 배포된다.

김원우기자

'서울 옛지명 되찾기사업 자료집' 발간

낙원 · 인사동 등 불교관련 40여건

질문 하나. '한국 불교 1번지' 조계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堅志洞)의 동(洞)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조선시대 의금부에서 재판할 때 뜻을 굳게 가지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라는 데서 나왔다가 답이다.

서울시는 서울지역의 동(洞)과 거리, 산, 하천 등 1596곳 이름의 유래와 변천과정을 담은 <서울 옛지명 되찾기 사업 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불교 관련 주요 지명은 40여건이며 대부분 고승과 절 이름에서 유래한 것들이다.

고승 중에서도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운 무학대사가 압도적이다. 동대문구 답십리(踏十里)동은 무학대사가 왕도를 정하기 위해 이 곳을 밟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성동구 하왕십리동 역시 무학대사가 한 농부에게 10리를 더 가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왕십리(往十里)'라는 이름이 생겼다. 선사시대 집터로 유명한 강동구 암사동(岩寺洞)은 백제 때 바위 절(岩寺)이 있었던 데서 붙은 이름이다. 강북구 미아(彌阿)동, 서대문구 봉원(奉元)동, 성북구 보문(普門)동, 은평구 불광(佛光)동 등은 같은 이름의 절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종로구 낙원(樂園)동은 원래 탑골(塔洞) 등으로 불렸으나 탑골공원이 낙원 같다고 해 일제가 자의적으로 붙인 이름이다. 조선시대 절골(寺洞)로 불렸던 인사(仁寺)동 역시 마찬가지다. 일제에 의해 왜곡된 서울시의 지명은 모두 65곳에 이른다.

권형진 기자

'나눔의 집' 전시 · 증언회 개최

일제 시대 위안부의 아픔을 겪었던 나눔의집 할머니들의 그림전시회가 일본 쿄토시 사찰인 '히가시홍간지'에서 15일~4월 15일 열린다. 전시회에는 나눔의 집 김순덕 故 강덕경 할머니 등이 '빼앗긴 순정'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 유화 작품 20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4월 2일에는 김순덕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실상에 대해 들려주는 '할머니 증언회'가 쿄토에서 열린다.

강유신기자

한국문화표현단 강좌 개설

사단법인 한국문화표현단(단장 최준식)은 14일부터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한국의 문화유산'과 '전통 한국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강좌를 개설한다.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계속되는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강좌는 매주 금요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문화유산 열 가지' '종묘 강의 및 답사' '종묘제례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열리는 '전통문화가 중요…' 강좌는 매주 월요일 문화일보 본관에서 '한국문화의 통합적 총론' '우리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 '우리 건축을 보는 눈' 등이다.

강유신기자

구례 화엄사 강원 화재

6일 새벽 구례 화엄사 강원에 화재가 발생, 방 한칸을 태우고 인명피해 없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서는 이날 스님들이 법당에서 예불하는 새벽 4시 10분쯤 불이 남 점을 감안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김원우기자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 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실시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수시접수

2002년 12월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을
단 한번의 명상최면으로 해결하다.

◆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와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십 수년씩 기공 공부를 하신 분들이 수업을 끝내고 난 후 지금까지 채울 수 없었던 부분을 정리하고 완성 시킬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뛰어난 영매자들이 수업을 참관하고 난 뒤 자신의 보호령과(몸주신) 기타의 영적존재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대구수성 포교원
직지불교대학 제16기 신입생모집
입학일시 : 2003. 3. 14(금) 오전 10시
전화 053)784-8620

생명의 소중함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어린이 그림책 그리는 세밀화가 권 혁 도 씨



◇화가 권혁도씨가 그린 세밀화는 실제 살아있는 듯 정교하고 아름답다. 서울 하계동에 위치한 작업실에는 수년에 걸쳐 권씨가 관찰하고 그린 곤충 스케치와 기록앨범들로 가득하다.

"우리 인간이 그렇듯이 곤충들도 생존을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박각시나방 애벌레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지요. 또 방아게비는 나뭇잎과 같은 빛깔로 몸을 보호하고, 호랑나비 애벌레는 냄새나는 분비물로 위험을 피합니다."

화가 권혁도(48, 법명 時雨). 더 정확히 말해서 어린이 그림책을 그리는 세밀화가다. 어린이 책 분야 스테디셀러인 창작 그림책 <누구야 누구>를 비롯해 <세밀화로 그린 어린이 식물도감> <세밀화로 그린 어린이 동물도감> <세밀화로 그린 보리 아기 그림책> 등을 작업했다. 또 지난해, 6년여의 작업 끝에 <세밀화로 그린 어린이 곤충도감>을 펴냈다. 95년부터 우리 주변의 곤충들을 채집해 직접 그 생태를 관찰하고,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사진과 글로 일일이 기록하며 137종 231가지 곤충 그림을 완성했다. 이 가운데, 그가 키우고 관찰하지 못한 건 벼룩과 이, 장수하늘소 뿐이다.

6년여 작업 곤충도감 펴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곤충 박사가 되어 있었다. 시골집에서 구데기가 살고 있는 호박을 가져와서 구데기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는가 하면, 뽕잎까지 따와 누에를 기르고, 사마귀 알집을 채집해 온 집을 사마귀 천지로 만들기도 하고, 새벽 3시가 넘도록 왕잠자리의 허물벗기를 관찰하며 변화의 과정들을 사진 찍고, 기록하면서 말이다.

그는 매일 오전 9시 작업실에 나와 예불을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의 작업실 중앙에는 영산회상도 액자를 걸고 향과 초까지 마련된 불단이 있다. 그 앞에 앉아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관음정근을 한 뒤, 40여분간 참선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 모두를 여법하게 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그는 3년 전 뒤늦게 불교 공부를 시작해, 재작년 제7회 조계종 포교사 시험에 합격하고, 포교사단 장의봉사1팀으로 활동하는 불자이다. 한달에 2~3회 봉사활동을 하고, 지난달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위해 봉선사 불교전문강원 통신반에서 공부중이다.

그가 쓰는 붓은 여느 화가들의 것과는 좀 다르다. 0호 또는 00호 붓을 사용한다. 바늘처럼 예리한 붓이다. 수채화로 표현되는 그의 세밀화는 생명체의 본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담아낸다. 우리가 더럽고 징그럽게 여기는 구데기, 파리, 모기 까지도 그의 손을 거치면 아름답게 느껴진다. 존귀한 생명의 본 모습을 담은 따뜻한 그의 그림을 아이들과 엄마들이 무척이나 좋아한다.

예불과 참선으로 하루 시작



"관찰이 끝나면 연필로 스케치를 합니다. 가능하면 채집해 온 곤충이 죽기 전에 그림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맨 먼저 곤충의 눈부터 그리고 색을 칠합니다. 일단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이 다하면 눈과 몸의 색깔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관찰하고, 사진 찍고, 기록하고, 다시 스케치하는 과정은 참 힘이 듭니다."

부지런히 작업을 해도 한 달 동안 작은 그림 두 세 장 그리는 것이 전부다. 그렇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면 반드시 그림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급해지거나 답답한 생각이 들면 오히려 붓을 내려놓고 잠시 다른 일을 한다. 서둘렀다가 잘못되어 되돌아오는 것보다 느리지만 바르게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여유롭기 때문이다.

그는 어떻게 세밀화를 그리게 되었을까? 추계예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딱 6개월만 다니자고 들어간 금성출판사에서 6년 6개월간 근무하며 어린이 그림책에 대한 애정을 키웠다.

"그때만 해도 어린이 그림책, 특히 우리 자연과 관련된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보리출판사와 인연이 되어 세밀화 작업을 하게 되었지요."

곤충도감 준비를 위해 곤충 그리기를 시작한 지 6개월 쯤 됐을 때, 그는 특별한 경험을

곤충 기르기 안내서 만들고 싶어



한다. "상점 앞에서 물건을 먼저 사겠다는 달려드는 사람들, 점심시간이면 우루루 몰려 나오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아장 아장 걸어다니는 아기까지 모두가 곤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느꼈죠. 살아가는 모습이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엔 다 똑같은 생명체라는 사실을요. 그 느낌들을 제 그림에 고스란히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세밀화 그리기를 '나의 길'이라고 표현한다. "화가로서 훌륭한 회화 작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 것은, 정성스럽게 그린 내 그림이 여러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 아이들이 간접적이나마 자연을 경험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따뜻한 감성을 키워 갈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는 <곤충과 작은 동물>(가제)이라는 어린이 책 작업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곤충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다. 하지만 그가 진정 꿈꾸는 것은 책을 통해 이뤄지는 만남이 아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곤충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곤충을 장난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애정을 느끼고, 꿈틀대는 곤충과 눈도 마주하면서 생명의 소중함 깨달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번 작업이 끝나면 어린이들이 생활속에서 곤충을 길러볼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 사진=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발명특허원 15826호

어머니 청국장 발효기(菩土)

– 진이 잘 나지 않으면 배상하여 드립니다.



◇가 격 : 77,000원
(종균, 볏짚, 약콩 1회용 포함)
◇모델명 : KT-870
◇발효용량 : 276 × 305 × 322
◇사용전압: 220v
◇정격소비전력 : 73w
◇무 게 : 3.7kg



제품의 특징
◇생으로 먹을때는 낫도, 찌개로 먹을때는 청국장으로 만들 수 있다.
◇냄새를 안나게 할 수도, 진하게 할 수도 있다.
◇무염 발효식으로 염도 조절이 가능.
◇질 좋은 국산콩을 선택하여 청국장을 만들 수 있다.
◇요구르트는 너무나 잘 된다.

우리콩운동본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25-1 신청 : Tel.(033)481-4894

펀치볼 서리태(속청) 할인판매!
◇무농약 고랭지 콩이라 맛이 좋습니다.
◇밥에 검은 물이 들지 않습니다.
◇항암 효과로 알려진 「아이소 플라본」이 평야지 콩보다 무척 많이 들었 있습니다.
◇가격 12,000원(Kg당) 할인 → 9,000원

지금 펀치볼에는 새역사가 펼쳐집니다.
– 6개의 무농약 콩 작목반, 120만평의 콩단지 조성

● 온 라 인 : 농협 123-17-000466 정 락 훈

릴레이 수행일기



성광문

군산 인쇄소 대표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다. 엄청난 폭설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83년 겨울 어느날 오후, 설경의 정취에 취해 있던 내가 갑자기 엄습해 온 삶의 허무를 느끼며 무작정 찾아 나선 곳이 군산시 근교에 있는 은적사였다.

그런 인연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게된 필자는 불교 공부를 하며 지옥중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의 대원(大願)을 접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실천을 하리라는 발원을 하게 됐다. 그래서인지 군산지역의 불자들과 함께 '지장회'라는 모임을 만들면서 초대 회장을 맡아 10여년 간 지장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독송해 왔다. 일을 하다가도 틈만 나면 지장보살님을 관하며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중얼거리며 길을 걷거나 잠을 자다가도 지장보살님을 생각하면 그저 흥이 나고 가슴이 설레였다.

그 후 지금까지 10여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지장보살님 전에 예경과 108배, 30분간의 지장정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지장정근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새벽에 '지장보살'을 외우면 일터에서 근무하면서도 정근이 이어지는 듯하다. 그래서 새벽 정근을 할 때면 하루의 서원을 함께 담게 된다.

"어제 즐겁고 좋은 하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만 저에게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는 항상 '지장보살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항상 남 앞에서든, 사업상 고객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넘치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몇해전 신년 인사차 군산 관음사에 들린 필자는 주지 재곤 스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웃에 대한 봉사,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인욕 등 육바라밀의 실천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다.

이때부터 남을 위한 봉사를 통해 수행해야겠다는 판단아래, 지난 95년부터는 군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재소자 교화활동에 나서 남사 법당에 음향시설 및 비디오 시설을 갖추어 주거나 여사 법당을 조성해 재소자들에게 새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자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 군산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매년 여름 선풍기 30대를 보시하고 겨울에는 연탄난방 세대 50세대에 연탄 200장씩을 보시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애써 보기도 했다. 또 필자가 운영하는 업체인 아주실업의 전체 직원 45명중 12명을 정신지체장애인으로 고용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신규 채용시에도 장애인을 우선 채용해 장애인 사회복귀와 처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까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지장보살의 원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나보다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속에서 지장보살의 큰 서원을 느낄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지장보살과 닮아가려는 노력을 내 수행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지장보살 닮기' 원 세워 노력
교화, 장애인 복지 통해 수행

관음정근 삼매로 깨달음 추구



◇600여 불자들이 8일 관문사에서 철야 관음정근하며 자성불과 하나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수백명 동시 하는 염송 잠쫓고 기운 돋아
일하고 수행하는 가풍 실생활에서 실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8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면산 기슭에 자리잡은 관문사에서는 밤새도록 관음 정근이 계속되고 있었다. 거대한 7층 건물 위에 대불보전을 전통양식으로 앉힌 이 사찰은 천태종 도심포교의 상징이자, 최근 떠오르고 있는 기도명소이기도 하다.

염불 소리가 울려퍼지는 4층 옥불보전에 올라가니 600여 불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앉아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관음 염송' 삼매에 빠져있었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4시까지 진행되는 철야 관음정근에는 평일 400여명, 주말 또는 1주일 특별정진 기간에 600~800여명의 불자들이 용맹정진중이다.

기자는 신도들과 같이 관음 정근을 해보았는데 집중이 잘 되었다. 600여 신도들이 동시에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공명(共鳴)이 잠을 쫓고 기운을 돋구는 역할을 하는 듯했다. 일부 신도들은 졸음을 이겨내기 위해 큰소리로 외우거나, 108배를 겸하며 관음정근을 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중년 또는 할머니 보살님들과 함께 청년, 장년층 거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 이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신도들의 정근을 이끌었다.

새벽 3시반이 되어 예불을 올릴 때까지 절반의 신도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정진의 열기는 대단했다. 매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과 후에 따로 정진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찰의 불자들이 보면 발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처럼 천태종 신행의 구심점은 관음 정근에 있었다.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上月圓覺: 1911~1974) 대조사는 종단의 소의경전인 법화경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중요시 하고 전 종도들에게 이 경문을 수지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생각생각에 잊지 않고(念念不忘)' 각자가 1백만번 이상 지성으로 부르라고 교시(敎示)한데 기인한다.

그래서인지 천태종에는 기도와 수행을 열심히 하는 말뚝 신도들이 많다. 처음 개인적인 고난을 이겨내거나 기복을 위해 정진하던 불자들이 법화경 6만9천384자의 뜻을 함축한 '관음주송'의 위신력을 체험한 후 새로 발심해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을 얻어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게 된다. 관문사신도회 하성훈(55, 서울 응봉동) 교화위원은 "관문사 금강불교대학의 교리 공부가 신도들을 기복신앙에서 수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음 정근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빨리 일념-무념의 삼매에 드는 수행방편 가운데 하나다. 천태종에서는 이런 원리 때문에 관음 주송을 '설선(說禪)'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은 "관세음보살이든, 아미타불이든 일념이 되게 부르면서, '염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관하면 참선과 다름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원효 스님이 '나무 아미타불'을 방방곡곡 전했듯이, 선지식들이 후학들을 쉽게 공부하도록 이끈 방편이 관음 정근이다.

관음 정근에 열심인 관문사 신도중에는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는 것은 물론 무아의 상태와, 자성불(自性佛)이 관세음보살과 하나되는 경계를 체험한 신도들이 적지 않다. 관문사 신도회장인 배두출(70, 안양) 교법사는 "흔히 관음 정근을 낮은 차원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지만, 무아의 상태에서 삼매를 체험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이만한 방편이 없다"면서 "특히 절하기를 병행해 관음정근을 해보면, 업장을 소멸하고 힘을 얻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철야정진에 참여한 관문사 신도들은 천태종 수행종풍인 '주경야선(晝耕夜禪)' 즉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수행하는 가풍을 실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이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등 천태종 3대지표 가운데 하나인 생활불교를 말한다. 신도들은 가정에서도 아침, 저녁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며 '생활즉 불교, 불교 즉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02)3460-5314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관문사의 '관음정근'

관문사 주지 춘광 스님

'관세음보살' 1송은 법화경 1독의 공덕

"법화경 6만9천384자의 의미는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집약되어 있고, '관세음보살'이란 명호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관세음보살'을 주송하는 것은 법화경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공덕과 수행효과를 나타냅니다."

관문사 주지 춘광 스님(천태종 교무부장)은 천태종의 관음주력은 천태지의(538~597) 대사의 수행법 가운데 하나인 원돈지관(圓頓止觀)의 네 가지 삼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원돈지관 수행법은 부처님의 사념처관 중 마음을 관찰(觀心)하며 진리를 통찰하는 수행법으로서, 천태종은 상행삼매(常行三昧), 상좌삼매(常坐三昧), 반행반좌삼매(半行半坐三昧), 비행비좌삼매(非行非坐三昧) 등 4종삼매 가운데 '비행비좌삼매'를 중시한다. '비행비좌'라고 하는 것은 몸이 행주좌와에 걸리지 않고 자유로워 어떤 때나 어떤 곳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미이다.

"언제 어디서나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주송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이러한 수행으로 "삼독심과 온갖 번뇌를 멸하고 발원의 성취와 깨달음을 추구할수 있다"고 말했다.



수행 캘린더

■수선회 참선교육=수선회는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및 오후 7시에 제59기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3월 18일 참선의 자세, 25일 참선의 종류, 25일 선종 발달사, 4월 1일 화두의 중요성, 8일 화두 참구법 등. (02)732-5960

■성주사 니르바나정진=경남 창원 성주사는 기도 및 고승 설법, 백팔참회 등으로 진행하는 니르바나 정진대법회를 연다. 법문 일정은 12일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13일 전 해인사 주지 도성 스님, 14일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홍선 스님, 15일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 16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 17일 조계종 대강백 각성 스님 등. (055)262-0108

■호두마을 3월 수련=천안 호두마을은 3월 14~16일(정원 법사), 17~23일(혜연 스님), 28~30일(정원 법사) 3월 수련회를 연다. 호두마을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2박3일간 주말수련회도 연다. (041)567-2841

■부처님 호흡법 수련=양평 법왕정사 주지 청견스님은 3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3시 서울 강남 청호불교문화원 7층 대법당에서 부처님 호흡법을 수련한다. 호흡에 맞춰 절하기, 참선, 독경, 행선, 위빠사나, 업장소멸 진참회 등을 지도한다. (031)771-7745

■외국인 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부산 남산 국제선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4시에 외국인 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기초반 및 선무도반을 연다. 3월 30일 오전 10시 무심 스님(논산 무상사) 초청법회도 연다. (051)518-7913

■14기 근본불교학교=붓다빠라 스님은 3월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위빠사나, 참선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제 14기 근본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서울 지혜선원(011-9557-8730)=화 오후반 2~4시, 저녁반 7시30분~9시30분, 보라매법당서 △부산 다보선원(055-331-6118)=금 오전 10시30분~12시30분, 오후 7시30분~9시30분, 토 오후 4~6시 △대구 지혜선원(053-255-0442)=목 오전 10시30분~12시30분, 오후 7시30분~9시30분 △대전 지혜선원(055-331-6118)=수 오후 2~4시, 7시30분~9시30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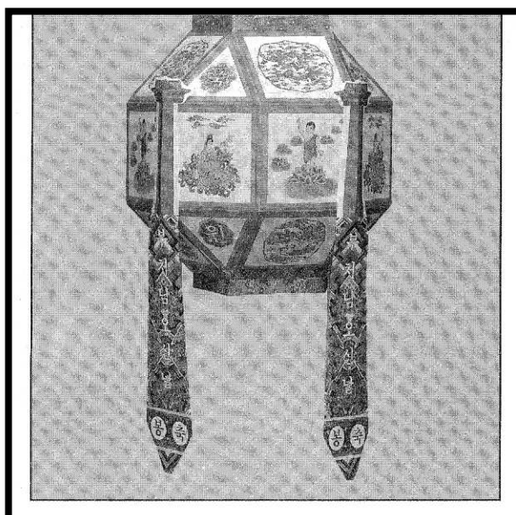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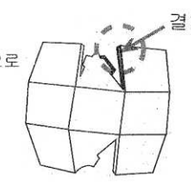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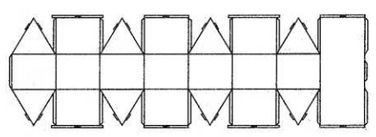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 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 : 02)467-1513 핸드폰 : (016)552-9360

"좋은일 하도록 인연 맺어줍니다"

바라밀현장

진여회의 불우 이웃돕기 전시회

2월 25일 불우시설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아름다운 마음의 만남전'이 열리는 대구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밀양 선우사 석지현 스님의 공예작품 10여점을 비롯해, 생활한복, 그림, 도자기와 한지공예 등 지역 중견작가들로부터 기증받은 예술공예작품 120여점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는 이강영 대구문화예술회관 직장협의회 회장과 석지현 스님 등 1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시 수익금 전액 복지시설에

이 행사를 주최한 진여회 회장 이상숙 보살을 비롯해 10여 회원들은 바쁘게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시종일관 싱글벙글이다. 지난해 첫 전시회 때는 전시할 작품을 기증받으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곤욕을 치러야 했지만, 그간 진여회의 선행이 알게 모르게 널리 알려져 이번 전시회에는 중견작가들이 서로 자신들의 수작(秀作)을 기증했기 때문.

후원금 모금을 위한 전시이지만 마구잡이식 판매가 아니라 후원자들이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원하는 작품을 골라 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작품의 배치에서부터 조명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중증장애 아이들의 집인 룸비니동산, 대구경북척수장애인협회, 작은예수회 등의 복지시설에 전액 기증될 예정이다. 이상숙 회장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보시와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은 불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 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여회는 지난 99년 4월, 경북불교대학의 1~3기 졸업생들이 부처님의 정법을 여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찾던 중, 사회봉사활동이 가장 좋은 실천행이라 생각해 결성한 봉사 모임이다.

진여회가 주로 하는 일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지체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매월 일정액의 정기후원이나 밑반찬, 가사서비스 등. 작은 봉사모임이지만 진여회 식구들은 굳이 회원 한사람 더 늘리려고 매달리지 않는다. 주변의 한사람이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불우한 타종교인에도 도움 손길

그러기에 미용 기술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복지시설 등에 미용서비스를 하도록 연결하고, 음식 솜씨가 좋은 이를 만나면 반찬을 만들어 불우이웃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끈다. 또, 돕고는 싶지만 시간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정기적인 후원자로 만들기 위해 1대 1 후원을 주선하기도 한다.

진여회 회원들은 "절이나 참선 등 자기 수행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라는데 동감하고 있다. 소외받고 고통받는 중생을 하나라도 더 돕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뜻에서 봉사에 발벗고 나선다.

또, 한국불교가 대승불교라 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이웃의 고통은 외면해 왔다고 말하는 진여회 회원들은 자신들이 돕고 있는 복지단체나 대상자가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개의치 않고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 종교가 어떤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불교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포교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 진여회 회원들의 모습이 진정한 봉사란 무엇인지 되새기게 한다.

대구=박원구 기자



◇진여회 회원들이 기증받은 전시 작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진여회 이상숙 회장

"보살행이 바로 불교공부예요"

처음 진여회를 꾸리고 봉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가장 걸리는 것이 종교의 문제였다고 말하는 진여회 이상숙(51, 도연행)회장. 이 회장은 "우리부터라도 이런 불합리한 일을 바꾸어보자는 뜻에서 종교를 가리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장애인들은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서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애인은 금강경을 외울 정도로 불교에 관심도 많고 절에 다니고 싶지만 실제로는 생계를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서 불교계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활동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불자라고 하면서 봉사활동 하나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불교 공부와 보살행의 일치를 거듭 강조했다.

心 마음비추기

마음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

혜해 선사에게 불경을 강의하는 법사 온광이 찾아와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안목에 대해 물었다. 선사는 "허공은 영특한 지혜를 내지 못하고, 구하는 마음이 많으면 근기가 천박하며 경계를 당해 마음이 일어나면 선정이 부족한 것이고,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면 외도이며, 마음 안에서 도를 구하면 마귀니라." 고 했다. 온광 법사가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겠군요." 라고 하자, 혜해 선사는 "그러나 끝내 온광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했다.

<전등록>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이 꼭 갖추어야 할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마음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 즉 올바른 소견이다. 선사가 말한 '허공은 영특한 지혜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수행은 마음을 비워 허공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는 풀이다. 사람들은 흔히 도의 경지를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서 마음을 완전히 비운상태로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미워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 갈등을 일으킨다. 이는 수행에서 얻어야 될 지혜의 성품까지 없애는 잘못된 공부이므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구하는 마음이 많으면 근기가 천박하다'는 것은 마음공부 역시 욕심을 앞세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도를 보아야 하겠다는 욕심, 수행에 대한 집착 또한 욕심이므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경계를 당해 마음이 일어나면 선정이 부족하다' 한 것은 수행자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경과 역경에 마음이 흔들리는 까닭은 선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계란, 육근에 포착되는 바깥 모습들이다.

마음공부는 경계를 보되 경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면 외도이다' 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온갖 법이 갖추어져 있는데 따로 도를 얻겠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마를 좇아가면 외도가 될 뿐, 평생을 지나도 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마음 안에서 도를 구하면 마귀' 라 한 것은 이번에는 자기 마음을 절대화 시켜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따로 있다는 소견을 짓는 경우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지 말라니까, 자기 마음 안에 다시 집착한다. 즉, 자기 마음속에 현재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떠나 따로이 절대적인 부처자리가 있다고 여기고 찾으려 한다. 이는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외도보다 더욱 위험한 견해로써 마귀 종자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이 마음을 두고 어떤 특별한 마음을 찾으려면 그 마음을 돌이켜 쉬면 그 마음 그대로가 도인 것이다.

적연(유마선원장)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페마 최된(미국 샴발라센터 원장) (下)

종교라는 틀에 매이지 않는 가르침

페마 최된 스님의 스승으로서 서구에 티베트 불교를 전한 선구자였던 트룽파 린포체(Trungpa Rinpoche: 1939~1987)는 1970년 미국으로 온 이후 전세계에 100여개의 명상센터를 세웠다. 그는 콜로라도주 볼더시에 서양 최초로 티베트에서 인가받은 불교대학인 나로파불교대학과 샴발라센터를 설립하고 격월간지인 <샴발라 선(Shambhala Sun)>도 발간했다.

70년대초 은사 트룽파 린포체를 만난 페마 스님은 74년에 칼마파 스님으로부터 사미니계를 받았으며 80년부터 콜로라도 주 볼더 시의 샴발라센터 원장 자리를 맡아 사원에 머물며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하게 된다.



◇미 감포사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한 페마스님(앞줄 두번째).

샴발라센터에서 페마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미국 대중의 마음에 가닿는 설법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 샴발라 명상 뿐만 아니라 불교정신이 배어있는 다도, 꽃꽂이 등 불교문화도 가르쳤다. 이는 종교라는 틀에 매이지 않고도 불자를 키울 수 있도록 고안한 프로그램이었다.

샴발라 교육은 밀교 경전에 트룽파 린포체의 설명을 곁들인 5단계의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졌다. 그 과정을 마치면 사회에 만연한 지배의 정치학, 권위주의적 인간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명료함, 온화함, 사랑, 건강한 정신을 키워 불국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샴발라교육 이념에 따라 1974년 설립된 나로파불교대학 역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유명한 비트 문인 앨런 긴즈버그, 심층 생태학자 그레고리 베잇슨, 하버드 교수였다가 구루(요가의 스승)가 된 램 다스 등 뛰어난 강사진들이 명상, 기공, 탱화, 다도, 티베트어, 산스크리트, 중관철학, 심리학 등을 가르치고 밤에는 시낭송회, 공연, 세미나 등을 열기도 했다. 이러한 열린 도량은 '정신의 우드스탁 축제'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23년이 지난 후 나로파불교대학은 정식대학 인가를 받아 학사 및 석사학위를 수여할 정도로 성장했다. 비트 문인들이 대거 참여한 나로파 문학프로그램은 늘 성황을 이뤘다. 나로파의 석사학위는 불교학, 글쓰기, 노인학, 참여불교, 명상심리치료학 등 다섯 분야에 주어진다. 나로파의 학생들은 전원 명상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인근의 병원, 양로원, 말기환자 호보소 등에서 실습하며 학점을 따도록 해 불교를 현장의 삶에 적용하는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페마 스님은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이론과 실천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러한 명상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문화에 티베트 불교 붐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페마 스님은 자신을 명의 · 명교수 역할을 하도록 이끈 스승을 이렇게 회고했다. "스승께서는 가끔 복도에서 나를 불러세우고 난데없이 말씀하시곤 했지요. '너무 종교적이 되지는 마라. 지나치게 종교인인 척도 말고.' 그 말씀은 내가 풀어야 할 화두처럼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법문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샴발라 선>과의 인터뷰 중에서) 김재경 기자

명상 프로그램 통해 불교 붐 조성 큰 역할



◇스승 트룽파 린포체로부터 서구인들에게 맞는 포교방법을 배운 페마 스님은 명상과 문화, 사회봉사의 접맥을 통해 티베트 불교 붐을 조성했다.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 망해사 · 귀신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Homepage :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

무릉산 일도사 극락보전 점안 대법회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세계 10여개 불교국가의 200여 불상과 불교유물을 종합전시하는 세계불교박물관 노천법당을 운영하고 있는 무릉산 일도사는 금번 새 법당 불사를 원만회향하는 극락보전 점안대법회를 봉행하오니,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3년 3월 30일 일요일(음력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경북 영덕 무릉산 일도사 극락보전 대법당**
◎ 연 락 처 : **종무소 054)733-8786**
◎ 홈페이지 : **HTTP://WWW.ILDOSA.COM**

☞ 찾아오시는 길



대한불교무릉산 **일 도 사**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6번지



화엄삼매

보현보살은 백가지 삼매를 설하면서 보살이 갖가지 삼매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든 법계에 가득 찬 삼매의 신통변화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설하고 난 후, 삼매에 들어간 보살들의 경계를 자세히 설하고 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 보살들은 모두 큰 지혜와 신통을 구족했으니, 밝고 예리함이 자유자재하여 여러 지위에 머물며, 광대한 지혜로 모든 것을 두루 보고, 모든 지혜의 성품으로 났으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항상 앞에 나타나서 어리석은 가림을 떠난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었느니라

여러 중생을 다스리는 스승이 되어 부처님처럼 평등하게 머무르며, 모든 법에 분별이 없으며, 경계를 분명히 통달하여 세간의 성품이 고요하여 의지한 데 없음을 알고, 모든 부처의 국토에 두루 나아가지만 집착이 없으며, 모든 법을 관찰하나 머무름이 없고, 모든 묘한 법의 궁전에 두루 들어가나 오는 바가 없으며, 모든 세간을 교화하고 조복시켜 여러 중생에게 편안한 곳을 나타내었느니라. (중략)

널리 부처님을 뵙는 마음은 싫어할 줄 모르고, 부처님 법신은 이미 자유자재하며, 교화할 중생을 따라 몸을 나타내니 한 몸이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하였느니라. (중략)

이 보살들이 부사의한 법의 광명을 얻었으므로 당연히 이러한 불가설 부처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큰 신통변화로 장엄한 구름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보더라도 삼매에 들어간 보살들의 경계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입법계품에서는 부처님의 경계를 보살들의 다양한 삼매로써 나타내는 데 커다란 특색이 있다. 언설로써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는 부처님 깨달음의 경계를 보살의 삼매로써 증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화엄경>에서의 비로자나부처님은 법을 깨달아 그것과 하나가 되어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시방세계에 편만하면서 본원력(本願力)으로 끊임없이 광명을 발하며 활동하시는 부처님이다. 이러한 부처님을 근거로 해서 화엄의 보살도가 시작된다. 화엄삼매(華嚴三昧)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가능하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한의 절대적 존재와 유한의 상대적 존재라고 하는, 이원성(二元性)을 전제로 성립하며 그 이원성을 극복하여 양자가 만나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한다. 대승불교에서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서 마음을 하나의 경계에 집중 통일해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면 만물을 그대로 비추어 낼 수 있게 된다.

하나된 경계로 집중 통일해 진리체득

진실된 귀의, 덕 실현만이 화엄의 삶

삼매는 진리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서 부처님을 보고 만나서 부처님의 경지에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엄경> 십지품에는 '보살은 하나의 삼매를 증득해서 한 부처님을 보고, 일천의 삼매를 증득해서 일천의 부처님을 본다.' 고 하고있고, 십정품에서도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으며, 삼매에서 일어나서도 잘 기억하여 그 법문으로 도량에 모인 대중들을 깨우쳐 주고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한다' 고 설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상을 삼매라고 하는 종교체험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세계를 벗어나 따로 존재하는 어떠한 세계가 아니며, 부처님들만이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한없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실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만나고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우리들이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하는 삼매에 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부처님께 귀의해서 그 공덕을 찬탄하면서 부처님의 덕을 실현하려고 하는 삼매의 마음과 노력이 있다면, 하나 하나의 삼매가 그대로 부처님의 생명을 자신에게 꽃피워내는 화엄삼매의 삶이 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⑥

화엄의 교상판석

언어는 일반적으로 세계를 구성하고 기술하는 수단이다. 어떤 대상을 지시하고 의미를 발생시킨다. 화엄에서 말하는 대상이란 사물의 본질로서 이치를 지시한다. 그럼으로써 교설 사이에 내재된 의미를 몇 가지의 단계로 구별하고, 사회적인 관습과 같은 의미체계를 만든다. 이것을 교상판석(敎相判釋), 혹은 의리분제(義理分齊)라고 부른다. 교리의 이치를 판별하고 해석하여 화엄의 우위를 드러내는 방법론이다. 각 교설이 가지는 이치로서 대상을 분별하여 그것의 의미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분제(分齊)는 교설 상에 내재된 의리(義理)를 구별해 각자의 영역을 차별화시키는 작업이다. 차별이란 대상의 한계를 지어서 분별한다는 뜻으로, A는 A가 가리키는 이외의 대상의 배제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소라는 보통명사는 소가 아닌 모든 개념을 배제시킨다. 그러므로 소란 언어는 합당한 뜻과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고, 한편으론 소를 제외한 다른 대상은 엄격하게 배제한다. 이것이 언어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는 가리키는 대상과 일대일 대응관계를 가지면서,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작용을 한다. 이런 뜻에서 대상과의 상응관계를 전통적으로 대응이론이라 불렀고, 타자를 배제하는 작용을 '아포이론' 이라고 불렀다. 중국의 종파불교에서 소위 자신의 교설이 가지는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립된 교판론이란, 실제로는 교설 간의 차별성을 구별해내는 '의미체계' 라 부를 수 있다.

대상·의미에 갇히면 진리 못봐

그러나 화엄철학에서 채용된 이런 교판론을 보조는 간화선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비판한다. 왜냐하면 화엄의 가르침이 아무리 수승하다곤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앎의 장애를 일으키는 사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과 의미에 결과적으로 갇혀버리고, 본래적인 진리를 체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자(無字) 화두의 경우를 보자.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조주스님은 없다고 했다. 왜 없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 '없다는 것' 은 무슨 의미인가? 불성이 '존재하지 않음' 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불성에 대한 '절대적인 있음' 에 대한 언구(言句)가 아닌가? 아니면 세계에 대해서 '일 없음' 을 뜻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사량한다는 의미는 세계를 어떤 논리적인 개념으로 구성하여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곧 '있다' 와 '없다' 는 개념(義)을 통해 그것에 대응하는 세계의 어떤 '실재(理)' 로서 대상을 찾고 그림 그리려는 태도다. 이 습관화된 마음은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의식(見分)과 인식의 대상(相分)이 상호 작용해 특정한 어떤 세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구성력이다. 이것은 내면화된 사회적인 문법체계를 기초로 해 성립된다. 이것이 바로 분별지(分別知)고 화엄의 의리분제(義理分齊)다.

그러나 간화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세계 그 자체(法界緣起)를 경험하는 것(證悟)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사유(知解)로서 허구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효과(功能)가 없다. 이 구성력은 깨달음의 대상을 상정하여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이것을 대혜(大慧)는 '대오지심(待悟之心)' 이라고 했고, 결국 인식의 주객으로 분리된 앎이란 뜻에서 '지해지병(知解之病)' 이라고도 했다. 보조는 이것을 정리하여 '십종선병(十種禪病)' 혹은 '십종지해지병(十種知解之病)' 이라고 했다.

화엄의 법계연기설(法界緣起說)은 그것이 본체론(本體論)이든지, 이원론(二元論)이든지, 아니면 자체연기(自體緣起)라고 이해하든지, 역시 간화선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개념에 의한 이해로, 현실적인 작용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바로 사구(死句)이다. 오히려 참된 법계연기를 인식하는데 장애가 된다. 거기에는 어로(語路)가 있고 의로(義路)가 있어서 처음 발심한 이들에게는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앎의 장애를 이룬다는 것이 보조 간화선의 입장이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물질의 구성

부처님께서 대각을 얻으신 직후, 첫 교리를 설하신 것이 사성제(四聖諦)다. 제1성제 고제에서 인간의 삶은 괴로움(苦)이라 하셨으며, 제2성제 집제(集諦)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다름아닌 집착이라고 했다. 부처님은 모든 사물의 '보이는 부분' 과 '보이지 않는 부분' 을 샅샅이 볼 수 있었으나 중생은 사물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 즉 '보이는 부분' 만 보기 때문에 겉모습에 끄달리게 되고 집착하게 된다고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이제(二諦)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눈에 보이는 부분' 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이 상보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 중생의 눈에만 보이는 부분을 세속제(世俗諦), 중생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부처님 눈에만 보이는 부분을 진제(眞諦) 혹은 승의제(勝義諦)라 하셨다. 이 세속제와 진제는 전연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으로부터 연유한다. 즉 세속제와 진제의 근본은 공(空)이다.

예를 들면, 금강석은 부처님의 눈에는 이제(二諦)로 보여서 겉모습(세속제)도 보이고 속모습(진제)도 보이지만 그것이 모두 공(空)이라 끄달릴 것도 없건만 중생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귀중한 보석으로 보고 집착이 생기고 이로써 고(苦)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과연 모든 물질이 이제(二諦)로 구성되어 있는지 현대의 과학 지식으로 살펴보자. 1900년 12월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빛은 에너지 알갱이 즉, 빛의 양자(量子)가 띄엄띄엄 전달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빛은 파동이라는 설이 인정되고 있었던 때라 빛이 입자로 전달된다는 발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물리학자들은 원자의 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電子)가 또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전자의 이상한 성질을 규명하기 위하여 밝혀낸 학문이 바로 양자물리학이다. 결국 전자의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보어의 상보성 원리를 거쳐 오늘날 양자장(量子場)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양자장 이론이란 전자, 양성자, 중성자 및 광자 등과 같은 소립자는 동전과 같이 앞면과 뒷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자는 앞면에 해당되고, 파동은 뒷면에 해당된다는 이론이다. 동전의 뒷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흔히 장(場)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전자장, 양성자장, 중성자장, 광자장, 쿼크장, 원자장 및 분자장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모든 사물의 근본은 空

장기에도 양자장 존재

인체를 구성하는 장기에도 장기장(場), 조직에는 조직장, 세포에는 세포장,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에는 분자장,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에는 원자장,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및 쿼크 등에는 전자장 및 쿼크장 등이 있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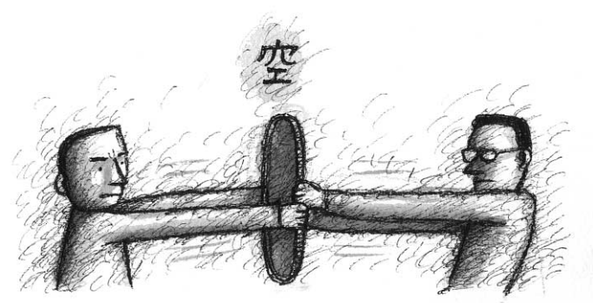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불교예술대학 학생모집

천수바라춤과 공양무를 중심으로 불교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본 불교예술대학은 **김해강 큰스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모든 능력을 제자 진하스님께 전수하여 그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불교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움에 힘쓰고자 하는 분은 함께 동참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우고 인간문화재의 후계자가 되시기기 바란다.

■ **모집인원** : 약간명
■ **교육기간** : 매 3개월 마다 한가지씩 수료함.
■ **수 업 료** : 월 10만원
■ **연 락 처**
02)969-2410 / 02)969-4981

※ 김진하 교수님의 법무(法舞) 비디오테이프가 출반되어 있으니 구입코저 하시는 분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장 김 해 강

제 3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무료교육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 육 과 정**
1. 교리강좌(주1회)
2. 의식과정(주2회) : **기본과정, 중급과정, 범음범패**

■ **모 집 인 원** : 각 반 10명(선착순)

■ **원 서 접 수** : 수시모집

■ **제 출 서 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 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일승불교대학**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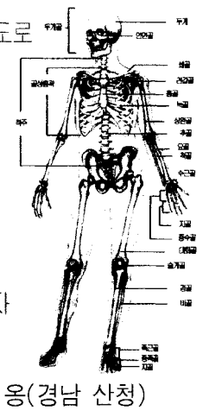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www.chorokwon.com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10화)

"'苦'는 전생의 업이다"

〈출전 : 상응부경전 12. 24〉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새 대통령 취임

전륜성왕의 덕으로 …

새로운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은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선재의 기대는 남달랐다. 그가 겪었던 개인적 역경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슴아파했고 그런 사람들의 힘들이 모여 우리의 대표자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우리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말하는 내용인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하다.

취임식을 보던 선재는 대통령이 전륜성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부처님께서 전륜성왕을 거론하셨을 때에도 꼭 불교를 널리 알리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불교나 정치나 다 사람을 안락하게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면 세간이냐 출세간이냐 차이만 있을 뿐 그 역할은 같아야 한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에서는 '왕 중의 왕을 전륜성왕이라 한다'면서 '이 법왕의 통치는 칼과 몽둥이도 없고 원망도 없다. 법에 의지하여 덕을 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므로 모든 악으로부터 항복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 〈숫타니파타〉에서는 '권세 적은 무사 가문의 사람이 욕망이 커져서 이 세상의 왕위를 얻으려 하면 파멸의 문이 된다'고 경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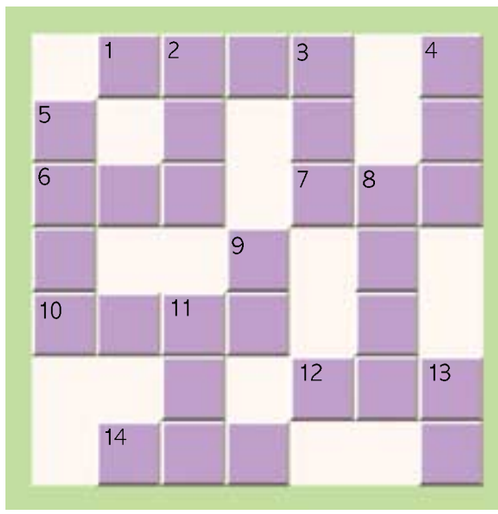
험난했던 지난 세월을 기억하는 선재로서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다.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밧지국을 거론하신 내용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아난다, 너는 밧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가지고 바른 일을 서로 의논하여 몸소 지킨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느냐? 밧지국의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공경한다고 들은 일이 있느냐? 밧지국 사람들이 법을 받들어 삼가야 할 것을 알고 예의를 어기지 않는다고 들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언제나 안온하여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을 것이다."

전륜성왕이 되든지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아시타선인의 예언은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같은 인물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륜성왕이 이 땅을 통치할 때라야 미륵부처님도 도래하신다 한다. 5년후 선재는 미륵부처님을 만나고 싶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가로

1. 보살이 지녀야할 4가지 서원. 법회시 찬불가로도 부름. 6. 번뇌 망상이 없는 그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확신하고 닦는 수행. 상승0. 7. 조선시대 선종시와 함께 시행한 승과의 하나. 10. 선종의 종지로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다는 뜻. 12. 규모가 큰 법회, 경전을 강론하는 큰 법회를 뜻함. 14. 정토에 있는 칠보의 나무와 그 나무에서 나오는 광명을 관함. 한자로 寶樹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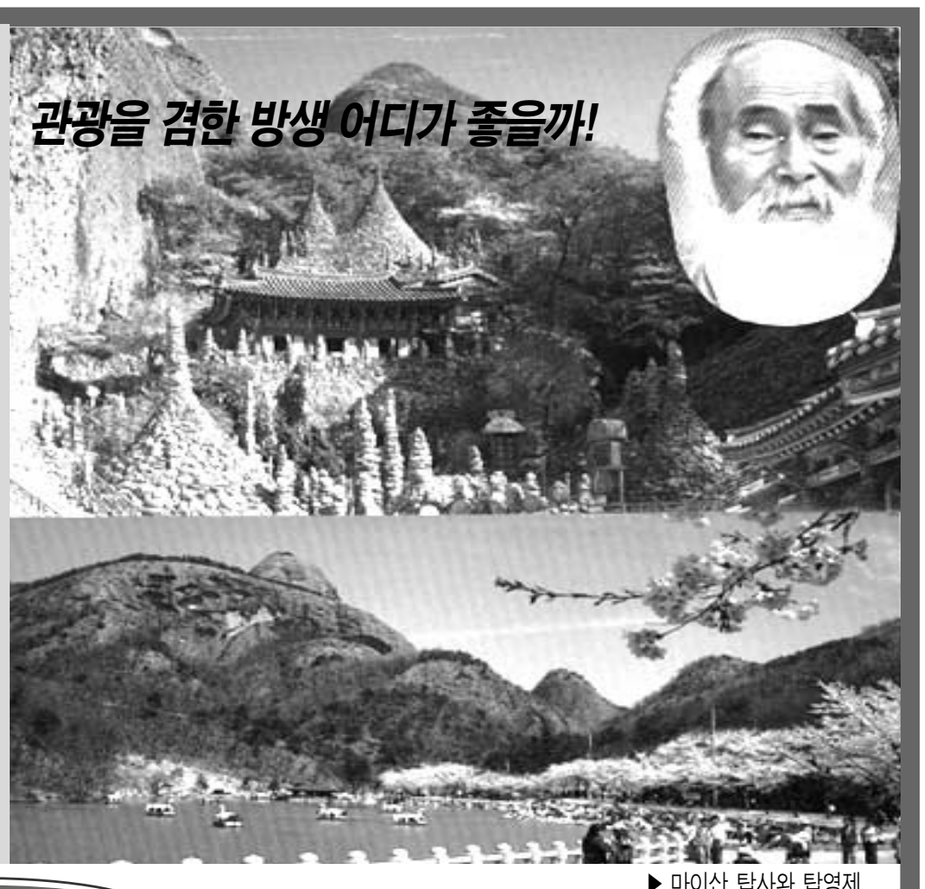
세로

2. 부처님의 광대한 서원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돕고, 괴로움의 바다에서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의 작용에 비유한 말. 3. 1916년 소태산 박중빈이 만든 종교. 4. 보시 가운데 하나로 경전 등 부처님의 말씀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주는 것. 5. 고요한 곳에서 정신을 통일하여 부처님의 상호를 연상하고 거기에 깃들어 있는 공덕에 생각을 집중시키는 염불. 8. 사회로 말하면 헌법과 법률을 뜻함. 9. 수행자를 뜻함. 누더기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사는 수행자의 삶에서 유래된 용어. 11. 문(聞)과 사(思)와 수(修). 문은 불법을 청하여 아는 것. 사는 이것을 스스로 사유하는 것. 수는 불도의 실천. 13. 회광반조의 줄임말. 회광반조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여 수도하는 것을 뜻함.

〈411호「교리퍼즐」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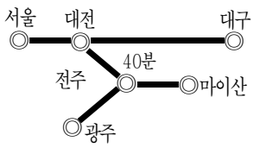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동양종교 · 서양미술이 절묘하게 결합된 문화"

지난 10여년간 우리 학계와 문화계에서도 간다라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불교미술의 기원지로서, 동서문화 교류의 현장으로서 간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와 있다. 지난 99년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간다라 미술대전'의 성공 이후, 간다라 미술은 학문이라는 이름의 사업이나 문화 전시 분야에서도 '좋은 상품'으로 검증받고 있다. 불자들에게도 간다라는 대승불교의 발생지로서, 불상의 탄생지로서 새로운 순례지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인들 가운데도 간다라 미술에 심취하는 이들이 상당수다.

그러나 간다라 도상들을 해설하는 매우 전문적인 책들을 제외하고는 정작 일반 독자들에게 간다라 미술을 체계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책은 지금까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간다라 미술의 권위자인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이주형 교수가 간다라 미술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콘텍스트, 그 현재적 의미 등을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본격적으로 조망하는 <간다라 미술>을 국내 최초로 출간했다.

현재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누마타 불교학 해외 초빙교수로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교수는, 오는 5월 일본의 권위 있는 학술 기관인 동방학회 주최 학술회의에 초청받아 '간다라에서 이용된 대승불교 문헌들과 불교미술의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간다라 미술을 이렇게 정의한다. "인더스 강 중류 지방인 간다라에서 기원 전후부터 수세기에 걸쳐 번성했던 특이한 성격의 불교미술을 간다라 미술이라 칭합니다. 특이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미술의 주제가 대부분 인도에서 태동한 불교에 관한 것임에도, 그 조형 양식은 놀랍게도 주제와 전혀 이질적인, 서방의 지중해 세계에서 비롯된 헬레니즘 · 로마풍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동방의 종교 전통과 서방의 고전미술 전통이 기묘하게 결합된 혼성(混成) 미술이었던 것이지요."

이 책에서 이 교수는 유물에 대한 풍부하고 분석적인 고고학적, 미술사학적 지식, 방대한 불교문헌과 불교사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이해와 능숙한 이용능력을 바탕으로 광대한 간다라 미술의 세계를 객관적이며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간다라 미술 연구자들이 서양 고전 전통과의 관계에 표면적으로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간다라 미술 자체 맥락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그 특성 또한 놓치지 않고 분석한다.

간다라의 불상양식이 서양 고전양식의 영향아래 형성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양식적 원류나 특색을 한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간다라의 불상 조각에는 헬레니즘 · 이란적 요소, 로마적 요소 등 여러단계, 여러 경로로 전해진 외래 요소들이 다양하게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확연히 지역화된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간다라 미술의 개별 사항에 대해 백과사전식 기술이 아닌, 하나의 틀로 엮어지는 유기적인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일반 독자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간다라 미술에 역사적인 콘텍스트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배경 설명을 상세히 하고, 그 결과 미술을 통해 보는 간다라 역사서의 역할까지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역사나 고고학 연구에서 매주 중요시되는 화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도판을 일일이 첨부하는 등 책에서 거론되는 미술품과 지역, 지도 등 총 300여 컷의 도판을 거의 모두 수록했다. 또한 미술사학적 측면에서만 주로 평가되던 불상을 그 종교적 사회적 기능에까지 확장시켜 분석하고 있으며, 붓다와 보살 외에 간다라 미술에 등장하는 여러 신(神)들의 이야기를 통해 간다라에 끼친 불교, 힌두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밝혀내고, 당시 간다라인의 문화, 생활상까지도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간다라 미술'

이주형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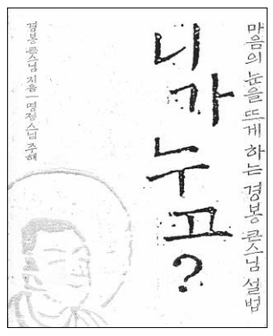
사계절 / 3만2천원



◇사흐리 바흐롤 출토 불좌상(파키스탄 카라치 국립박물관).

역사배경 · 현재적 의미 등 입체적 조명

당시 간다라인의 문화생활상도 소개



'니가 누고?'

경봉스님 지음

명정스님 주해

휴먼 앤 북스 / 1만2천원

참나 찾는 길… 경봉스님 법문집

<니가누고?>는 1979년 출간되어 통도사에서만 55쇄 270만 부가 나간 '경봉 스님 말씀'을, 일반인들이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롭게 주석을 덧붙이고 현대적 감각으로 편집하여 내놓은 경봉 큰 스님의 설법집이다.

성철 스님도 우러러 보았던 대 선사이신 경봉 큰 스님은 1907년 양산 통도사 성해 스님 밑에서 출가 득도했다. 통도사 불교전문강원 원장, 통도사 주지,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이사장, 동화사 · 내원사 조실 등을 역임하면서, 전국의 선승들을 지도하여 선풍을 크게 떨쳤다. 53년 통도사 극락선원 조실로 추대되어 82년 입적하던 날까지 이곳에서 설법과 선문답으로 법을 구하려 찾아오는 불자들을 지도하였다.

"참선은 닭이 알 품듯이 하라" 가르쳐

경봉 스님의 설법은 어렵지 않아 많은 대중들의 마음에 편안하고도 깊숙이 파고들었는데, 수십년간 열린 법회에 늘 천명 이상의 대중들이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경봉 스님은 항상 '참된 나'를 찾으라고 강조했는데, '니가누고?'라는 화두를 들고 자신의 진정한 주인공을 찾는 그 일을 경봉 스님은 순금을 만드는 일에 비유했다. 땅 속에서 금을 캐내어 온갖 잡철을 빼내야 순금이 되어 세계에 통용되는 보배가 되듯이, 우리 마음에 깃든 온갖 삿된 것들을 참선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다.

경봉스님은 또한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쉬운 예를 일러 준다. 닭이 알을 까듯이 하라는 것이다. 닭은 원래 성정이 분주하여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짐승인데, 알만 갖다 안겨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알 품는 그 일에만 전념한다는 것이다. 이게 언제 끝나나, 왜 빨리 병아리가 안 나오나 하는 생각 없이, 오로지 알에 더운 기운을 전하는 일에만 매달려 있는 닭을 본받아 수행에 힘쓰라고 충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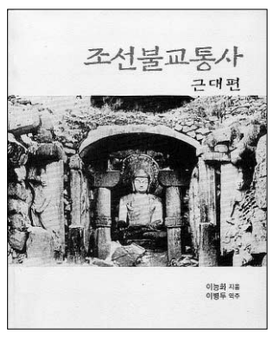
우리나라 불교의 종합史書

'조선불교통사(근대편)'

이능화 지음

이병두 역주

혜안 / 1만8천원



우리나라 불교종합사서로는 현재까지 가장 완벽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능화(1869~1945)의 <조선불교통사-근대편>이 한글로 번역돼 나왔다.

3권 2책으로 된 이 책은 우리나라 각 시대별 불교 역사는 물론, 30본산과 그 말사에 대한 기록, 선종 등 인도 · 중국의 대표적 불교종파 정리, 보우 스님부터 휴정 스님에 이르는 조선 임제종 선맥의 정리 및 고승들의 행장을 집대성하여 기술한, 한문 원문으로만 2,300여 면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이다. 이를 전 파라미타 사무총장 이병두 씨가 현대 한국불교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대불교 부분들을 꼼꼼히 강독, 한글로 번역하고 역주를 붙여 한권으로 묶었다.

근대부문만 뽑아 한글로 번역 ·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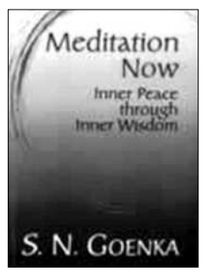
원저의 발간 시기가 조선총독부의 무단정치기이고, 다루는 소재가 근대불교라, 아무래도 조선총독부의 '조선사찰령'이나 '승적정리에 관한 건' 등 사료적 가치가 많은 당시의 불교 관련 정책들을 실어 빽빽한 한문 원문들과 함께 읽기 딱딱한 면들이 많은 점이 있긴 하다.

하지만 백담사에 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10년 3월 "종교 경쟁의 싸움터에서 불교교세 확장을 위해 승려의 결혼을 자유롭게 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중추원과 통감부에 건의하면서, 그 건의서 중에 "남녀 사이의 욕정이란 지혜 있는 이나 바보나 공유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대목에서 시를 쓰는 시인의 풍모가 드러나는 등 흥미로운 일화들이 실려 있다. 또 당대 각 절의 고승들을 소개하는 장면들에서는 사전 나열식 경력 소개가 아닌, 멋들어진 비유와 풍류가 곁들여진 옛 문장들에서 품격과 흥취도 느낄 수 있다.

해외불서

현재 명상

인도의 고엔카(S. N. Goenka) 법사는 북미 대륙에서 떠오르는 스타 중의 한 사람이다. <현재 명상: 내면의 지혜를 통한 평안(Meditation Now: Inner Peace through Inner Wisdom)>은 지난해 여름 침대차를 이용한 고엔카 법사의 '전법여행'에 맞춰 발간된 책이다. 위빠사나와 종교, 지혜, 자유, 본성, 과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고엔카 법사의 실제적인 관점을 담은 이 책은 '고엔카 위빠사나'의 입문서 역할을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이지만, 그는 마음의 벽을 허물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위빠사나는 삶의 기술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나 독단, 철학, 신념 등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고엔카는 1956년, 명상을 통해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미얀마의 우바킨(Sayagyi U B Khin) 법사로부터 위빠사나를 배웠다. 이후 인도에 명상센터를 세운 고엔카 법사는 1979년부터 해외 전법을 시작했다. 이로부터 700여 지도법사들이 90여 개국에서 '10일 명상'을 무료로 지도하고 있다. 미국 '위빠사나 연구 출판사' 펴냄.



김재경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화	틱낫한	명진출판사
2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시아문
3	니가누고?	경봉 스님	휴먼앤북스
4	산은 사람을 기른다	윤제학	도피안사
5	얼굴	이지엽 외	고요아침
6	천수다라니와 붓다의 가르침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7	지허 스님의 차	지허 스님	김영사
8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김재경	마당넓은집
9	화엄경	법정 스님	동쪽나라
10	아비담마 길라잡이	대림 ·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 (02)737-0695

정초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좋은 책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우룡 큰스님 지음
신국판 / 값 6,000원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4×6판 / 값 3,500원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 자세, 방황하는 영가를 올바르게 천도하여 주변을 다스리고 복을 쌓는 방법,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 도 新編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일타큰스님 주변의 기도 성취 체험담 총 52편을 모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한 부처님의 가피를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수 있게 됩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 뿐만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에서 누리는 행복,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감히 불교신앙의 결정판이라 자부하며, 불자들의 1독을 권합니다.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게 풀이 되어 있는 이 책은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바라는 분들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 김현준 편역 / 값 5,000원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부록-지장보살예찬문

참회 · 참회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I 업장과 참회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III 절을 통한 참회
IV 참회염불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VI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김영두 옮김

소나무 / 2만5천원

1558년 명종 13년 10월, 퇴계 이황은 지금의 국립대 총장 격인 성균관 대사성이었다.

그리고 고봉 기대승은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한 청년이었다. 퇴계는 58세, 고봉은 32세에 불과했다. 무려 26살 차이다. 청년 고봉은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 길에, 당시의 대학자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퇴계를 찾아가, 평소 자신이 가진 철학적 소신들을 거침없이 질문하면서 논쟁을 시작했다. 고봉의 이런 파격적 행동은 오로지 열정과 패기만으로 세속적 편견을 뛰어넘은, 과감한 도전이었다.

더 놀라운 건 퇴계의 대응방식이다.



경륜·직위 초월한 ‘영혼의 교류’

26세 차이 퇴계·기대승 13년간 논쟁·토론
‘사단칠정논변’ 등 사상·학문·안부 등 담겨

퇴계는 청년 고봉의 두려움 없는 열정을 받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급제를 달성하고 귀향하는 고봉에게 먼저 편지를 띄웠다. 그해 겨울 퇴계가 고봉에게 첫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후로 두 사람의 편지 교환은 1570년 12월 퇴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3년 동안에 걸쳐 끝없는 애정과 상호 존중의 자세로 계속 되었다.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는 바로 두 사람의 이런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사소한 반성에서부터 당시의 지성계를 뒤흔든 폭발적인 논쟁에 이르기까지를 다루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로, 조선 중기 사상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옮긴이 김영두 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편지는 일상의 안부나 소식을 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학문적 논쟁의 터전이었고 자기 성숙의 매개체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편지는 요즘 관점으로 보면, 안부 편지일 뿐 아니라 학술 논문이기도 했으며, 자기와 세상을 되돌아 보는 성찰이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편지를 통해 그들의 생활뿐 아니라, 사상의 전개, 가치관, 정치적 지향 같은 다양한 내용을 읽어낼 수 있다. 한 마디로 그들의 삶을 가장 종합적이고 다양한 각도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최선의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는 또한 당시 이미 몇 차례의 사화(士禍)를 겪으면서도 점차 정치적 주류로 부상하고 있던 사림(士林)의 정치적 고뇌와 의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과, 충성스런 신하로서의 정치적 참여에 헌신하려는 포부가 함께 교차하고 있는 조선조 중기 지식인들의 고뇌 어린 대화는 그 어떤 정치이론서보다 더 살갑게 다가온다.

퇴계와 고봉의 편지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네 가지 선한 단서와 일곱가지 감정에 대한 논쟁(四端七情論辯)’이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질적인 논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논쟁했던 것은 인간의 심성과 선악에 대한 탐구였고,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철학적 문제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단지 한두 차례의 논쟁으로 서로의 의견을 다투는 데 머무르지 않고, 수년 동안의 공부와 탐색을 통해 정밀한 철학적 개념들을 확정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로의 다른 의견을 억측이나 권위로 강변하지 않고, 언제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사색하고 토론했다는 점에서, 길이 남을 철학논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지성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논쟁과 우정의 기록인 이 서한집은 동아시아의 다른 어떤 유교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위와 경륜의 장애, 지역간의 한계를 모두 초월한 위대한 정신과 영혼으로부터 전해진 메시지란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몽골 침입… 국난극복의 기록

佛畵·팔만대장경 간행 인쇄술 소개

‘고려생활관 2’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지음

사계절 / 1만6천8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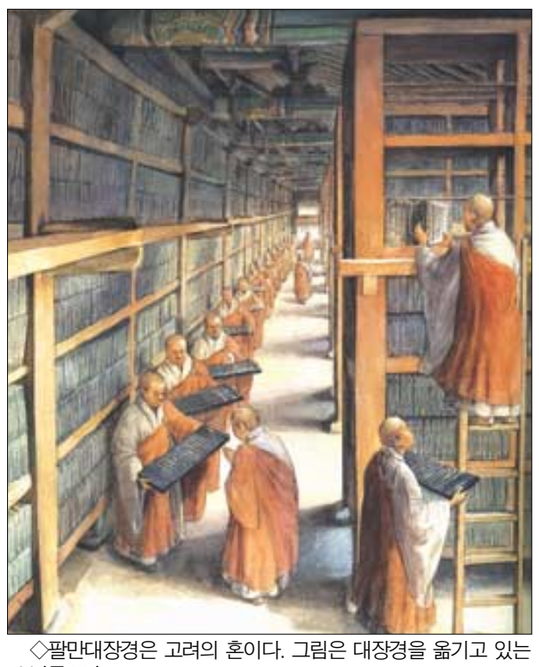
고려가 없었으면 아마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 발전해 오던 우리 조상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로 모아 민족의 토대를 다진 고려인, 거대한 외세에 맞서 국토와 주권을 지켜낸 고려인의 파란만장했던 삶. 그 전모를 두 권에 담은 <한국생활사박물관-고려편>이 완간됐다.

몽골군의 침입 앞에서도 고려인은 의연함을 잃지 않고 맞서 싸우며,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완성했다. 몽골 제국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간섭의 손길을 100년 동안이나 뻗어 왔지만, 고려인은 나라의 주권과 문화적 자존심을 지키며 그들 자신의 길을 갔다. 민족의 자랑인 세계적 문화유산들을 창조하고 온갖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내어 우리에게 전해준 자랑스런 고려인. 그들을 <고려생활관 2>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는 사계절출판사가 직접 기획하고, 역사학·고고학·민속학·인류학· 등 관련학계 전문가들과 수많은 미술진이 참여하여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우리 민족 생활사를 총체적으로 재현할 예정이다. 그 여덟 번째 권인 이 책은 ‘생활사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말해 주는 것처럼 그저 역사적 사실을 나열해 놓은 여느 역사책과는 다르다. 보통사람까지 망라한 고려인의 생활상을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입체적·시각적 구성을 통해 총체적으로 되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생활관1>이 호수와 같은 포용력으로 여러 갈래의 생활 문화를 하나로 녹여낸 고려 다원 사회를 탐방했다면, 이 책 <고려생활관2>는 몽골의 침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역사의 명맥을 지켜낸 위대한 나라 고려를 찾아간다.

불교를 이야기 하지 않고 고려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 책에는 당시 고려 불교의 다양한 모습도 담겨 있다. 이은자 기자



◇팔만대장경은 고려의 혼이다. 그림은 대장경을 옮기고 있는 스님들 모습.

전문가 서평

‘대한민국사’

한홍구 지음

한겨레신문사 / 1만1천원



근대사 비밀 파헤친 대중역사서

태극기 첫 도안자·김두한의 실체 벗겨

<각주와 이크의 책읽기>(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도서평론가 이권우는 책을 읽는 이유와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눈다. 각주의 책읽기와 이크의 책읽기가 그것. 전자는 독자의 감성이나 가치관을 옹호해주는 책읽기를 일컫고, 후자는 독자가 새로운 사실에 눈 떠 무릎을 치며 감탄하는 책읽기를 말한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역사에세이 <대한민국사>는 대부분의 독자에게 이크의 책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만큼 이 책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역사의 비밀이 수두룩하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 관련 내용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한다.

임시정부의 정통성 계승론부터 살펴보자.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이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대사 전공 역사학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 한홍구 교수의 진단이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쑥쓰럽기 때문이다.” 인물의 계승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둘째 치고,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해온 정책과 임시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정책 사이에 거리가 너무 먼 까닭이다.

임시정부의 구성원은 독립운동 진영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었으나,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나 헌법은 매우 전향적이었다.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통해 토지국유화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천명했고, 헌법인 ‘임시헌장’에서는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이 남에 출현한 어떤 진보정당의 정강정책보다 급진적인 것이었다.”

한홍구 교수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민족해방운동에 진력했던 다른 정파들의 역사적 의미를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한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 측면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제대로 계승했더라면’ 하는 상념에 빠지기도 한다. “적어도 그런 정부라면 통일을 지향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어떤 특권세력에 의한 부와 권력의 독점을 용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주성을 갖는 정부이기 때문일 것이”기에.

태극기의 탄생과 상징성에 대한 실증적인 추적은 독자의 무지를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박영효가 일본에 사신으로 갈 때 태극기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태극기의 첫 도안자가 누구인지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한홍구 교수는 마건충과 김홍집 사이에 오고간 필담을 담은<청국문답>을 근거로 태극기의 도안자로 청나라 사신으로 조선에 와 있었던 마건충을 지목한다. “1882년 4월 11일 마건충은 김홍집과의 회담에서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조선의 국기를 흰 바탕에 태극 그림을 사용하고 주위에는 8괘를 그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태진손간(兌震巽艮) 4괘를 들어내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남기게 된 사연은 더욱 놀랄만 하다. 일본에 사신으로 건너갈 때 박영효는 일본 국적의 메이지마루 호를 이용했다. 박영효는 이 배에 동승한 조선주재 영국 총영사 애스턴과 조선 국기에 관해 협의했는데, 애스턴은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녀 각국의 국기에 정통한 메이지마루 호의 선장 제임스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박영효는 마건충의 도안대로 8괘가 다 들어가면 복잡하고 따라 그리기 힘들다는 제임스의 충고를 받아들여 4괘를 들어냈던 것이다.

TV드라마의 영향으로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풍운아 김두한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역사적 평가는 애증이 병존하는 듯 하다. 황당하기는 해도 미워하기는 힘든. 한홍구 교수는 먼저, 김두한을 항일영웅으로 간주하는 것은 웃음거리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김두한은 항일영웅의 아들이지 그 자신이 항일영웅은 아니다.”

한교수는 꼼꼼한 사료추적을 바탕으로 김두한이 발설한 허풍의 실체를 밝힌다. 김두한은 1968년 간행된 〈명인옥중기〉에 실린 회고록에서 자신이 1945년 12월 7일 좌익 계열의 국군준비대를 습격해 1,300여 명을 일시에 참살했다고 자랑스레 떠벌렸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홍구 교수는 “이 시기 김두한은 아편을 밀매하다가 미군정의 단속에 걸려 서대문형무소에서 3개월 가량 옥살이를 한 뒤 출옥하여, 우익이 아니라 좌익 쪽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역사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정확한 문장, 사료의 섭렵, 투철한 역사의식이 어우러진 이 책은 대중적 역사서의 신기원을 개척하고 있다. ■최성일/출판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사〉는 올바른 관점으로 오늘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딪치는 사건이나 제도, 생각 등의 역사적 뿌리를 찾아보고자 한 책이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썼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回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回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재질(모직)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조끼·몸배

누비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순면누비 ₩160,000

잔누비



8. 셔츠 ₩50,000 (차이나형, 라운드형)
바지 ₩60,000

셔츠



라운드형 차이나형
₩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중간)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참선교육 59기 안내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불법 만나기 어렵고 참선법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참선교육 59기를
개최하오니 인연 있는 분은 교육에 동참 바랍니다.

일 자	교육내용
3월 18일(화)	참선의 자세
3월 25일(화)	참선의 종류
3월 25일(화)	선종발달사
4월 1일(화)	화두의 중요성
4월 8일(화)	화두참구법

● 시 간 : 오전 10시, 오후 7시
● 동참비 : 3만원
(참선교육 간이교재, 선종발달사 도표, 참선교육테이프 6개 포함)

대한불교조계종 修禪會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9 / Tel. 02)732-5960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ㄱㄴㄷ



부파불교의 절대화 흐름(6)

부파불교의 발전과 실체론적 흐름은 다양하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존재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고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법체항유(法體恒有)설이라 말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설일체유부는 득(得)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득이란 어떠한 인식의 대상이 제법의 흐름 혹은 '개체적인 상속(相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득이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을 추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득이란 일체유부의 사상체계 속에서는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대상인 실체법(實體法)이며, 명백하게 인과를 만드는 궁극적 원인이었다.

부연 설명하면 득이란 과거에 얻어지지 않은 것, 또는 과거에 잃었던 것을 획득한 것으로써 획득한 뒤에 잃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득이란 개념은 스스로 지속성과 항상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득의 개념에 의해 법과 개아(個我)의 지속성 사이의 영속적인 결합이 다시 설명될 수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득이란 개념은 분명 푸드갈라(개아), 혹은 아트만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이유로 정진합니다. 득이 과거에 어떻게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었다. "의지가 마음의 과정을 흔습하여 그 속에 어떤 잠재성을 만든다. 뒤에 특정 결과가 생기는 것은 이러한 잠재성의 변화의 차이를 통해서이다," 비록 찰나적인 행위 자체는 소멸될지라도 이러한 행위에 의해 흔습된 마음의 과정은 잠재성의 특정한 변화를 통해 선근이나 악과(惡果)를 얻는 것이라 말한다.

경량부 이론은 어느 정도 대중부나 화지부의 사상과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업의 결과는 흔적없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실법(不失法)의 주장이다. 즉 마음의 과정 속에서 부실(不失) 또는 적취(積聚)라 하는 마치 기독교 신의 속성과 같은 스스로 존재하는 특정한 법을 설정하고 있는 정량부의 사상과 흡사하다. 미래에 지불해야할 부채가 기록되고, 또한 미래의 결과가 실현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실법 때문이다.

훈습이란 일상 언어에서는 냄새를 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전문용어인 이 말은 성향, 자연적인 공능, 심리적 과정 속에 스며든 과거경험의 잔여작용, 사고 습관 등을 일으키는 이전 경험의 인상 등을 의미한다. 또는 이것은 마음 속에 잠복해 있다가 언젠가 작동하게 될 의지작용의 '잔여 인상'이라 정의할 수도 있다.

법체항유설에 득 개념 도입

부파불교, 무아설과 다른 입장

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경량부에서는 득 대신 종자(種子), 훈습(薰習), 종성(種性)이란 개념을 중시하게 되었다. 종자설의 목적은 상속(相續)의 고정적 속성을 끊나성과 융화시키려는 데 있었다. 경량부는 욕정을 버릴 때 그 욕정의 득(得)이 소멸한다는 설일체유부의 사고를 부정했다. 욕정에 관한 한 성자는 도의 힘에 의해 그 의지하는 것 [所依=āśraya]이 전환되어 이전의 그것과 달라지게 된다고 본다. 즉 도에 의해 욕정이 완전하게 소멸해 버리면 욕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불에 탄 종자가 타기 이전의 종자와 달리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성자가 의지하는 것의 욕정을 생기게 하는 종자를 더 이상 지니지 않게 된다는 사고다.

경량부는 찰나-찰나 변하는 의식의 흐름을 넘어 존재하는 의지하는 것[소의(所依)]을 설정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의지하는 것[소의]이란 푸드갈라의 또 다른 표현으로써 심리적 물리적인 유기체, 혹은 일체의 근기를 지니고 있는 식체(識體)이며, 식과 그것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 사물의 의지처인 것이다.

이러한 가정 위에서 한 행위가 비록 소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었다. "의지가 마음의 과정을 훈습하여 그 속에 어떤 잠재성을 만든다. 뒤에 특정 결과가 생기는 것은 이러한 잠재성의 변화의 차이를 통해서이다," 비록 찰나적인 행위 자체는 소멸될지라도 이러한 행위에 의해 훈습된 마음의 과정은 잠재성의 특정한 변화를 통해 선근이나 악과(惡果)를 얻는 것이라 말한다.

경량부 이론은 어느 정도 대중부나 화지부의 사상과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업의 결과는 흔적없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실법(不失法)의 주장이다. 즉 마음의 과정 속에서 부실(不失) 또는 적취(積聚)라 하는 마치 기독교 신의 속성과 같은 스스로 존재하는 특정한 법을 설정하고 있는 정량부의 사상과 흡사하다. 미래에 지불해야할 부채가 기록되고, 또한 미래의 결과가 실현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실법 때문이다.

훈습이란 일상 언어에서는 냄새를 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전문용어인 이 말은 성향, 자연적인 공능, 심리적 과정 속에 스며든 과거경험의 잔여작용, 사고 습관 등을 일으키는 이전 경험의 인상 등을 의미한다. 또는 이것은 마음 속에 잠복해 있다가 언젠가 작동하게 될 의지작용의 '잔여 인상'이라 정의할 수도 있다.

법체항유설에 득 개념 도입

부파불교, 무아설과 다른 입장

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경량부에서는 득 대신 종자(種子), 훈습(薰習), 종성(種性)이란 개념을 중시하게 되었다. 종자설의 목적은 상속(相續)의 고정적 속성을 끊나성과 융화시키려는 데 있었다. 경량부는 욕정을 버릴 때 그 욕정의 득(得)이 소멸한다는 설일체유부의 사고를 부정했다. 욕정에 관한 한 성자는 도의 힘에 의해 그 의지하는 것 [所依=āśraya]이 전환되어 이전의 그것과 달라지게 된다고 본다. 즉 도에 의해 욕정이 완전하게 소멸해 버리면 욕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불에 탄 종자가 타기 이전의 종자와 달리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성자가 의지하는 것의 욕정을 생기게 하는 종자를 더 이상 지니지 않게 된다는 사고다.

경량부는 찰나-찰나 변하는 의식의 흐름을 넘어 존재하는 의지하는 것[소의]을 설정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의지하는 것[소의]이란 푸드갈라의 또 다른 표현으로써 심리적 물리적인 유기체, 혹은 일체의 근기를 지니고 있는 식체(識體)이며, 식과 그것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 사물의 의지처인 것이다.

이러한 가정 위에서 한 행위가 비록 소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었다. "의지가 마음의 과정을 훈습하여 그 속에 어떤 잠재성을 만든다. 뒤에 특정 결과가 생기는 것은 이러한 잠재성의 변화의 차이를 통해서이다," 비록 찰나적인 행위 자체는 소멸될지라도 이러한 행위에 의해 훈습된 마음의 과정은 잠재성의 특정한 변화를 통해 선근이나 악과(惡果)를 얻는 것이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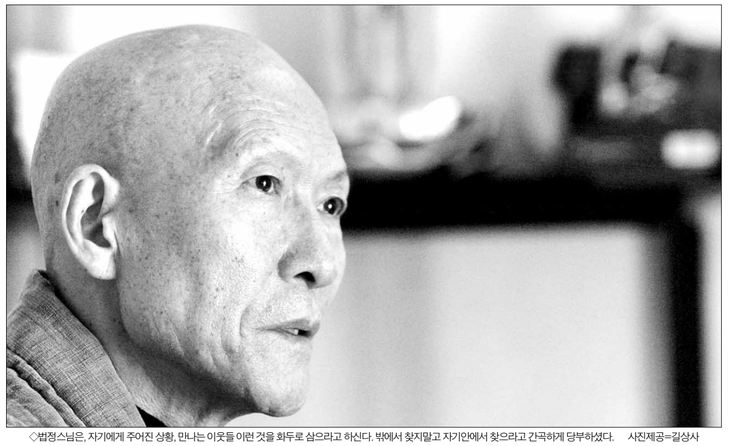
경량부 이론은 어느 정도 대중부나 화지부의 사상과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업의 결과는 흔적없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실법(不失法)의 주장이다. 즉 마음의 과정 속에서 부실(不失) 또는 적취(積聚)라 하는 마치 기독교 신의 속성과 같은 스스로 존재하는 특정한 법을 설정하고 있는 정량부의 사상과 흡사하다. 미래에 지불해야할 부채가 기록되고, 또한 미래의 결과가 실현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실법 때문이다.

훈습이란 일상 언어에서는 냄새를 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전문용어인 이 말은 성향, 자연적인 공능, 심리적 과정 속에 스며든 과거경험의 잔여작용, 사고 습관 등을 일으키는 이전 경험의 인상 등을 의미한다. 또는 이것은 마음 속에 잠복해 있다가 언젠가 작동하게 될 의지작용의 '잔여 인상'이라 정의할 수도 있다.

지상 백고좌

법정 스님

(길상사 회주)



◇법정스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만나는 이웃들 이런 것을 화두로 삼으라고 하신다. 밖에서 찾지말고 자기안에서 찾으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셨다. 사진제공=길상사

"순간 순간 자신을 돌아보세요"

산사에 가면 신발 벗어놓는 댓돌위에 조고각하(照顧脚下) 라고 쓰인 주련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밑을 살피라' 는 뜻이지요. 신발을 잘 벗어 놓으라는 뜻도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자기의 존재를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스스로 살펴보라는 법문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당나라 때 '대매법상(大梅法常, 752~839)' 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일찍감치 온갖 경전에 통달한 분이라고 해요. 하지만 많이 아는 것이 말재주나 늘릴 뿐 마음을 깨치는 데는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마조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 선지식을 만나니 평소 늘 의문인 것을 묻습니다. "입만 벌리면 부처가 어떻고 보살이 어떻고 하는데 도대체 부처가 뭡니까?" 하고, 아주 간절한 물음이에요.

마조스님은 "네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답해요. '부처를 묻는 네 마음이 곧 부처' 라는 거예요. 즉심즉불(卽心卽佛), 심즉불(心卽佛)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대답에 법상스님은 그동안의 의문이 다 풀리고 크게 깨닫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지녀야 되겠습니까?" "그대 스스로 잘 보호해 가져라." 법상스님은 그 길로 곡식과 채소 종자를 구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는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승의 한 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법문의 위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강경 법화경 등등 많은 경전이 있고, 다 좋은 말이지만 모두다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아니지요. 수많은 경전 말씀 중에서 한 두 마디라도 마음에 닿아서 나에게 깨우침을 준다면 그것은 평생 나의 정신적인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경전을 독송할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평생 내가 먹고 쓰고 활용할 수 있고,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을 얻게 하여지이다'는 염원으로 경전을 독송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독경법입니다.

대매산으로 들어간 법상스님은 조그만 초막을 짓고 살면서 좌선을 염십히 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더 닦을 것이 있는가 하겠지만 바로 앞앞이에 참으로 닦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의하십시오. 닦을 수(修) 행할 행(行), 수행(修行). 닦는 행은 일시적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깨닫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의 일이지만 닦음은 지속해야 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잡미묘한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이고, 닦지 않으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본래 밝은 바탕을 지니고 있지만 가만히 놔두면 더러워지듯이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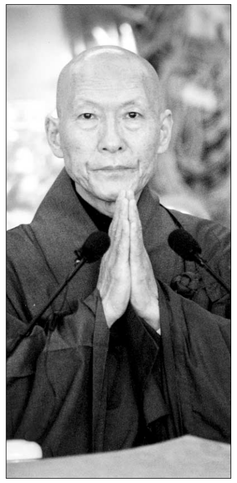
법상스님은 잣나무 열매를 먹고, 연잎으로 옷을 해입고, 8치(24cm) 높이의 쇠로 만든 소탑을 머리위에 올려놓고 참선에 정진합니다. 좁지 않고 늘 깨어있기 위해, 오로지 수행에만 몰두하기 위해서지요. 그렇게 40여년이 지났습니다.

한 자리에서 40년을 지낸다는 것은 대단한 저력입니다. 요즘 수행자들 중에는 한 두 철 하다가 소식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한 집에서 몇 대가 계속해서 살았어요. 요새는 이런 저력이 없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떠나요. 한 터에서 오래 살아야 그 터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 덕(德), 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요. 자연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상과 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도량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 바로 그 수행자가 그 곳 자연처럼 살게 됩니다. 탐력이 귀하기도 했지만 원래 선방에는 탐력을 두지 않아요. 수행자는 과거나 미래에 살지 않고 오로지 현재를 최대한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지난 세월에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을 내려간 젊은 스님은 자기 스승에게 겪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 스승이 바로 40여년 전, 마조 회상에서 법상스님과 같이 공부한 염관스님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바로 40여년 전 '즉심즉불' 법문을 듣고 종적을 감춘 법상스님이 틀림없어요. 하여 다시 제자를 산으로 올려 보냈지만 법상스님은 더욱 깊은 산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조스님도 제자를 보내 법상스님을 찾아 질문을 던집니다. "이전에 마조스님을 만나 무슨 도리를 얻었기에 이 산중에 숨어서 사십니까?" "마음이 곧 부처라 했기 때문이네." 제자가 "마조선사는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非心非佛)'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법상스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놈의 늙은이, 사람을 홀리고 있다. 비심비불이라고 하건 말건 내알 바 아니다. 나는 오직 즉심즉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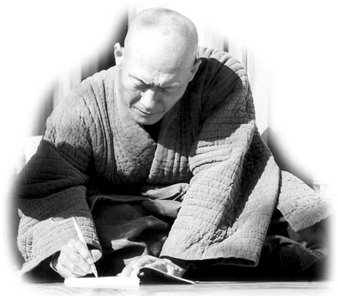
이 말을 전해들은 마조스님은 감탄을 합니다. "매실이 다 익었구나!"



산을 내려간 젊은 스님은 자기 스승에게 겪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 스승이 바로 40여년 전, 마조 회상에서 법상스님과 같이 공부한 염관스님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바로 40여년 전 '즉심즉불' 법문을 듣고 종적을 감춘 법상스님이 틀림없어요. 하여 다시 제자를 산으로 올려 보냈지만 법상스님은 더욱 깊은 산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조스님도 제자를 보내 법상스님을 찾아 질문을 던집니다. "이전에 마조스님을 만나 무슨 도리를 얻었기에 이 산중에 숨어서 사십니까?" "마음이 곧 부처라 했기 때문이네." 제자가 "마조선사는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非心非佛)'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법상스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놈의 늙은이, 사람을 홀리고 있다. 비심비불이라고 하건 말건 내알 바 아니다. 나는 오직 즉심즉불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마조스님은 감탄을 합니다. "매실이 다 익었구나!"



◇생명력을 잃은 관념적인 화두로 하는 참선은 진정한 참선이 될수 없다고 강조하시는 법정스님.

가까이서 마주치는 이웃
하루 몇번씩 닥쳐오는 상황
이것을 화두로 삼아야

법정 스님은

순수·무소유정신에 철저
'오두막 편지' 등 저서 다수

변하지 않는 침묵과 무소유의 철저함으로 '이 시대 가장 순수한 정신' 으로 꼽히는 법정스님은 1932년 生으로 1954년 송광사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56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송광사 조계총림 수련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사)참고항기협계와 길상사 회주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수필집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 <오두막 편지> <서 있는 사람들> <인연 이야기>등과 번역서 <화엄경> <숫타니파타> < 진리의 말씀> <불타 석가모니>등이 있다.

신앙생활 자기확신 뒷받침 돼야

내적 체험 함께할 때 공덕의 꽃

다. 조주, 백장, 임제.. 위대한 선지식들은, 그들이 살던 지명(地名)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 지니고 있는 덕, 기운을 다 받아들인 것이니 그 지역 이름이 곧 그 곳에서 수행한 스님의 이름이 된 겁니다.

40여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산길을 찾고 헤매다 법상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풀옷을 입은 스님을 보고 그 젊은 스님은 "대체 이 산에 들어와 산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고 물습니다. "산넓이 푸르러졌다가 누래졌다가 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선방 다닐 때만 해도 선방에 달력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가도, 누가 "참선보다 염불이 낫다더라", "염불보다 참선이 빠르다더라" 이러면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이 하고있던 수행방법을 바꿔버려요.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있다가도 지장보살이 더 영험 있다고 하면 얼른 바꿔버리고..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기 확신이 없으면 이리 저리 쏠리게 마련입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화두 치워, 이걸 해야 돼 하면 기존에 들던 화두를 버리고 새 것을 합니다. 새 화두를 든다고 오래 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그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예요. 마음이 문젭니다.

'마음이 부처' 라는 말,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 입문한 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처를 다른 데에서 찾고 있어요. 마음 밖에서 말입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마음은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적인 체험이 없으면 관념밖에 안됩니다. 확고한 믿음이 내적인 체험을 통할 때 공덕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단지 믿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으로 자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래야 안팎으로 하나가 되지요.

법상스님은 85살로 입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였습니다. 사람을 피해 40년이나 숨어 살면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옆매는 제대로 익어야 제 구실을 할 수 있지 익기 전에는 옆매의 구실을 할 수 없어요. 수행자는 때로는 높은 봉우리에 우뚝 설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깊이깊이 바닷물에 잠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사람을 피해 살던 법상스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식을 찾아 밖으로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마음과 몸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미 굳어져 생명력을 잃은 관념적인 화두를 붙들고 허송세월해서는 안됩니다. 활구(活句)가 아닌, 죽은 화두로는 진정한 참선을 할 수 없습니다. 관념화된 것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까이서 늘 마주치는 이웃, 하루에 몇 번씩 부딪치는 상황,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방에서 '이 뭣고' 하는 것만이 화두가 아닙니다. 팔 화(話) 머리, 두(頭). 팔의 행위가 곧난 언어도단의 경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의문을 화두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저마다 다 화두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만나는 이웃, 이런 것들을 화두로 삼을 때 비로소 산(生) 화두가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비심이야말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산 화두입니다. 자비심이 곧 부처고 보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리심과 자비심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바로 나의 스승입니다. 스승은 다른 곳에 있지 않

볼수록 아름다운 우리문양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사진으로보는 한국미-무늬' 펴내



◇신흥사 명부전 문의 '빗살꽃 무늬'



◇관룡사 대웅전 불단의 '꽃, 새'.



◇얼굴무늬 수막새

건축·공예·석불등 307점, 용어도 쉽게 한글로

사진작가 안장헌(56)씨가 30년 동안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우리 산하 곳곳을 발품 팔아가며 앵글에 담아 정리한 문양집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우리 곁에 전해졌다.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 스님)이 기획한 '사진으로 보는 한국미-무늬'(호영 刊)는 지난해 12월 경주 남산의 문화재 사진집 '석불-돌에 새긴 정토의 꿈'(한길아트 刊)을 발간한데 이어 두 번째 사진집이다.

"한국의 전통문화 특히 불교문화 속에 새겨진 여러종류의 무늬들을 원형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문화예술 산업의 전반에서 재창조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고유의 무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한국의 전통무늬를 건축, 금속공예, 석조, 불상 등으로 크게 나눠 3백7점의 컬러사진에 담았다. 여기에 이기선 불교조형연구소장이 각 문양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무늬 용어도 최대한 한글화했다. 이 소장은 이 책에서 "불교의 무늬는 꾸밈과 가꿈의 미학"이라며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마르지 않는 젖줄"이라고 불교의 문양을 극찬했다.

이 사진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문양은 '얼굴무늬 수막새'에 드러난 현대적이고 파격적인 조형미다. 이를 그대로 사진집에 옮기기 위해 카메라의 앵글 맞추기를 수십차례. 조소작품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섬세함을 잘 표현했다. 마치 바로 옆에서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다.

마곡사 대광보전문의 소슬꽃 무늬와 빗살금강저 무늬 창호, 내소사 대웅보전의 소슬꽃 무늬 창호, 성혈사 나한전의 소슬꽃무늬 등의 탁월한 미감을 찍어 놓은 것도 안씨 특유의 촬영 노하우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불교문화재는 보면 볼수록 더욱더 새롭고 아름답다는 안장헌씨는 "앞으로 단청, 범종, 수원 화성, 사찰의 수문신장, 부도 등을 소재로 상반기 안으로 10권 정도를 묶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값 2만8천원.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타악 뮤지컬 '야단법석' 무대에

30일까지 연강홀서

97년 호암아트홀에서 초연한 '난타'는 식당 요리사들이 펼치는 에피소드와 사물놀이의 리듬을 결합한 타악 퍼포먼스로 국내외에서 지금까지 1백 26만명이 관람했을 정도로 '상품화한 대중예술'의 대표격이었다. 이 기세를 몰아 서울 종로5가 연강홀에서 30일까지 무대에 올려지는 타악뮤지컬 '야단법석'도 스님으로 분장한 젊은 타악연주자들이 벌이는 일종의 난타공연이다. 시종 고막을 찢는 듯한 고음의 서양식 난타와는 달리 불교식으로 느린 템포의 선풍(禪風) 타악 연주를 도입한게 다르다.

공연 제목인 야단법석은 사부대중을 상대로 석가모니가 야외에 단을 쌓고 법문을 설했던 야외법회에서 유래된 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두들기고 춤추는 가운데 자아성찰의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기획 의도가 담겨 있다. 전통음악과 타악연주가 신명나게 펼쳐질 이 공연에는 법고, 운판, 목어, 대종 등 불교사물을 비롯해 목탁과 바라, 죽비 등이 타악기로 대거 등장한다. 특히 크기가 다른 목탁 3개를 나란히 배열해 변형 목탁악기를 설치한 것은 기발한 발상으로 관객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무대위에서 법고, 운판, 목어 등 불교사물을 두드리며 신명나게 춤추는 타악뮤지컬 '야단법석' 공연장면.

느리지만 신나는 템포 '禪風' 연주

이 뮤지컬의 줄거리는 전생에 축생계에 있던 물고기·새·개 등이 사람으로 환생, 산사에서 행자생활을 하지만 전생의 업보에서 벗어나지 못해 좌충우돌하나 결국 음악공양을 함께 하며 남을 배려하는 화음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이야기보다 인물묘사에 비중이 실려 있다. 허공스님은 쉽게 흥분하지만 일단 무엇을 두드리고 나면 흥분이 가시는 스타일. 아공스님은 항상 경전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여유와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는 성격. 무공스님은 모든 일에 멋과 예를 강조하며 '폼생폼사'의 코믹한 행동으로 일관한다. 지난 2월 9일 양평 사나사에서 삭발식을 거행한 스님역할의 배우들은 관객들이 진짜스님인지 여부로 설전을 벌일 수 있도록 역할 소화에 충실하겠다고 의욕이 대단하다. 이외에도 출연하는 단원 대부분은 KBS국악대경연과 전주대사습놀이등에서 장원을 휩쓴 20대 후반의 차세대 유망주들로 구성돼 음악적인 수준은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다.

평일 저녁 7시30분, 토 오후 4시, 저녁 7시30분, 일 오후 4시. (02)929-2183.

김주일기자

류현경 나이프 페인팅 '흔적展'

23~29일 경주교육문화관

넓고 평평한 캔버스위에 아크릴물감을 흠뻑 묻힌 나이프로 밀고 끌면서 그린 강한 흔적들을 한데 모은 류현경씨의 '나이프 페인팅, 흔적展'이 23일부터 29일까지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흔하게 만날 수 없는 독특한 전시회다.

우선 붓대신 나이프를 캔버스에 밀착해 동양화에서 '난'을 치듯 일획씩 밀고 끌며 강한 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자못 흥미롭다. 제목이 '흔적'이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시간이 머물다가 지나간 우리 일상의 흔적처럼 물감의 흔적이 수없이 반복돼 캔버스 위에 차곡차곡 집적돼 있다.



◇류현경씨의 '흔적 V'

미술평론가 박영택씨는 "류씨의 작품은 나이프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굳어진 모더니즘의 틀을 깬 신선한 충격"이라고 평했다.(054)770-9193

문화소식

디지털 장편영화 '뽀삐' 도빌영화제 경쟁부문에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 김지현(34) 감독의 디지털 장편영화 '뽀삐'가 13~1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5회 도빌 아시아 영화제 디지털 경쟁부문과 4월 8일 개막하는 제 27회 홍콩영화제 아시안 DV부문에 진출한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뽀삐'는 10년 동안 기르던 강아지 뽀삐가 죽자 애완견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주인공 수현이 주변에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진돗개 '자비'를 키우는 한 비구니 스님과 죽은 개를 위해 절에서 천도재를 지내는 주인공의 어머니 등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뽀삐의 한 장면.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08:30 라디오 열린마당
12:00 정오종합뉴스
15:05 음악의 마을
17:10 무명을 밝히고
21:00 다시 듣고 싶은 노래
23:05 불교문화산책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2일 12:30 군법당 순례법회
13일 07:40 서옹대종사 특별법문
14일 20:30 구본일의 명상태교 명상육아
15일 23:24 BTN 주간뉴스
16일 17:50 한국의 명찰
17일 21:50 성운스님의 불경강좌

하이라이트

■**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 '조사선의 법맥을 찾아서'(13일 17:10~18:00)-불교계 소식과 화제를 전해주는 불교시사프로그램 '무명을 밝히고'는 13일 동국대학교 선학과 교수 종호 스님을 초대해 한국 조사선의 법맥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진행한다.

■**불교텔레비전**:△서옹대종사 특별법문(10일~17일 07:40, 15:20, 20:00)-부처님 출가절(음력 2월 8일)과 열반절(음력 2월 15일) 기간 동안 '서옹대종사 특별법문'을 방송한다. 이 법문은 서옹 스님이 1999년 동안거 결제 기간동안 백양사에서 <벽암록>을 강의한 내용. <벽암록>은 운문종 선승 설두중현이 <전등록> 1,700 공안 가운데서 수행자의 참구대상이 될 100칙을 골라 하나하나에 게송을 단 '본칙(本則)'에다가 환오극근이 종지나 착안점을 제시한 서문과 단평을 붙인 것.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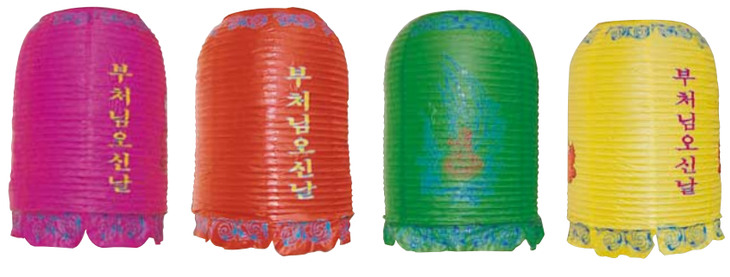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종 등



만월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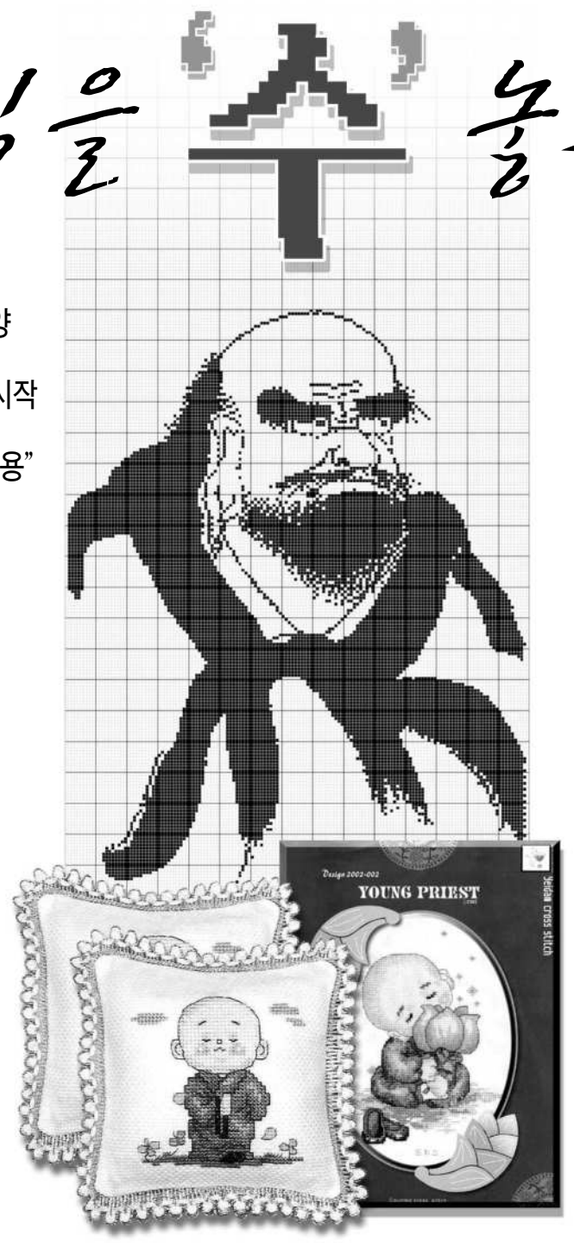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부처님을 '수' 놓으세요

"불교문양 이용 십자수 도안 다양
초보자도 10분 강습후 곧바로 시작
인터넷서 프로그램 다운받아 사용"



◇십자수에 다양하게 응용되는 불교관련 도안들. 사진제공=자수향기

"부모님께 달마도 십자수를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도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요즘 십자수 동호회 '자수향기' 홈페이지(www.crossnet.co.kr)에는 부모님이나 스님,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달마도나 동자승 등의 불교관련 십자수 도안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글이 끊이지 않는다.

십자수란 디자인이 도안된 면사에 열십자(十) 형태로 수를 놓아 완성하는 유럽 자수로, 우리나라에서는 4년 전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재료가 수입되면서 붐이 일기 시작해, 이제는 실내 취미활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동네마다 십자수 전문점들이 문을 열 정도로 십자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불교의 다양한 문양을 이용한 십자수 도안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십자수 전문 인터넷 쇼핑몰인 수사랑(www.sulove.co.kr)이나 꼼꼼자수(www.comjasu.com), 십자수샵(www.sipjasushop.com) 등에서는 20여 종의 불교관련 도안을 판매하고 있다. 달마도와 동자승 도안이 10여종 씩으로 가장 많고 불상이나 관음보살, 승무 등의 도안도 1000원~3000원 선에 구입할 수 있다. 시중에 원하는 도안이 없다면 '자수향기' 홈페이지에서 도안프로그램(PCstitch 6.0)을 다운 받아 직접 도안을 만들 수도 있다. 프로그램 사용법과 그림이나 문구 등을 십자수 도안으로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그렇다면 십자수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십자수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복잡하고 큰 작품이라도 기본 스티치 4가지로 도안에 표시된 색실로 수를 놓으면 완성된다. 초보자들은 집 근처 십자수 전문점에서 10분 정도 강습을 받으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티치가든(www.stitchgarden.co.kr)이나 아트십자수(www.sipjasu.co.kr), '자수향기' 등의 홈페이지에서 십자수 기본 스티치와 세탁 및 건조방법, 도안 보는 법, 실 사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더 다양한 십자수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동호회의 정기 모임이나 백화점, 복지관 등의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십자수에 필요한 기본 재료는 십자수 전용천인 아이다와 수실, 바늘, 도안이다. 아이다는 십자수 전용 원단으로 창살모양으로 나 있는 구멍을 이용해 수를 놓을 수 있도록 고르게 짜인 천으로 짜임이 촘촘하고 느슨한 것이 있으며, 초보자는 느슨한 것이 편하다. 수실은 면사를 주로 쓰며, 자수용 바늘은 끝이 날카롭지 않고 무디며 귀가 큰 '태피스트리 바늘'을 사용한다. 이밖에 수틀이 있으면 놓기가 수월하다.

가격은 한두 가지 도안을 놓을 수 있는 천이 2천~6천원, 실 한 묶음에 4천원, 바늘 1백50원~200원, 수틀이 8천원 선이다. 재료는 십자수 전문점이나 대형할인매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서울 장충동 서울핸즈(02-2264-4252)는 1만여 종류의 십자수 디자인을 갖추고 관련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수향기'를 운영하는 천선정(27) 씨는 "십자수를 하면 인내심과 지구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감도 발달시킬 수 있다"며 "불·보살문양 십자수를 한땀한땀 놓다보면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고 그만큼 정성도 더 들어가게 된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녹두죽

쌀 1컵, 녹두 2컵, 소금 약간

1. 쌀은 씻어 물에 2시간 이상 불린 후 물기를 뺀다. 녹두는 10배 정도의 물을 붓고 1시간 이상 푹 무를 때까지 삶은 후 물을 부어가면 체에 걸러 체에 남은 껍질은 버리고 거른 것은 그대로 두어 앙금은 가라앉힌다.

2. 냄비에 불린 쌀을 넣어 나무주걱으로 가끔 저으면서 끓인다. 쌀알이 완전히 퍼지면 녹두 앙금을 넣어서 잘 어우러지게 끓여 소금으로 간한다.

<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가정용 촛대



불상을 모신 불단에는 어김없이 놓여 있는 촛대.

부처님에게 바치는 촛불 공양은 단순한 등불 공양이 아니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3독(毒)을 없애고자 기원이 담긴 것이다. 때문에 향로와 화병 그리고 촛대를 일러 불단 삼구족이라 한다.

삼독 없애고
기원 담으세요

놋쇠로 만든 '가정용 촛대'는 2개 한 세트가 크기에 따라 3만원~5만원이다.

(02)732-1520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남편의 경쟁의식

"함께 잘사는 길, 수행에 매진하면 보일거예요"

자식 3남매가 경쟁심으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어서 너무도 괴롭다고 하는 40대 중반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부인은 몹시 지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친구의 권유로 절에 나간지 1년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에 가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의식을 치르고, 스님 법문도 제 생활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친구가 절에 가자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따라 가는 것은 절에 가면 제가 부처님으로부터 이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예요. 향냄새가 가득한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면, 부처님이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힘들지?' 하고 묻고 계신 것 같거든요."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울음을 삼키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보였습니다.

20대 중반에 조그만 건축자재상을 하고 있는 남자와 중매결혼을 한 부인은 외관상으로는 여느 가정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 했습니다. 슬하에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이들 셋이 다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녀들 문제로 특별히 속을 썩여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 남편의 사업도 계속 번창해서 지금은 내외가 다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여가를 즐길 만큼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인데 속으로 들어가면 가족 모두가 상처투성이의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암투 때문인데, 암투의 뿌리는 경쟁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삼남매는 아주 어려서부터 서로를 마치 타도해야 할 적처럼 생각하면서 경쟁을 벌여 왔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학교성적은 늘 상위 그룹에 속했지만, 그로 인해서 서로가 받은 상처는 너무도 크다고 했습니다. 아니, 서로가 받은 상처가 큰 게 아니라 서로 상처가 크도록 조종을 당해 온 고통이 너무도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종을 당하면서 살아오다보니 아이들은 저마다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형제는 물론 부모들까지 왕래를 못하도록 통로를 차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고 있으면 마치 바다위에 떠 있는 세 개의 무인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쓰리다는 것입니다.

부인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부인의 말이 이해가 잘 안돼서, 서로 상처가 크도록 조종을 당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그런 조종을 당했다는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아버지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져 옴을 느끼면서 부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결혼 한지 3년도 안돼서 돌바기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과 사별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5년을 혼자 살다가, 3남매를 둔 상처한 남자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6살에 의붓아버지와 의붓형제 밑으로 들어간 부인의 남편은, 경쟁에서 이기는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터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는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터득한 남편은 자신의 인생을 경쟁에서 이기는 쪽으로 몰고 왔다 합니다. 그 덕분에 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특수한 환경이었으니까 남편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아이들한테까지 그런 걸 강요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요. 남편은 아이들이 상대방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경쟁심에 불타있으면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일종의 대리만족 같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가슴속도 아버지처럼 지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절에 다니면서 삼독심에 대한 법문을 듣다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면 진심(嗔心)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부인의 말을 듣고 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불행의 뿌리는 이렇게 가지를 뻗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떤 답을 해줄까? 속으로 궁리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이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 같군요. 그러고 나면 보살님 자신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化緣 (02)704-3577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관음종 총무원장상)

불립문자 직지인심 (중)

■不立文字 直指人心

김동난(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사기꾼에 속은 남편 '수뢰죄' 뒤집어써
막막하던 중 대행스님 친견기회 가져

직장상사로 인해 알게 된 사람이 바로 김덕수였다. 상사는 김덕수가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했단다. 남편은 구청 위생과에 근무해 밤이나 낮이나 위생업소 단속을 다녔다. 나중에 알고보니 김덕수는 사는 곳도 일정치 않고 직업도 없는 '날건달'이며 경마 도박꾼이었다. 남편에게는 고향 후배라며 '형님 형님' 하며 잘 따랐다. 젊은 놈 먹고 살게 해달라고 갖가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며 남편에게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날, 가리봉동에 괜찮은 단란주점이 있는데 신분이 확실해야 세를 주니까 형님(남편을 지칭)이 계약을 해서 동업하자고 제의했다. 형님은 공직자니 형수님 명의로 같이 공증을 해 놓자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이름만 빌려주고 가게에 나올 필요조차 없으며 자기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익금의 60%를 매달 우리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했다.

평생 집과 직장만 오 갔던 남편의 시야가 좁았던 탓일까. 남편은 김덕수 제의대로 따랐다. 몇 개 은행의 카드 가맹을 내 명의로 하여 내주었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믿었는데 김덕수는 점점 집세도 밀리고, 세금 탈세에다 미성년자 고용 등 위반은 있는 대로 저질렀다. 또 돈만 생기면 경마 도박으로 날리고, 우리에게 한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 결국 명의를 빌려준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지금까지도 일체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반씩 분담한 가게 보증금도, 김덕수에게는 돈이 없어 남편이 보증을 서 은행대출을 받아 주었으니 결국은 우리 돈이 다 들어간 것이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인과응보는 한치 어긋남이 없는 진리이다. 어렵게 어렵게 수십차례에 걸쳐서, 대출받아준 원금만 간신히 건졌다. 그런데 김덕수는 천이백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도리어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서에 도착하자 남편은 차에서 기다리겠다며 나보고 혼자 들어가라고 했다. 혼지 들어가기가 싫었고 남편과 같이 들어가서 해결하려 했으나 고집센 남편은 "그 새끼, 보기도 싫다"며 완강했다. 난 왠지 꺼림칙했으나 그것이 그렇게 큰 괘씸죄가 되어 엄청난 일로 이어질 줄은 당시엔 상상도 못했다. 밤늦도록 조사를 받고 나오는 내 뒤에서 형사 한 사람이 "아저씨는 뭐하구 이 밤중에, 더구나 이런 곳에 아주머니 혼자 보내냐?"고 했다. 나는 "시골에 일이 있어 갔는데 늦나 보다"고 둘러댔는데 그 사람은 "괜찮을 겁니다. 괜찮겠죠" 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 생각하니 그 웃음이 남편에 대한 괘씸죄의 서곡이었다.

차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남편은 자초지종을 듣고나서 되려 욕을 했다. 나는 속으로 '남편이 직접 들어가서 "박봉에 먹고살려다 이렇게 되었다... 수고들 하신다" 했으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고집스런 남편에게 늘 지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은 고집이 무척 세다. 마누라 말은 잘 안 듣는 반면, 남의 말에는 솔깃하기 일쑤다. 성격 또한 깔끔하면서도 보수적이고, 잔소리가 많다.

당시 난 한마음선원에 다닌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처음엔 주인공자리를 이해 못했다. '불립문자 직지인심(不立文字 直指人心)' 보다는 교리를 알고 싶었기에, 또 부처님이 좋고 산사가 좋아 찾아다니던 중 조계사 대웅전에서 삼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관음회 신도를 만났다. 20대 초반에 몇 개월 다니던 단체이기도 하다. 관음회에서 법화경을 배웠는데 매우 환희심이 났다. 남편도 나의 불법 공부에 적극 협조해 주어 한결 집안분위기가 밝아졌다. 오랜 세월 경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나니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임을 느끼겠고, 언제 어디서나 불자임을 밝히고 포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어느날, 같이 공부하던 한 보살이 한마음선원에 와서 선(禪)공부 좀 하라고 권했다. 나보다 나이가 위여서 형님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그 보살은 선원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선과 교는 둘이 아니야. 자넨 교학을 했으니 주인공자리가 무언지도 금방 알거야" 하셨다.

이 육신은 주인공의 시봉자일 뿐이니 어디에 내가 있고, 나라고 고집하며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나 있는가. 있다면 공심의 자리일 뿐. 남편이 사기꾼 김덕수를 전적으로 믿을 때 난, "당신은 공무원이야. 공무원이 술집을 하면 사정대상이 되잖아. 이 다음에 혹시라도 나를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 하는 일 없게 해." 하며 훗날 법정시비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머리를 스쳤다. 당신 공직에 오래 있었으니까 잘 알아서 해 하면서도 내키지 않았던 그 자리가 주인공자리인 것을…

이런 저런 상념에 젖으며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불현듯 큰스님 친견을 떠올렸다. 말로만 듣던 대행 큰스님 친견을 하면 살 길이 열릴 것만 같았다. 뵙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급했다. 만안구에 사는 형님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안된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주인공, 되게 해" 하며 긍정적이고 지극한 마음을 내고자 했다. 밤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참회기도를 올렸다. 다음날 아침 난 깨끗이 목욕을 하고 다시 백팔배 참회기도를 올리고 안양 한마음선원에 갔다. 이미 주지 스님 방에는 많은 신도들이 모여 있었다. 각기 딱한 사정을 말씀 드리며 큰스님 뵙기를 원하고 있었다. 나도 긴장된 목소리로 내 사정을 말씀드렸다. 이윽고 대행 큰스님을 친견하게 되었다. (계속)

그림 · 김흥인



김산호 회화극본 부처님

The story of Holy Buddha

제4화 사문유관상 ①

과연 숫도다나 라자의 생각대로 세명의 부인들은 서로 다투어가며 태자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덧 태자도 그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마냥 즐겁기만 했다. 이때 숫도다나 라자는 태자비들을 위하여 작은 세 개의 궁전 말고도 또 하나의 굉장한 궁전을 지어 그 곳에서 태자를 위한 노래와 춤이 잠시도 멈추지 않도록 하였다 하니, 일단 출가(出家)하면 부처님이 되실것이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에 숫도다나 라자가 얼마나 철처히 단속하였던 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라자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 태자의 궁전 둘레에 세 겹의 문을 해 달고 문단속을 엄중하게 하여 한 두 명의 힘으로는 문을 열 수조차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이때의 이야기가 불전 본행경(本行經)에 기록되어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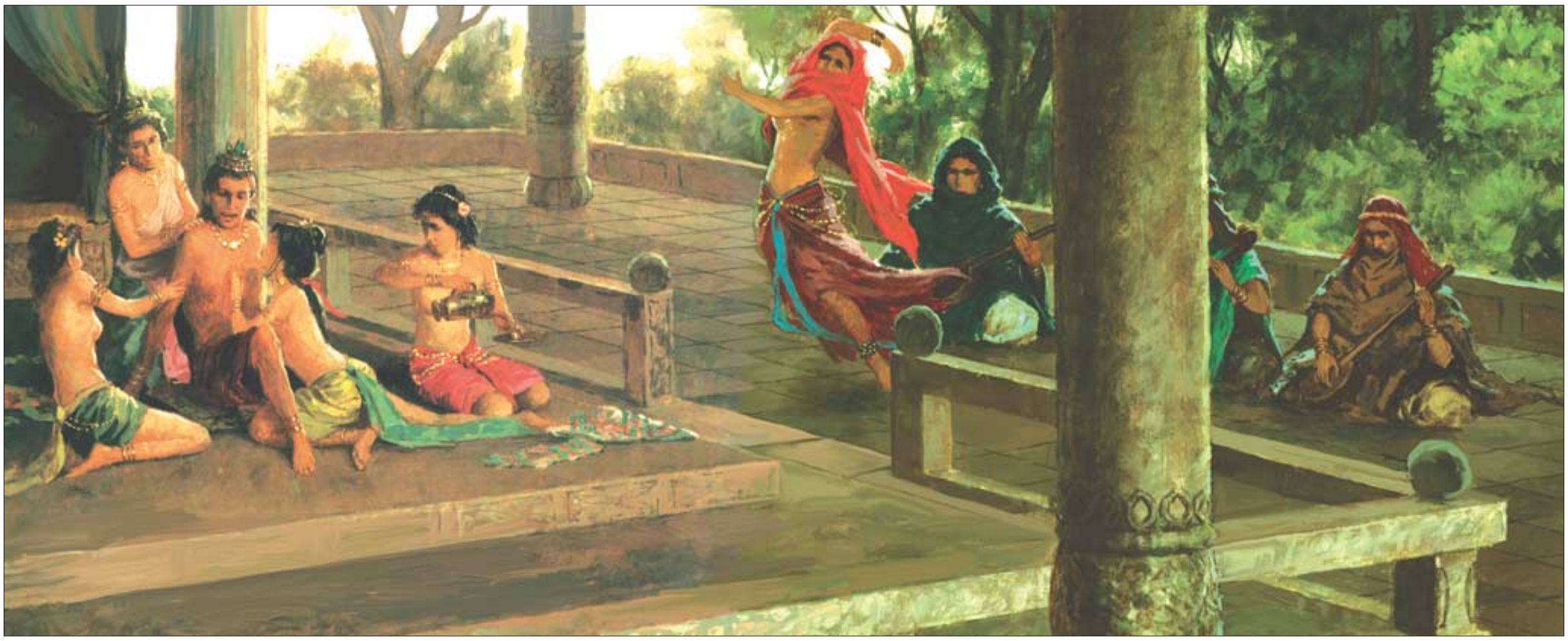
싯다르타 태자가 오욕락(五欲樂)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자 이를 크게 근심한 작병천자(作甁天子)가 게송으로 경책을 써 나이 어릴 때 출가하여 정각(正覺)을 성취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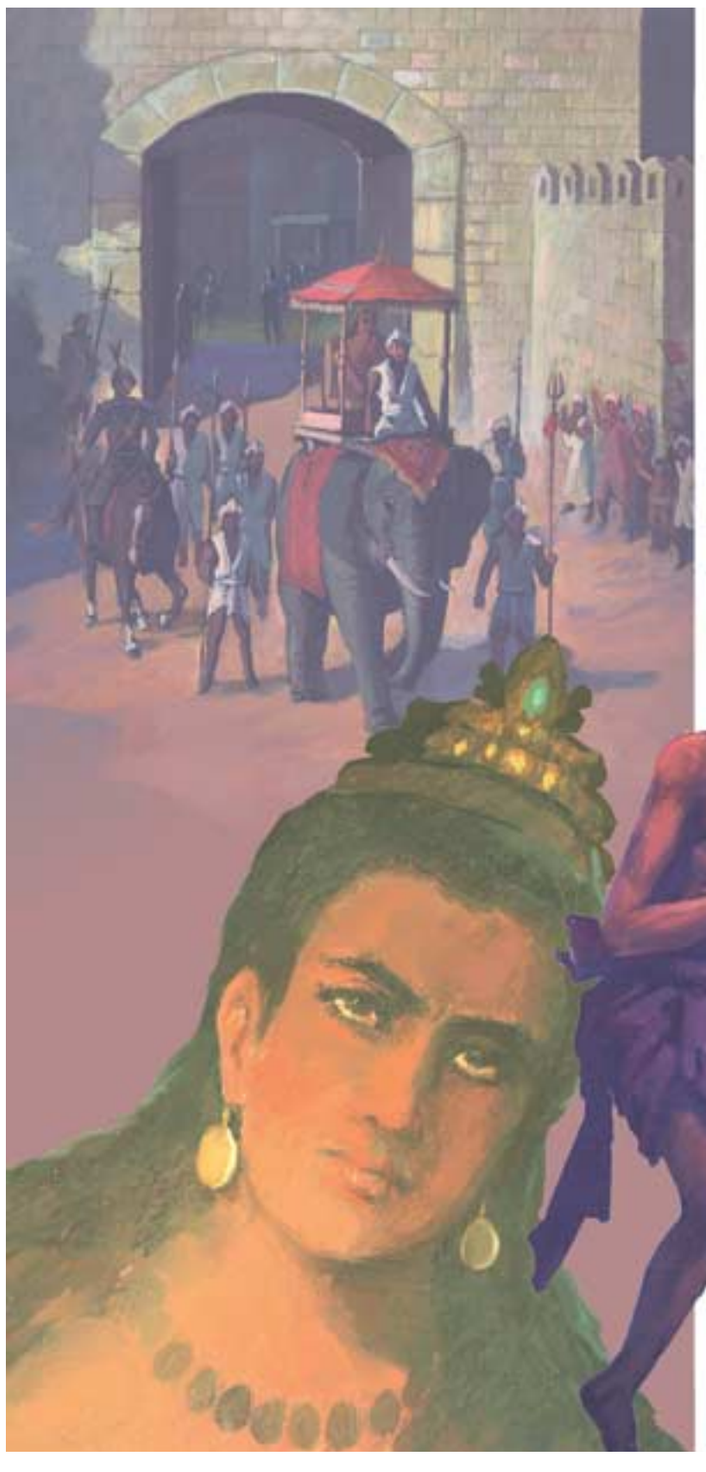
이때가 인간 싯다르타가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유일하게 오욕(五欲)을 즐기며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잘 잘못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기회였었다고 했다.

불전문학(佛傳文學)에 다음가 같은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비록 화려극치의 궁중생활이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한정된 공간 속의 생활이어서 어느날 문득 성밖으로 나가 보려고 생각한 태자는 시종들에게 그 차비를 차리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숫도다나 라자는 드디어 불안했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에 아연히 긴장하여 신하들을 은밀히 불러 명했다. 태자가 지나갈 길 옆을 미리 깨끗이 청소하고 꽃과 향수를 뿌리어 아름답게 치장시켜 놓도록, 또 총명한 신하로 하여금 태자를 시중들게 하여 혹시 발생될지도 모를 여러 가지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후 비로소 태자의 출궁을 허락하였다.

화려하게 장식된 코끼리를 타고 궁성의 동쪽 대문을 나선 태자는 오래간만에 홀가분한 기분을 만끽하며 시원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되었다. 궁성문을 나선지 불과 얼마되지 않았는데 태자는 부왕께서 그리도 보여주지 않고 감추려고만 했던 사실을 발견하고야 말게 되었다. 그것은 태자의 행렬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노인들의 모습이었다. 그 노인들은 머리는 거의 다 빠져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머리는 이미 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얼굴은 짙은 주름 투성이로 붉은 혈색을 찾아 볼 수가 없고 마치 부러질 것만 같은 마른 나뭇가지 모양의 팔 다리는 한가닥의 지팡이에 간신히 의지하여 걸어가고 있었다.





궁전 안에서 아름다운 미녀들 속에서 생활해 온 태자의 눈에 시꺼멓게 탄 피부에 검버섯이 뒤덮인 노인의 모습은 실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아, 아니 저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어찌하여 짐승의 모양처럼 생겼으며 또 어찌하여 두다리로 걷지 못하고 막대기에 의지하여 걷고 있는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리고 있으면 더 불편할 것인데 어찌하여 저런 흉측한 모습으로 걸어다니고 있는가?"

"태자님이시여,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나이까? 저들은 늙은 백성들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저런 모습이 되는 것이옵니다."

"태자님은 궁성 안에서 아름다운 것만 보며 지내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사옵니다. 그러나 태자님도 장차 늙어가시면 저 노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옵니다. 그것은 저 노인들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인생의 규칙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힘이 있어서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지만 저 노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늙은이들이어서 몸의 기운이 다 소진하였기에 허리를 펴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자할 수 밖에 없사옵니다. 사람이 늙으면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잃고 저 꼴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운명으로 비록 라자(왕)나 브라만이라 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태자는 갑자기 기분이 울적해지고 슬퍼져서 더 이상 놀이를 갈 생각이 사라져 버렸다.



궁을 떠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되돌아 온 태자 일행을 본 숫도다나 라자는 다가오는 커다란 불안감에 어쩔 줄을 몰랐다. 더구나 태자를 수행했던 시종의 보고에 의하면 태자가 결코 보아서는 알될 것을 보고 만 것이 아닌가….

태자가 늙은이를 만나 행차를 되돌렸다면 그는 이미 생(生)과 늙음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 할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을 때까지 고민하는 태자의 모습을 항상 지켜보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던 라자였다.

라자는 거듭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생각하고 있었다. "태자는 보통의 인물이 아니다. 만약 태자가 왕위에 오른다면 그는 전세계를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태자가 출가하면 그는 반드시 정각을 얻고 붓다가 되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태자가 반드시 왕위에 올라 우리 샤카족을 위하여 주위의 강국들을 제압하고 전륜성왕으로 군림해 주어야 할텐데….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짝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해도 웃으면서 인의롭게 대처하세요

근본적인 의문에 관하여

문 가장 근본적인 의문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해 오신 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전생으로부터 윤회를 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다음 세상에도 윤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다 보면은 태초에 과연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우주 만물과 인간 그리고 생명들이 과연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과 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 그래서 항상 우주의 근본자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오대양 육대주도 될 수 있어요. 자기 몸 속을 들여다보고 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나 복잡하고 거대하게 되어 있나.

그러니까 우주전하 만물만생이 다, 즉 말하자면 별레에서부터 진화되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자체가 벌레는 벌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가다보면 벗어나게 되는데 인간도 그렇습니다. 살다보면 차원에 따라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편안하지 못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백지장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진짜 하려면, 무조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 입체 생활을 다 팔겨 놓고 '당신만이 나를 건강하게 끌고 다니고, 당신만이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 나를 대신해서 가줄 사람도 없고 대신 먹어줄 사람도 없다. 내가 혼자 와서 혼자 지금 길을 걷고 있다.'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참나를 발견하고 감응이 될 때, 그때에 한 번 하늘을 쳐다보고 울고 한 번 땅을 내려다보고 땅을 치고 울 때 바로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인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머리로만 모두 알려고 하는 것을 다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차원에 따라서 빨리 싹이 날 수도 있고 빨리 더 클 수도 있고 아직 밑에서 싹도 나지 않는 분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즉어서가 열반이 아니라 롱짜지가 이었을 때, 롱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롱이 익었을 때 아주 잘 익었다면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탁 벌어지는데 덜 익은 거는 속 껍데기가 붙어가지고는 아무리 롱을 꺼려고 해도 안 까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 의해서 고생을 하고 죽는다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그게 잘 까져야 할 텐데 안 까지거든요. 그래서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애쓰다가 결국은 몸을 벗는다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롱짜지가 탁 벗어지게끔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대로 해나가야지 이 생각 저 생각을 자꾸 벌려서 하지 말아야 해요. 이 생각이 나는 대로 말겨놓고, 저 생각이 나는 대로 또 말겨놓으세요. 욜고 싶거든 자기 주인공을 불들고 욜고 감사한 일이 생겨도 자기 주인공을 불들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한 일년 계속 가 봐요. 진짜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모두 겁겁데기로써 애를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내 몸에 불이 났을 때 남이 나의 불을 꺼주는 게 아니라 제각끔들 자기 불 끄느라고 애를 쓰죠. 누가 불 꺼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가엾게 생각하고 불쌍히 생각하고 자기 주인공한테 감사하고…. 그러니 자기 주인공은 자기를 얼마나 위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그렇게 많은 살림살이에서 자기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꿈에도 보여주고 생시에도 보여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데 속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 속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환상천도 넘어서고 그 어떤 경계에도 속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꼭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근본 자리에 놓고 관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

문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구 참사를 겪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러한 대형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지구온난화현상으로 남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상기온으로 몇 년째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북한 핵전쟁 위협과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선포와 같은 무서운 일들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서 이와 같은 시련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마음을 어떻게 내야 하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요. 불경의 말씀처럼 말법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불법의 가르침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너무도 불안하고 당혹스럽습니다.

답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은 아주 산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신도님들은 꼭 알아둬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북극 남극의 얼음이 녹는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별 세계에서 자리를 바꾸고 죄 옷을 다시 입히는 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산란합니다. 그래서 물도 문제가 있고, 우리 몸의 혈관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물도 혈관을 따라서 가야 할 텐데 혈관이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주먹같이 뭉어리가 져서 믈이 그냥 일어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깐 믈도 바다에서 일어나고 허공에서는 비가 오고, 지구에 열이 나기 때문에 산에서는 화산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가 아주 바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올내년 아주 근중히 생각을 깊이 하고 조심들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지구 안에 열이 나면 하세계도 열을 받기 때문에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부엌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퍼든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나가서 돌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올내년은 믈이 솟고 허공에선 비가 오고 또 산에서는 화산이 터지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깐 어딜 가더라도 조심을 해야 하고 가다 오다가도 또 조심해야 하고 느긋이 맘놓고 다니지 못하는 이런 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죽는 해입니다. 그러니깐 정신차려서 꼭, 이걸 우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말이 아니더라도 뭐 다들 옹성옹성하고 야단들을 할 겁니다. 이건 전세계가 문제니까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문제가 아니라 수성이나 금성, 화성 이런 데서 전부 지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내년이 피가 안 도는 해예요. 사람의 피만이 아니라 전체에, 지구나 금성이나 수성 그런 데서 피가 안 돌아서 고장이 나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북극 남극에서 믈질 않으면은 믐이 순환이 되지 않아서 모두 믈이 뭉어리가 져선 그냥 솟고 그렇게 되요. 그니깐 그걸 혼동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저절로 혼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환이 되지 않아서 혼동이 나는 거죠.

그러니깐 걱정 근심 할 거 없이 인의롭게 웃으면서 잘 관(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요.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경험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화(禍)가 일어나서 죽으면, 죽었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순수하게 살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 순수하질 못해요. 금성이나 수성도 순수하지 못하고 지구가 순수하지 못하고 그러니깐 사람 사는 게 전부 순수하지 못하죠. 그래서 올내년에는 상당히 조심하고 사셔야 되요. 마음 한 번 잘 쓰는 대로 복이 오고 마음 한번 너그럽게 쓰는 것도 바꿔서 생각을 하고 웃고 사는 지혜로운 분에게는 액난이 딜 오고 순수해요. 그러니 모두 그렇게 사세요.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껄껄 웃고 뒤집어서 돌리고 그러세요. 남을 원망하거나 그런다면 더 원망이 나한테 돌아오니까요. 지금 이 말의 뜻은 대단한 것인데 많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깐 우습게 듣지 마시고 그냥 소신껏 생각을 갖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하루에 초 세 개씩만 태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압시키는 일이니깐 초 세 개씩만 하루에, 다 타지 않았다고 껐다가 다음 날 또 그걸 가지고 켜려고 하지말고, 그 날은 그걸 치우고 또 고 이튿날 다시 새로운 초 세 개를 켜고 해서 그 고난을 면하게 하세요. 하여튼 하루에 초 세 개씩만 켜되 불나게 만들지 말고 옹백이 같은 데다가 안전하게 해서 켜세요. 초 하나가 전 우주를 싸고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저 남한테 억울한 걸 덮어씌우려고 하지말고, 언짢다고 그래서 남한테 씌우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그걸 엎에세요. 나한테도 들어오지 않게 엎에세요. 그리고 스님네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서 체험을 얻으면서 살아나가면 곱게 살아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떠한 급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다 똑같아요. 들어 아니에요. 그러니깐 수만 명이 한데 합치면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걱정들을 하지말고 머리를 써서 진짜로 믿을 생각을 하고 믿는 반면에 에너지는 그렇게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불성은 다 똑같으니까 한데로 모아지면 큰 에너지가 되고 또 그 에너지를 안 쓸 때는 딱 폐지고 또 모아서 쓰고 이러는 겨죠, 그거 뭐, 그래서 모두가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통의 길을, 정통의 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진짜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나의 불성이 근본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생명의 근본인 것이지요. 우리가 작용해서 대치를 할려니까 주인공이라고 해야죠. 내 속에 있어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함이 없이, 진실하게 함이 없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진실한 거는 내 껍데기가 한 게 아니라 내 앞뒤이가 나를 이끌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진실한 거지, 내 몸뚱이가 진실한 것은 아니에요. 이 몸은 수레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레를 끄는 장본인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굴리려고 끄는 장본인 말입니다. 그걸 주장자라고도 하고 깃대라고도 하고 그냥 그걸 자불이라고도 하고 뭐, 불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있기 이전 그거를 알고 우리가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하면 나을 수 있는지

문 스님께서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빚어진 일이니 내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나의 근본에다 모두 맡기고 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다리 연골이 늘어져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내 안에 맡겨놓으면 내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절박한 마음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답 다리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체의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누구나가 다 주인이 있다면 심부름시키는 제 시자를 그렇게 돌보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자기 주인을 믿는다면 믿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 나가는 분인데 병원에서 폐암이라고 그래서 죽게 됐데래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이 더 넓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아팠을 때는 그냥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 조바심을 냈는데 인제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수술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죽으면 편안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주 더 간절히 주인공한테 관하고 오직 거기만 믿고는 기운이 없으면 참말 들을 줄여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그냥 믈쳐럼 마시고 어디가 쑤시면은 감자를 생으로 갈아서 한 컵씩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보약을 한 재씩 지어서 때로는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죽으나 사나 그냥 놔뭣다는거죠. 근데 지금 건강해서 잘 다닙니다. 그러니깐 모두 각자 자기 마음에 달려 있어요. 수습책 생각을 하니까 정말 수습책 되는 거예요.

또, 한 침심이 돼 못된 어떤 노인네가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암이 걸려서 도무지 엄마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돼서. 그런데 '수술을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소?' 이러니까 '수술을 하면 뭘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다 편안하게 가야죠.' 이러더라구요. 그러더니 그냥 그걸 엎에고 지금은 편안히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버리니깐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달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데도 믿지 못하면 힘이 드는 겁니다. 당신들 속에 주인공이 다 있다고 해도 나를 큰스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거 갖지만 불성은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들어 아니에요. 그러니깐 수만 명이 한데 합치면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걱정들을 하지말고 머리를 써서 진짜로 믿을 생각을 하고 믿는 반면에 에너지는 그렇게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불성은 다 똑같으니까 한데로 모아지면 큰 에너지가 되고 또 그 에너지를 안 쓸 때는 딱 폐지고 또 모아서 쓰고 이러는 겨죠, 그거 뭐, 그래서 모두가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통의 길을, 정통의 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진짜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나의 불성이 근본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생명의 근본인 것이지요. 우리가 작용해서 대치를 할려니까 주인공이라고 해야죠. 내 속에 있어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함이 없이, 진실하게 함이 없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진실한 거는 내 껍데기가 한 게 아니라 내 앞뒤이가 나를 이끌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진실한 거지, 내 몸뚱이가 진실한 것은 아니에요. 이 몸은 수레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레를 끄는 장본인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굴리려고 끄는 장본인 말입니다. 그걸 주장자라고도 하고 깃대라고도 하고 그냥 그걸 자불이라고도 하고 뭐, 불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있기 이전 그거를 알고 우리가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려면

문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정원사가 꽃나무를 가꾸듯 불성을 살려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불성을 살려내서 자유자재로 쓰고 발현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지금 알고 싶다고 마음 내는 사람과 마음을 내고 움죽거리는 사람이 어디 둘입니까? 둘이 아닙니다. 하나죠. 하나니깐 그 하나 속에서 자기를 발현해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모두들 지금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이 자기인 줄 알고 보이지도 않고 줄 수도 없고 가늘 수도 없는 정신계는 생각지도 않고 사는 겁니다. 그 보이지도 않고 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데서 자기를 리드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둘 아니게 상봉한다면 서로 뜻으로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요.

그래서 언젠가 '이 길은 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게 길입니까?' 하니까 아주 천야만야한 산중을 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에 너무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들고 밀고 거기가 깊이라고 한다고 갔습니다. 믿고 가짐 않았으면 그것도 깊이 아닌 길이라는 거를 몰랐을 텐데 갔기 때문에 깊이 아닌 깊이라는 걸 알았고 깊이 따로 없다는 걸 알았고 허공도 아닌 허공을, 즉 말하자면 속도가 빠르게 다닐 수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깐 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한 생각을 믿고 행하는 시자인 것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그 자기 심부름꾼을 진짜로 공부 가르쳐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바난을 하게 됩니다. '아이그, 뭐 그까짓 것…' 하고 그렇게 되면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항상 둘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깐 문제는 그런 데서 이 세상을 다 한데 합쳐도 하나로 구성된다. 하나로 돌아간다. 나중엔 그 하나도 없다는 것이 나오질 않죠.

그래 지금 모두 일들이 많이들 벌어지고 생기는 게 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그런다면 그냥 지금 믈질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같이 이어지질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깊을 제대로 걷게 되질 못하죠.

그래 전 세계에 믈난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모두 사람들이 곤경에 빠지고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다 해도, 이걸 병원에 가지 않는 게 옳으냐 병원에 가는 게 옳으냐 이거를 문제를 삼는 분들도 있겠죠요. 그렇지만 진짜로 믿는다면 병원에 안 가도 괜찮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은 밖으로 믿지 않고 오직 안으로 주장자가 완벽하게 섰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지 않는 분들은 서지 않은 대로 병원에 가고 병원에 안 가고 그걸 떠나서 병원에 가든 안 가든 진실히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살듯이 그냥 진실히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 아니게 들고나는 그 자리를, 그게 한자리입니다. 한자리라 하면 하나의 개별적인 한자리가 아니라 포괄적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한자리고 또는 거기에서 과거로부터 수없이 자기를 진화시켜온 장본인이 바로 홀연히 스님 법문 중에 자주 말씀하신 한마음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사로운 질문이란 생각지 마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한마음의 뜻이라는 건 소소한 의미의 한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종지에 담아도 한종지요 큰그릇에 담아도 한 여러분이 속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들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럿이서 모두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와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건 내면이나 외부나 모든 것이 전체, 삼라대천세계가 전부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건 왜?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니라, 사바세계의 천차만별로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나가는 거는 가설이 돼 있는데 그 가설된 근본은 바로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마음에, 전체가 한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 한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음 전체를 한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면의 세계의 그 생명들 마음들과 내 마음하고 한마음이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별성은 마음을 말하지만 혹성은 그 마음을 담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가 그저 한마음 이런 것이 없어요. 오고감도 없이 오고가고 이어감도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도 그렇고 은행나무도 그렇고 모두가 들이 천리라도 마주보지 않는다면 열매가 안 열리지 않습니까. 벌이 갖다가 자꾸 심어줘야 열리죠.



그림 · 최주현

운명도 팔자도 병고도 체가 없기에 붙을 자리가 없다

그렇이지만, 그리고 또 한바다만큼 담았어도 그저 한그릇이구요. 조그만 거서부터 큰 것까지 전부 한그릇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내 마음은 체가 없는데 무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무의 세계에서 한생각이 유로 나오고 유에서 또 무로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화를 이루는 진리, 여러분의 몸만 봐도,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속에서 운행을 해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땀먹는 대로 속상하게 생각하면 모두가 속을 뒤집어서 나옵니다. 생각할수록 그냥 속에서 이런 게 치밀죠.

아니 자기네들 뱃속에 조그만 벌레로부터 자기가 그렇게 커졌다는 걸 모르고, 벌레도 자기와 둘이 아니거늘, 하물며 여자라고 이런다면은 자기는 여자 속에서 나왔지 딴 데서 나오지 않았는데 어찌 둘로 나눔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고런 걸 가지고도 분별하는 사람이 아직 산하대지를 집어먹을 수가 있겠나 이거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는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져서 생명 가진 풀 한 포기도 나 아님이 없고, 내 생명 아님이 하나도 없고, 바로 내 모습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내가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모르던 때를 생각한다면 누구에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내 모르던 모습이지 하고 믈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사람도 착해지고 나도 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 허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진실한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벗어나는 마음의 법칙

문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는 경우와 풍요와 빈곤이 다가오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것이 전생의 업보나 그런 것에 의한 숙명적인 결론인지, 누구의 탓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질병을 극복하고 성공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벗어나는 마음의 법칙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 그것이 모두 자기 탓이죠. 뭐, 남 거에 자기가 살아 나온 과정을 진실로 지금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거기다 맡겨 놓을 때 입력이 되거든요. 이건 자동적인 입력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즉었을 때도 그것이 바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모르시죠. 뭐 책도 없고 적어논 것도 없고 그러니깐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오늘 하고 내일 가면 벌써 오늘 한 거는 모르시겠지만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숙명통에 입력이 돼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고생하고 가난과 우환과 성공과 심해의 그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니깐 거기서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성공을 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마음먹었던 거와 올해 지을 속에서 나온 거니까 내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가 거기서 벌어지죠, 해결이 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자 운명 타령은, 우리가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수없이 거듭거듭 태어나면서 똥고 똥기면서 엄마나 그냥 고생을 했습니까? 좀 벗어납시다, 아셨죠?

그런 관념, 관습, 운명이다 팔자다 업보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해 쥐 가지고 그게 습이 돼 가지곤 나는 업보가 엄마나 많아서 요렇게 뭘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줘요. 종교인들이 그런 건 만들어 줘서 안됩니다. 왜 죄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러고 멀쩡한 사람 너는 죄가 있고 어쩐 죄를 졌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남의 가정을 남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그런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명도 없고 팔자도 없고 병고도 체가 없기 때문에 붙을 자리가 없다, 고도 없다. 그래서 고집멸도 사제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 하나만 없다고 생각한다면 집착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어요.

이것이 참, 여러분의 생각 하나 차이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지 이 고깃덩어리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건 여러분의 그 한마음 주인공, 그 자체 바로 법화를 믿으라는 겁니다. 왜 자기 법화를 믿으라는데 자기 본래 자성불을 믿으라는데 왜 글책 안믿어요, 글책 참 이상해요.

내가 살아 나오면서 세상에 누구를 믿을 게 있습니까?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 데는 같이 가 주지 않아요. 사방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사람이 나이먹도록 잘 살다가 가야 될 시간이 되니까 "아, 너 나하고 같이 가지 않은데?" 하고 붙으니까 '네가 나를 좋아서 좇아 다녔지 내가 너를 좋아서 좇아 다녔니?' 그러고 안 가요. 모두가 그래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나 자식지간이라도 "너 같이 가지 않을래?" 하니깐 "네, 묘지까지만 같이 배웅하겠습니다" 또는 "화장터 밖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그게 영원한 친구입니까, 어디.

그러니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는 지금 몸을 모두 형성시켜서 가져 나온 장본인, 영원한 생명의 근본, 즉 말하자면 불성 그 자체만이 자기 선장이에요. 그러니 꼭 믿으세요.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자기 육신을 자기가 현신짝처럼 버리는 거와 같습니다.

여쭉하면 고양이 목을 딱 들고선 그냥 목을 딱 쳤습니다. 이걸 맘을 안 하면 치고 말을 대답을 하면 안 친다 했는데 말을 영 대답을 못하니까 고양이 목을 쳤거든요. 예전에 동당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 스님네들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냥 그른 입니까? 어느 스님이 들어오기에, 귀찮으니까 간단히 얘기하십시다. 그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른 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그냥 하십시오.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은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어 있어

☞ 29면에서 계속

의 의식들도 다 한마음이 돼 찍어만이 아픈데도 파워를 일으키지 않고 화합이 돼서 아프지 않게 되는 거지, 간의 생명들이 싸움을 해서 죽으면은 다 굳어지고 그래서 그게 간암이 되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하고 호응을 하는데 어떻게 간암이 됩니까?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싸움을 해서 모두 한 쪽이 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싸움을 안 하고 호응을 하는데 어떻게 간암이 됩니까?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싸움을 해서 모두 한 쪽이 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싸움을 안 하면은 즉지를 않죠.

그래서 늘로 보지 말라 이런 겁니다.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왔다 하는 것도 있지마는 안에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생기는 것도 너, 나를 떠져서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 백혈병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게 바깥에서도 세균이 들어와서 또 그렇게 싸우는 게 있구요. 그러면 내편을 다 만든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 가지구선 싸우게 되면 그거는 단박 그냥 순식간에 살이 굳어져 들어가니까 병자가 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모두들 늘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성, 업보성, 영계성 세균성, 유전성 이 다섯 가지가 주둔합니다. 다섯 가지가 주둔해서 모두 과거의 자기가 벌여 놨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 돈이 드니 못합니까. 힘이 드니 못합니까? 수억겁을 거쳐서 자기를 이끌고 나온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어야 나무는 아주 푸르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생각을 돌이켜서 간절한 마음을 내서 관하게 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려면

문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정원사가 꽃나무를 가꾸듯 불성을 살려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불성을 살려내서 자유자재로 쓰고 발현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지금 알고 싶다고 마음 내는 사람과 마음을 내고 움죽거리는 사람이 어디 둘입니까? 둘이 아닙니다. 하나죠. 하나니깐 그 하나 속에서 자기를 발현해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모두들 지금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이 자기인 줄 알고 보이지도 않고 줄 수도 없고 가늘 수도 없는 정신계는 생각지도 않고 사는 겁니다. 그 보이지도 않고 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데서 자기를 리드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둘 아니게 상봉한다면 서로 뜻으로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요.

그래서 언젠가 '이 길은 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게 길입니까?' 하니까 아주 천야만야한 산중을 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에 너무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들고 밀고 거기가 깊이라고 한다고 갔습니다. 믿고 가짐 않았으면 그것도 깊이 아닌 길이라는 거를 몰랐을 텐데 갔기 때문에 깊이 아닌 깊이라는 걸 알았고 깊이 따로 없다는 걸 알았고 허공도 아닌 허공을, 즉 말하자면 속도가 빠르게 다닐 수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깐 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한 생각을 믿고 행하는 시자인 것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그 자기 심부름꾼을 진짜로 공부 가르쳐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바난을 하게 됩니다. '아이그, 뭐 그까짓 것…' 하고 그렇게 되면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항상 둘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깐 문제는 그런 데서 이 세상을 다 한데 합쳐도 하나로 구성된다. 하나로 돌아간다. 나중엔 그 하나도 없다는 것이 나오질 않죠.

운명도 팔자도 병고도 체가 없기에 붙을 자리가 없다

그렇이지만, 그리고 또 한바다만큼 담았어도 그저 한그릇이구요. 조그만 거서부터 큰 것까지 전부 한그릇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내 마음은 체가 없는데 무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무의 세계에서 한생각이 유로 나오고 유에서 또 무로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화를 이루는 진리, 여러분의 몸만 봐도,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속에서 운행을 해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땀먹는 대로 속상하게 생각하면 모두가 속을 뒤집어서 나옵니다. 생각할수록 그냥 속에서 이런 게 치밀죠.

아니 자기네들 뱃속에 조그만 벌레로부터 자기가 그렇게 커졌다는 걸 모르고, 벌레도 자기와 둘이 아니거늘, 하물며 여자라고 이런다면은 자기는 여자 속에서 나왔지 딴 데서 나오지 않았는데 어찌 둘로 나눔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고런 걸 가지고도 분별하는 사람이 아직 산하대지를 집어먹을 수가 있겠나 이거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는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져서 생명 가진 풀 한 포기도 나 아님이 없고, 내 생명 아님이 하나도 없고, 바로 내 모습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내가 수억

불교 이래서 좋다



주미옥

카톨릭대 심리학과 2학년

차 한잔의 인연

벌써 2년 전 일이다. 내가 한 스님을 알게 된 것은 대학이란 신세계에 펼쳐진 생동감의 결정체 '불교 학생회'라는 동아리에 가입하면서이다. 동아리에서는 매번 방학 때마다 경북 영주 근처에 고풍스럽게 자리 잡은 사찰로 수련회를 가곤 했다. 산등성이가 제법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기슭에서 사찰의 대웅전까지 꽤 먼 길이 트여져 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감회가 새로움을 느꼈다. 귀 밑머리로 스쳐지나가는 바람은 무엇이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왔는지 커다란 물음표를 그리면서 지나가 버렸다. 다다른 입구의 사천왕은 그 동안 한껏 두터워졌던 나의 번뇌와 망상들을 잠시나마 묻어주었다.

이런 기억의 조각들을 선물해 준 사찰에서 스님과 멋진 담소를 나눌 기회가 종종 있었다. 스님께서는 투박해서 오히려 단아한 멋을 뽐내는 다기 그릇을 꺼내 놓으셨다. 그때마다 스님은 향긋한 찻잎이 우려질 때까지 평온한 시선으로 처마 밑을 바라 보셨다. 나 또한 활짝 열어 놓은 문밖으로 내다보이는 하늘과 구름에서 시선을 거두기 어려웠다. 그러는 동안 흘러가는 정적 속에서 스님과 나는 침묵으로 열 마디, 스무 마디 말들을 나누었다.

수련회에서 돌아와서도 줄곧 편지를 보내 스님을 귀찮게 해드렸다. 스님은 귀찮다는 내색도 없이 늘 좋은 책들과 좋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지금은 참마음의 세계로 향하셔서 물 흘러가는 데로, 구름 흘러가는 데로 떠나셨다. 하지만 스님은 언제나 고요한 진리의 살아있는 파동으로 내 기억 어디에선가 늘 존재한다.

부족하나마 이런 경험이 더욱더 삼보에 귀의하고자 하는 발심을 하게 했다고 고백한다. 지금쯤 스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 부처님 품안에서 세운 서원을 꼭 이루시고 참 마음의 세계로 향하시리라.

봉사하며 역사공부 "짱이야"

청소년 센터, 유적지 연계한 프로그램 다양

답사·환경정화 등 문화의 소중함 직접 체험

개학을 한 지도 열흘 남짓 흘렀지만 중·고등학생들은 긴 겨울방학을 보낸 탓인지 교실생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럴 때 야외로 나가 사찰과 문화재 주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올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www.youthvol.net) 전국 지부들은 다양한 문화·역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이런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면 즐거움과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자원봉사 점수까지 받는다면 일석이조다.

충남 지역 청소년들은 4월부터 '문화재 애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충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준비한 '문화재 애호 봉사활동'은 부여 '백제요'에서 백제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견학하고 보석함, 재떨이 등 토기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일이 끝나면 청소년들은 부소산성과 궁남지 등 사적지를 방문해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며 역사 유적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041)736-9003

대전 지역 학생들은 인근 유적지를 방문해 문화재 보호 및 청소, 잡초 제거 등 활동을 하는 '문화재 보호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문화재해설사과 함께 내 고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있다.(042)488-0732

광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조선 시대 가사 작가들의 활동 배경이 되는 담양 등 가사 문화권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는 '가사문화권 문화답사'를 실시하고 있다. 비정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참가의사를 봉사센터에 미리 밝혀두면 유리하다. 또 광주박물관에서 주변 청소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062)234-0755

전라남도의 문화를 배우고 싶다면 '남도문화역사기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전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부터 도내 문화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재를 답사하고 정화 활동을 펴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4월부터 매달 2회씩 실시된다.(061)243-1450

경상남도에서 자연 보호 운동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환경체험 릴레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또 경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문화재해설사와 함께 밀양문화권을 답사하고 문화재 주변 정화 등을 하는 '문화재 애호 봉사활동'도 실시 중이다.(055)264-2311

이와 함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 17개 지부들과 동시에 3월부터 '청소년 문화역사 지도'를 제작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3, 4월 경 청소년 봉사단을 구성해 4월부터 문화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모아 올 연말부터 인터넷상에 문화재와 관련한 전자지도를 구축한다.(02)578-4104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지난해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소속 학생들이 문화재애호단 봉사를 하기위해 설명을 듣는 모습.

3·1운동 기념 제24회 만해백일장 개최

촛불·휴대폰 등 주제 1천여명 겨뤄

시·시조 김수미, 산문에 조지영 대상

만해 스님의 문학정신과 민족자주독립정신을 기리는 '3·1 민족독립운동 84주년 기념 제24회 만해백일장'이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 주최로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촛불, 휴대폰, 밥 등 주제로 열린 이날 백일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 등 1천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었다.

시·시조와 산문으로 나눠 진행된 백일장에서 안양예고 김수미 양은 시·시조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부천여고 조지영 양은 산문 부문 대상을 받았다. 또 특별상인 우수단체상에는 안양예고가 선정됐다. 참가자 중 총 121명이 상장과 상금을 받았고 수상자들은 대학 입학시 특례입학의 기회를 얻게 된다.

심사를 맡은 신경림 시인은 "해가 거듭될수록 참가자들의 글짓기 실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교를 부리지 않는 솔직하고 꾸밈없이 쓰여진 글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만해백일장 참가자들이 동국대 중강대에 모여 있다.

능인복지관, 청소년 심리검사 실시

능인복지관은 만 3세~18세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리검사는 사전에 검사 날짜를 조정한 후 그 날짜에 복지관으로 찾아오면 된다. 검사항목은 지능검사, 인성검사, 적성검사, 학습지도검사 등이고 검사비는 5천원~2만원이다.

또 능인복지관은 사회 적응 및 인지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를 매주 실시하고 있다. 놀이치료는 1회당 2만5천원, 미술치료는 2만원이다.(02)571-2988

한불청, 3·1절 기념 장학금 지급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는 1일 서울 마포구 달마선원에서 우수 모범 청소년으로 선정된 정범(명지대 2년) 군 등 8명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수여했다. 참나지도자회 박재익 부회장과 고창영 사무총장, 대한장애인공예협회 송호섭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제84주년을 맞은 3·1절과 선 심리치료 상담전화인 '마음의 전화'의 개통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도각 스님은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에 우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작 비디오 파일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1984년에 제작한 116분짜리 애니메이션. 국내에서는 2000년 12월에 개봉되었다.

영화는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인간 욕심에 의한 전쟁, 환경오염, 자연파괴 다뤄

신비한 능력을 지닌 바람계곡의 공주 나우시카와 거신병이란 무기를 개발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군사대국 토르메키아의 대결을 축으로 전개된다. '불의 7일'이란 대전쟁을 통해 불바다가 된지 천년이 지난 지구는 '부해'라는 곰팡이 숲과 '오무'라는 곤충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다. 하지만 대자연은 '부해'와 '오무'를 통해 스스로 치유 중이었고 나우시카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연결된 존재란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영화는 환경오염에 의한 자연파괴와 인간 욕심에 의한 전쟁을 반대하는 등의 주제를 세련되게 그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03 '세계 물의 해'

이스라엘의 잠적농법

1인당 수자원 이용 가능량이 연간 300톤(한국 1200톤)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중동 최대의 농업국가가 된 데는 까닭이 있다. 국가 차원의 철저한 물 관리와 재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

농법개발로 물효율 90~95% 높여

처리수 이용으로 한 방울의 물도 헛되이 사용하기 않았기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1964년부터 잠적농법이란 농사방법을 개발해 사막에서도 농사를 짓는 기적을 일으켰다.

잠적농법의 원리는 간단하다. 토양 속에 파이프를 설치해 물을 뿌리 부근에만 최소량 공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농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통관개의 물효율은 40~60%에 불과하고 스프링클러 관개는 70~80%인데 비해, 잠적농법은 90~95%의 물효율을 자랑한다.

한국의 경우 전체 수자원 중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7%에 이른다. 전체 수자원의 절반가량이 농업에 쓰이고 그중 80%가 벼농사에 쓰이고 있다. 이제 벼농사도 보다 효율적인 물 이용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물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종찰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모시고 전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여 1358년간 전승해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금년도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7년 3월 일

■ 일 시
- 입제일 : 2003년 4월 6일(음 3월 5일) 일요일
- 회향일 : 2003년 4월 8일(음 3월 7일) 화요일

■ 장 소 : 통도사 금강계단
■ 계 사 : 전계아사리 현산 영철 대화상
■ 동참금 : 5만원
■ 접수처 : 본사 기와 접수처 및 각 말사

▷ **연락처** 부산포교당 (051)816-2241
마산포교당 정법사 (055)246-8393 창원포교당 구룡사 (055)255-6359
울산포교당 해남사 (052)211-3340 밀양 표충사 (055)352-1150
밀 양 무봉사 (055)354-3296 창녕 포교당 (055)533-2295
서울포교당 구룡사 (02)575-7766 서울 보현사 (02)355-9815

교 통 편
◉ 통도사 버스 - 부 산 : 온천장 지하철역 앞 08:00 ~ 9:00
◉ 대 중 교 통 - 부 산 : 노포동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울 산 : 시외버스터미널
대 구 : 고속터미널「부산행 일반고속」
서 울 : 동서울고속터미널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전계사 현산 영철 대화상 주지 이산 현문 합장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 종무소 055)382-7182 FAX 055)382-7196 / 기와접수처 : 055)381-1288

기차타고

봄꽃 가득한 산사로...

남녘으로부터 꽃소식이 들려온다. 동백꽃은 남해 바다를 빨갛게 물들였고, 매화꽃도 차츰 북쪽으로 걸음마를 띄우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4월초에 걸쳐서는 동백, 매화와 산수유, 벚꽃 등 봄을 대표하는 꽃들이 앞다퉈 꽃봉오리를 활짝 열 예정이다. 이에 철도청과 여행사에서는 봄꽃 군락지와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산사를 연계한 '봄꽃여행 상품'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 주말 교통혼잡 때문에 집 나서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겐 매우 유용할 듯 싶다. 울긋불긋 봄꽃이 어우러진 산사에서 부처님의 법향과 봄기운을 마음껏 마셔보자.



◇올해도 꽃소식과 함께 철도청은 3~4월 꽃놀이 열차를 운행한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들판을 가로질러 봄꽃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다.

동백꽃

동백꽃은 한 겨울에 잎을 열어 봄에 만개한다. 그래서 동백꽃 여행은 겨울에서 봄으로 옮아가는 나들이다. 여수 오동도, 해남, 남해, 거제도 등 바닷가 인접 지역에선 이미 꽃망울을 피어올렸고 만개정도는 60~70%정도. 절정시기는 이달 중순까지. 또다른 동백꽃 명소인 전북 고창 선운사는 이달 말에 꽃이 펴 4월초까지 이어질 전망. 여수 오동도와 돌산도의 향일암은 요즘 동백꽃을 감상하려는 봄나들이객들로 붐빈다. 오동도는 5,000여그루의 동백이 섬전체를 빨갛게 채색했다. 동백나무 후박나무 소나무숲이 울창한 섬 일주 산책로엔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동박새 우는 소리가 어우러져 정취를 더한다. 오동도는 바다풍광이



◇해남 미황사에 활짝핀 동백.

수려하고 향일암(061-644-4742)에선 수백그루의 동백나무가 사찰 암자를 둘러싸고 있다. 동백을 군호로 지정할 만큼 인연이 깊은 전남 해남은 두륜산의 신라고찰 대둔사(061-534-5502) 입구 1.5km의 동백터널로 유명하다. 중순이면 절정을 이룰 전망이며, 달마산 서쪽 미황사(061-533-3521)아래의 동백꽃 군락지도 지금 꽃망울이 틔웠지만 중순에서 말 사이에 가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남도 답사의 1번지로 불리는 강진 백련사(061-432-0837)도 동백숲이 울창하다. 약 2만여평의 넓이에 3,000여 그루가 자란다. 다른 곳보다 색이 더 붉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주부터 피기 시작해 이달말까지 동백을 볼 수 있다. 해마다 3월이면 동백축제를 열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계획이 없다.

매화꽃

섬진강변 백운산 자락의 매실단지는 벌써 매화의 폭설에 꽃동산을 이뤘다. 매화잔치는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청매실농원(061-772-4066)에서 25일까지 절정을 이룬다. 이 농원에 가면 50년동안 청매실농원을 일군 홍쌍리 여사의 강연을 듣고, 남도의 봄냄새가 물씬 풍기는 봄나물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다.

돌아오는 길에는 매실원액, 매실 장아찌 등 매실로 만든 갖가지 특산품도 살 수 있다. 청매실농원일대에서 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7회 광양매화축제'에서는 '매화꽃길 작은 음악회'를 비롯해 '매화 마라톤대회' '매실 시음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산수유꽃

지리산엔 매화 못지 않게 산수유꽃이 아름답게 핀다. 노고단 기슭 남서쪽 마을인 전남 구례구 산동면은 돌담길과 개천을 따라 산수유꽃이 핀다. 절정시기는 이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산수유꽃이 군락을 이룬 곳은 산동면의 상위마을. 절정기엔 온통 노랑 꽃구름속에 파묻힐 수 있다. 21~23일까지 지리산 온천관광지 일대에서는 '산수유꽃 축제'가 열린다. '산수유꽃 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사진촬영대회', '꽃차 시음회' 등이 열린다. 행사 문의 구례군청 (061-780-2496). 경기도의 이천 산수유마을은 4월 초순께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벚꽃

벚꽃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진해에서는 16만 그루의 벚꽃이 활짝 피고, 수양버들 사이로 화사한 꽃망울을 터트리며 터널을 만들어 장관을 이룬다. 진해군항제는 지난해부터 매년 4월 1~10일에 못박아 개최한다. 진해시청 관광계(055-548-2043), 축제준비위원회(055-546-4310). 화개장터에서 쌍계사(055-883-1901) 들어가는 입구의 십리 벚꽃길과 경주 보문단지에서도 4월초면 흐드러진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유채꽃

제주도에선 이달 중순이면 유채꽃이 노란 꽃물결을 이루기 시작한다.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일출봉과 산방산 주변이 유채꽃 감상의 포인트. 성산일출봉 터진목 일대 1,000여평에 걸쳐 한폭의 그림 같은 노란색 꽃물결이 넘실대며 산방산의 우회도로 주변 500여평을 가득 메운 노란 유채꽃도 아름답다. 이들 유채꽃은 '돌유채'라 불리는 조생종. 관광객들에 사진 촬영지로 제공하기 위해 재배한 것들이지만 실제 유채꽃 못지 않게 아름답다. 유채꽃은 이달 중순에 개화하기 시작해 4월 중순이후 절정을 이뤄 5월초까지 제주도를 온통 노랗게 물들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기차여행 상품

섬진강 매화꽃열차

▲기간 : 8일~13일
▲일정:서울역 출발(07:10)→구례구(12:15)→섬진강변 드라이브→매화마을(청매실 농원)→매화꽃 감상 →구례구역 출발(17:35)→서울역(22:40) 도착
▲가격:평일(29,500원) 주말(31,000원)

해남 매화꽃열차

▲기간:14~20일
▲일정:서울역(22:40)출발→목포역(04:05)→땅끝마을 전망대→미황사 참배→보해 매실농원 매화꽃 감상→목포역(14:50) 출발→서울역(20:21) 도착
▲문의:홍익기차여행사(02-717-1002)
▲가격:55,600원

지리산 산수유 꽃맞이열차

▲기간:21~23일
▲일정:서울역(07:45)출발→남원역(12:05)→지리산온천단지→상위마을 산수유축제 관람→남원역(18:05)출발→서울역(22:13) 도착
▲문의:홍익기차여행사(02-717-1002), 청송여행사(02-853-7787)에서 패키지발매
▲가격 : 49,400원

삼천포 선진리성 벚꽃열차

▲기간:25일
▲일정:서울역(22:10)출발→남원역(03:00)→문수암 일출 및 관광→삼천포 유람선관광→선진리성 벚꽃 관광→화개장터(쌍계사) 벚꽃관광→남원역(18:30)→서울(22:52) 도착
▲문의:프른여행사(02-882-7733)
▲가격:57,600원

진해군항제 벚꽃열차

▲기간:31일~4월 7일
▲일정:서울역(07:10)출발→진해역(12:23)→진해 군항제 관람, 벚꽃 감상 및 자유시간→진해역(16:55)출발→서울역(22:10)도착
▲승차권발매:전국 각 역(국철역)
▲가격:46,000원

하동 쌍계사 벚꽃열차

▲기간:4월1일~5일
▲일정:당일코스 / 서울역(07:45)출발->남원역(12:05)→지리산 쌍계사 벚꽃길 산책→남원관광단지 관광→남원역(18:05)출발→서울역(22:13) 도착
무박2일코스 / 서울역(23:55)출발→남원역(04:35)도착→지리산 온천욕→쌍계사 벚꽃길 산책, 쌍계사관광→남원역출발(15:25)→서울역(19:52) 도착
▲문의:청송여행사(02-853-7787), 홍익기차여행사(02-717-1002)
▲가격:당일코스(43,200원) / 무박 2일코스(53,400원)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계미년 새해 소원성취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신비의 염주

불자님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워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잠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강력한 氣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주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 후 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氣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왜 치아로 고생하세요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세요.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은 치아로 인한 고생은 없으세요. 미국구강학회에서 만든 브라이트를 사용해본 스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치약과 같이 사용하고 3일만 사용하면 입 냄새는 없어지고 7일만 사용하면 치통, 충치,찬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미백 효과도 있어요.
1set면 1년이상 사용하는데 가격은 60,000원입니다.
스님 저도 남는것이 없어요.
※농협 : 360-12-046446 최 능 우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온 은행석입니다. 저는 죽어가는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 25알을 넣으면 붕어는 10분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뚝 멈춥니다. 이외도 죽어가는 것은 다 살릴수 있어요. 스님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없어지고 하얀얼굴로 미백효과가 뛰어나요. 스님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제 고향,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이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스님만은 저를 믿고 베게속에 넣으시면 스님은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더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북한보건원에서 검증을 다 받고 한국에 왔어요. 스님 건강하시고 포교 많이 하세요. 스님 35,000원입니다.
스님 제 전화는 (02)722-1850 입니다.

★농협:1143-12-049474 송명화